

조계종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
"여성불자의 정진은
불교의 희망입니다."
8면

현대불교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금주의 법구 〈별역잡아함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30호 2013년 3월 6일 수요일

'문화융성'… 전통문화 육성·보존부터

박근혜 정부의 불교계 정책 과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문화융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드러나듯 박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 같이 문화를 국정과제의 키워드로 내세운 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에 대한 의지는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도 나타난다. 국정과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문화 재정 2% 달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은 역대 최고인 4조 1천억여 원. 지난해보다 12.2%가 늘어났지만. 정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예산인 5천 600억 원을 포함해도 1.3%정도다. 박 대통령은 집권 5년째인 2017년까지 문화 재정을 2%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있다.

문화재정 2% 확대 제시

문화재기금 5천억 원 약속

농지법 등 중첩 규제 법령

해소 관심… 부처 조율 필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법률 제정 및 문화재보호기금 확충안을 과제로 내놨다. 권역별 국립수장고 건립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 승격안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무형 불교문화재 보전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현재 2000억 원 규모인 문화재보호기금을 5000억 원으로 증액할 것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화재보호기금은 박 대통령이 2009년 대표 발의해 제정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 운용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대를 모으는 것은 불교 중첩 규제 법령 해소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통사찰 보존 육성과 더불어 불교계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농지법 제 6조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도 약속했다.

하지만, 불교계와 정부 부처 간 시각차가 커 실제적인 법안 개정 조율까지는 적지 않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는 "'문화융성'은 한국불교 문화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이제는 영산재, 연등회 등 무형의 불교문화의 문화적 탐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칼럼 31면

3·1절 특별기고 – 일본 이치노헤 쇼고 스님

불교가 동아시아 긴장의 해법

한국의 3.1운동과 일본 불교

식민지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무단정치(武斷政治)'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한국의 3.1운동이다.

조선총독부는 약 20,000여 명의 사상자를 낼 만큼 철저히 탄압했지만, 그와 반대로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은 벌판의 들불과 같이 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일본 불교계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지배자에게 동조하는 민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불교계가 실패한 최대의 원인은, 그 행동이 비불교적이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공존의 종교이며, 권력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당시 일본 불교계는 불교적으로 보면 실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3.1운동' 후 약 100년이 경과한 현재의 일본 불교계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는 것인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작년 9월, 1992년에 일본 조동종이 내놓은 '참사문'을 새긴 석비를 군산시(群山市)에 소재한 조계종 동국사에 세웠다. 참사비의 내용은 식민지 지배나 전쟁에 일본 조동종이 가담한 것을 참회하며 사죄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진정한 반성'이라고 높게 평가했지만, 일본 조동종은 참사비 철거를 나에게 정식 공문서로 요구한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케시마(竹島) 문제로 한일 관계가 긴장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참사비 건립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조동종은 불교단체가 아니라 마치 일본 외무성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인은 항상 정치권력과 분리되어 독립하고 있어야만 한다.

불교인은 영토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에 절대로 농락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 문제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현행 국제법에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는 일본 영토이지만,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1785)〉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는 한국 영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면에서 계속



봄이 보인다…꽃잎 한 장도 용화세계 산문의 길목에 사천왕이 있다면 봄의 길목엔 꽃들이 있다. 추웠던 겨울이 그 자릴 지나지 못하고 따뜻한 봄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2월 25일 경남 양산 통도사. 용화전 앞마당의 목련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부풀기 시작했다. 까마득한 세월을 기다리는 미륵부처님 앞에서야 한 계절 바뀌는 것이 별일도 아니겠지만 미혹한 중생의 눈에는 꽃잎 한 장도 용화세계다.

양산 통도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행정, 중앙서 교구로 재편"

총무원장 자승 스님, 본사주지회의서 의지 천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중앙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계종 행정체계를 교구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로 변화시켰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33대 집행부의 마지막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 및 중앙종회의장단, 본사주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합동워크숍에서 교구단위의 책임 행정으로 종단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중앙집중식 행정체계로는 종단의 현안과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고, 분담금의 규모는 물론 이에 의존한 종단운영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앙은 관리의 효율성에 노력하고 교구본사는 중앙의 행정을 나누어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실질행정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으로 마을 공동체를 꼽고 있다"며 "천주교가 마을 단위 성당 건립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선교와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들이 마을 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고 선례를 들었다.

행정 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사찰과 교구, 종단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교구단위 재정 집중과 책임적인 행정 집행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몇몇 교구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교육과 포교, 그리고 복지를 교구단위에서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구의 행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의 행정력과 실무력 향상을 위해 진력한다면 종단도 교구별 직영사찰 지정 권한 등, 종단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종도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준비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준비된 교구부터 실질적인 인사와 재정관련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중앙종무기관의 업무 체계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시간 동안 진행된 교구본사주지회에서는 △종무행정학교 운영 △교구별 승려복지회 운영 및 승보공양 운동 동참 △문화부 사업 현안 보고 및 협조 요청의 건 △신도품계법회 안내의 건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봉행의 건 등이 안건보고와 관련 토론이 이뤄졌다.

신중일 기자

930호 INDEX

종합 2·3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
실천승가회 20주년 세미나
부석사 불상 반환 반대
3.1절 불교기념행사 다채
종립학교 학생들 나눔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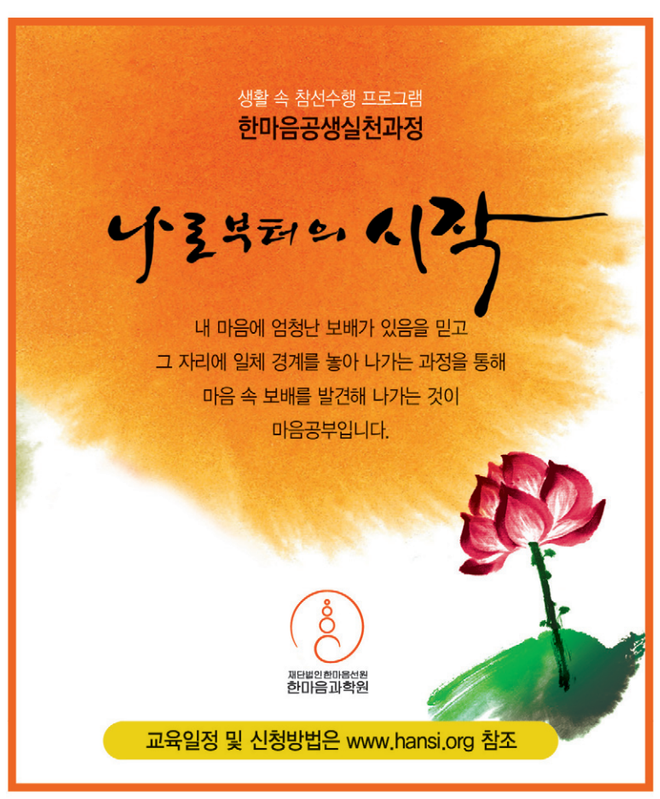
시방세계 5
월정사 동안거 해제



복지 7
합천 평화의 집 현황

화엄만다라 16·17
박준영 국악방송 사장

문화 – 봄철 사찰 문화 강좌 20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생로병사는

다리가 없는 강과 같은 것

당신은 건너갈 배를 준비했는가?

'생로병사'는 인간의 네 가지 가장 큰 고통입니다. 탄생은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고통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곧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은 악화되고 감각은 무뎌지며 치아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흰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지요. 기억력이 감퇴되어 성미를 고약하게 만듭니다.

누구도 불평 불만 많은 노인의 이야기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욕망 또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소유물이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찌될지 걱정이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노쇠하고 아프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극도의 고통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큰 고난은 요동치는 격동의 강과 같고, 우리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강을 건너갈 배를 준비해 건너편 기슭에 다다를 수 있는 배를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불자 역량 모으는 거리모금 펼쳐진다

날마다좋은날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 진행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기간 동안 대대적인 거리모금 캠페인에 나선다.

중앙신도회 사업단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회공헌기금 마련 행복바라미 거리모금 캠페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금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날마다 좋은 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거리모금 캠페인은 기독교계의 구세군과 같이 불교계의 대국민 기부문화의 확산과 사회공헌을 위해 진행된다. 행복바라미는 '행복'과 '바란다'의 합성어로 연꽃이 삼보륜을 품은 심볼로 제작됐다.

캠페인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4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광장 일대에서 알림식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시청과 백화점, 역사, 터미널 등지에서 카드 단말기가 내장된 138개소 모금함이 설치된다.

알림식에는 연꽃을 상징화 한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마당이 펼쳐진다. 실천의 시작, 나눔의 첫걸음을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마당에서는 김성주 아나운서 등 전문진행자들의 사회하에 특집방송이 진행된다. 또 K-POP콘서트와 열린음악회도 이어진다. KBS는 생방송으로 이를 방영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앞서 손연재 · 이상화 · 양학선 선수 등 행복바라미 홍보대사 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로고송 제작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캠페인 기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오아시스에서는 이들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행복과 나눔에 대한 프로그램이 3회, ARS스팟 광고가 130회 나갈 예정이다.

전국 모금현장에서는 행복과 나눔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광장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점심에는 연화다실 및 차나누기 행사 등이 진행된다. 또 BBS특별공개방송과 함께 전국나눔노래자랑(가칭), 청소년을 위한 힙합콘서트, 30일간의 승무, 혜민 스님의 힐링콘서트도 행사기간동안 진행된다.



전국 138개소 모금함 설치

4월 28일~ 5월 12일 진행

모금 시작일엔 K-POP 콘서트도

손연재 등 홍보대사로 참가

모금액은 종단 지정기관 전달

특히 연등축제가 진행되는 5월 11일에는 집중적인 캠페인이 펼쳐진다. 제등행렬에 맞춰 모금이 진행되며 12일에는 이음식이 개최된다. 불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행복바라미 서포터즈가 1008명 규모로 모집된다. 이들은 발대식과 함께 5개월 간 SNS홍보 등에 나선다. 모금 현황은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모금현장도 웹캠 서비스를 통해 실기간으로 볼 수 있다.

날마다 좋은날은 모금 목표액은 15억원으로 50억 원 이상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행정안전부 지정 복지기관 및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정 기관 등 260곳에 전달돼 무의탁노인 및 빈곤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무의탁청소년, 극빈 및 저소득가정,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에 사용된다.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사회공동선구현사업의 일환으로 연등회 기간에 맞춰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불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나눔의 문화가 자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1절 기고 '불교가 동아시아 긴장의 해법'

1면에서 계속

'일본국 불교' 과오 되풀이 절대 안돼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 문제로 인하여 한일 양국의 불교교류에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긴장이 더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에는 불교라고 하는 공통의 종교가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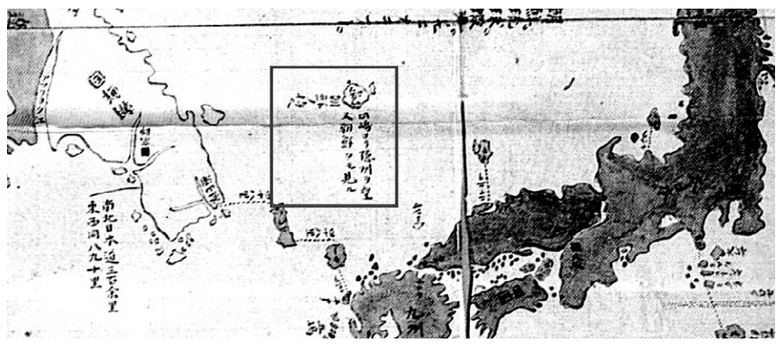
불교는 中道가 원칙

불교는 '중도'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는 것은 아니다.

1930년대, 일본의 신흥불교청년동맹을 주도했던 세노오 기로(妹尾 義郎)(1889~1961)는, '중도'를 "도(道)에 들어 맞는다"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불교적인 것을 '중도'라고 진술했다. 필자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 문제를 그레이존(gray zone:중립지대)으로 둔다는 것도 잘못된 '중도'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지금 일본에서는 영토문제로 한창 시끄러운데, 내가 보기에는 일본 불교계의 그 진의가 문제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만든 〈삼국통람도설〉 영인본 일부. 이 지도에는 독도를 "조선의 것(朝鮮ノ, 持ニ)"이라고 적고 있다. (□ 부분 참조) 사진 자료=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제공

결론으로서, 다케시마(竹島)=독도(獨島) 문제를 계기로, 불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해야 하는 것을 재확인해야만 한다.

불교는 민족이나 영토를 넘은 제3의 지점이 되지 아니면 안 된다. 그 지점을 놓친 것이 식민지 조선시대이며 전쟁에 가담한 일본 불교의 과거 흔적이다. 필자는 이것을 굳이 '일본국불교'라고 부른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다.

국가와 완전히 별도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 불교인은 부처님이 꿈에 그린 '공존하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모두 계속해서 정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결론을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말하고 싶다. "불교는 로맨틱 종교이다"라고….



이치노헤 쇼고 (일본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1949년 아오모리현 출생으로 고마자와대학 대학원 영미문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아오모리현 운쇼지(雲祥寺) · 주지이자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회장이다. 저서로는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가 있다.

중앙승가대 총장 후보 단일화 또 결렬

조정위 2차 회의서

교수회 추천 미산 스님과 동문회 추천 원종 스님으로 압축된 중앙승가대 제6대 총장 후보 단일화 시도가 다시 결렬됐다.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가 구성했던 조정위원회는 2월 28일 교내 교무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단일화를 조율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산 스님과 원종 스님의 입장을 듣는 등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차후 승가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예산 3억여 원 확정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는 2월 28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1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할교구 종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의해 3억8천9백24만6천 원으로 확정했다. 신중일 기자

생활속의 불법수행 ⑦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모든이에게 주어진 행복 초대장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원하기에 노력을 한다. 불철주야로 애쓰는 사람도 많다. 누구에게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기에 추구한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행복을 내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제 노력으로 벅차다 싶으면 他力을 빌어서라도 손에 넣기를 바란다. 그러나 왠지 행복은 쉽사리 손에 잡히질 않는다. 아직은 때이른 봄소식처럼 먼발치에서 가물거리는 경우가 더 많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원치도 않는 불청객 , 고통과 불행이 불쑥 덮쳐들기도 한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통탄해마지 않을 경우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꽉 잡았다 싶었던 행복이 어느 틈엔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지듯 떠나가 버리기도 한다. 어찌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낮과 밤이 갈마드는 모습을 닮은 듯하다. 왜 그럴까?

언제나 행복감에 젖어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 늘 편안하고 늘 건강하고, 늘 즐겁고 늘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늘 안전하고 늘 평화롭고, 늘 풍족하고 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릴 길은 없는 것일까?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행복의 길은 열려 있다. 있다! 행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에의 초대장은 쥐어져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과 불행은 탐 · 진 · 치 삼독심에서 비롯되고 행복과 즐거움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을 원하면서도 서로를 죽이고 미워한다.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를 바라면서도 다반사처럼 그것을 파괴한다.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건강과 풍요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치고 빼앗는 일을 자행한다. 제 몫만 챙기려는 삼독심 때문이다.

행복 · 불행의 열쇠는 내 마음에 있다. '나'를 앞세우고 '내것'부터 챙기려 하면 행복이 쉽게 잡힐 것 같지만 행복 대신에 불행이 밤 도둑처럼 소리 없이 찾아온다. 반면에 '나'를 죽이고 '내것'을 놓으면 불행해질 것 같지만 행복이 봄기운처럼 나를 감싸 안는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생각은 오직 관념의 허상일 뿐이다. 고로 나, 내것을 놓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행복은 놓아 버림에서, 불행은 집착에서 싹이 튼다는 말씀이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받기 전에 머저 주어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을 먼저 생각하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나눠 주기 위해 만들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땀을 흘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땀을 흘려라. 행복이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의식이 사라지는 만큼 찾아오는 것이다. 완전한 방하착은 완전한 행복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것은 진리이다. 부모자식간에도 그렇고 애인 사이에서도 그렇다. 나을 위해 수천 배 절을 하기보다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행복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법보시 국악기 전문 양지국악사
02)3673-3442 서울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실천의 20년, 다시 변화해야 할 때”

실천승가회, 20주년 기념 세미나서 ‘자아비판’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받들어 불교 내 제반 모순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 땅에 정토사회를 구현시키자.”

1992년 10월 1일 창립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천승가회)의 창립 취지문이다. 실천승가회는 종단 개혁과 사회 제반의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승가 모임이다.

이들은 1994년 종단개혁의 주축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한 축을 담당했으며, 악법 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법회, 안기부법·노동법 무효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 전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위한 불교단체 결성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20년을 거친 실천승가회를 현재 대중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천승가회는 2월 26일 자신들의 2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조계사 안심당에서 개최했다.

대승사 주지 학담 스님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실천승가회에게 도덕적 가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먼저 학담 스님은 실천승가회를 “한 시대를 관통하며 한국사회에 진보적 발언을 해온 단체”라며 “이런 실천승가회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후대 역사가들은 시대 요구 앞에서 승단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을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실천승가회의 많은 성원들이 종단 요직에서 책임있는 일을 맡고 종회에 진출하면서 사회운동단체의 성격과 함께 종권 계파적 성격을 띄게 됐다”면서 “개혁 진영의 종권 참여 이후 사판불교가 질적으로 고양됐지만, 실천승가회는 승가단체인만큼 도덕적 가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종단 개혁 운동 견인차

사회 문제 해결 참여

제도권에 들어오며 퇴색

불교적 방편 찾아

운동 방향성 정립해야

이어 스님은 실천승가회에게 도덕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요구해 부처의 가르침에 입각한 방안을 가지고 응답할 것을 주문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2월 26일 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통렬한 비판을 통한 변화가 실천불교승가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담 스님은 “실천승가회의 모임과 그 단체 활동은 역사의 요구에 한국불교 상가의 응답의 한 형태”라며 “공동의 선을 위해 연대하고 공동의 악과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대중의 연대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실천승가회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중앙종회의원 일문 스님은 “실천승가회는 현재 기로에 섰다”며 “이제는 진보운동의 한 축이 될 것인지, 수행집단으로 오롯이 설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승불교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승가회가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사무총장 금강 스님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실천승가회의 활동은 정치지향적인 모습이 강했다. 실천승가회의 이 같은 행보가 사실상 불교계 안의 진보적 운동의 토양을 만들어지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기득권을 버리는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실천승가회는 세미나에 앞서 제17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실천승가회는 △티베트 민주화운동 54주년 기념식 및 희생자 추모재(3월 1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 모금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해외 구호 사업 △UN경제이사회 NGO 등록 준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석사 불상 일본행 ‘STOP’

대전지법 반환금지 가처분… 불자 1인 시위도

부석사 불상 반환 반대에 한국법원이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일본정부가 반발하며 불상 반환이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불자로 알려진 한 시민은 조계사에서 불상 반환을 반대하는 단식 정진에도 들어갔다.

대전지방법원은 2월 26일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해 서산 부석사 신도회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원 소유자인 부석사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유권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자 일본 정부가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菅義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히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불자로 알려진 한 시민은 조계사에서 부석사 불상의 환지본처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정진에 들어갔다. 정진에 들어간 이는 2012년 7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인의 말뚝 테러에 항의해 일본 대사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던 김창근 씨.

김 씨는 2월 26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 △정부의 약탈 무노하재 66,000점 반환 △다케시마의 날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 씨는 “3·1절을 앞두고 이러한 일본의 작태에 참을 수 없어 나섰다”며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대거 불법 반출한 일본이 최근에는 타케시마의 날 행사를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박근혜 정부에도 “일본정부에 당당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3.1절 93주년 행사 ‘다채’

올해로 94주년을 맞는 3.1절을 기념해 불교계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죽림정사, 평화재단, 정토회는 3월 1일 전북 남원 죽림정사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명진 목사(갈릴리 교회 담임목사), 최종수 신부(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지도신부)가 축사하고 이응준 교무(원불교)가 백용성 조사의 시에 곡을 붙인 ‘온겨레의 노래’를 축가로 불렀다.

이와 함께 조계종 결사본부장 도법스님이 ‘3.1운동정신으로 국민통합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되새기자’는 주제로 강연했다.

독립운동가 스님을 기리는 법회도 진행됐다. 의정부 광동고(교장 박병선)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흥)는 광동고 법당에서 3.1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광동고와 사암연합회는 30년 전부터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용성, 만해 스님의 추모를 이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운허, 태허 스님으로 확대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회장 서쌍교)는 3월 1일 망우리 공동묘역에서 만해 스님의 묘지를 참배하고 스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1972년 창립 당시 첫 참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1번 째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참배에는 동문과 동문가족,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조선독립의 서’ 낭독, 참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쌍교 동문회장은 참배사를 통해 “독립운동을 대표는 민족지도자로, 위대한 시인으로 불교개혁을 갈망했던 선지식으로 어느 영역에서나 찬란하고 독보적이었던 만해 스님의 생애를 되새긴다”며 “정

남원 죽림정사

4대 종교 합동 기념행사

의정부 사암련

용성 스님 등 추모법회 봉행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만해 스님 묘소 참배

신적 좌표 없이 방황하는 이 시대 민중에게, 갈수록 의미를 퇴색해가는 불교계에 스님이 평생을 걸쳐 펼쳐보인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고 추모했다.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원장 원행)도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는 지난해 6월 타계한 故 김화선 할머니의 추모제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신중일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원만 해결 환영”

조계종 노동위, 성명서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이 故 최창서 씨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66일만에 장례식을 치룬데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위원회는 2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5살의 젊은 노동자의 영혼이 이제야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미망인을 비롯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故 최강서 노동자 죽음의 문제는 단순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 양극화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로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와 노동의 문제를 뒤돌아보고 해결하여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노사간의 합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노동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 108리더스 친구·후배 위한 나눔 ‘훈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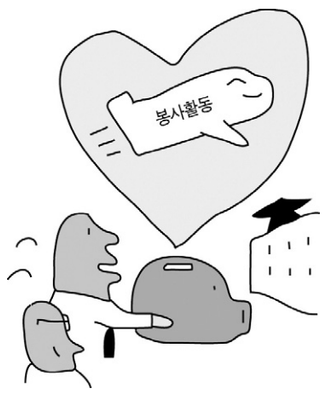
가정형편이 어려워 함께 봉사활동을 가지 못하는 학우들을 돕기 위한 나눔의 행렬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동국 108리더스’ 재학생과 졸업생 160여명은 2월 22일 십시일반 모은 4000만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모은 기금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현재 활동 중인 108리더스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해외봉사활동을 떠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고 ‘모두 다 같이 봉사활동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학생들 각자가 조금씩 돈을 모으면,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활동할 후배들은 모두 다 같이 해외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5월 학교 축제기간 동안 라오스·몽골·캄보디아 등 저개발국가로 해외봉사를 떠나기 위한 자선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108리더스를 졸업한 선배들에게도 전해졌다.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졸업생이 동참하며 1년만에 4000만 원이 모였다.

108리더스 재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내기로 뜻을 모았다.



해외봉사 못간 친구위해 시작

십시일반 1년 간 4000만원 모아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탁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108리더스 6기 이홍선(경제08) 회장은 “108리더스 활동을 통해 다른 곳에서 해볼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108리더스는 평소 취업은 물론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많이 받는데, 그런 교육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제공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재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이 무척 대견하다.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아 더욱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국108리더스는 항상 동국대의 대표 인재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108리더스는 학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매 기수별 120명의 학생들이 활동한다. 2012년에는 140명이 선발됐으며 1년 동안 각종 리더십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국내 사회봉사 및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 주 문



약사신앙 사진공모전 개최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5월 31일까지 동아시아 약사신앙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053)985-4405



제1차 범어사 성지순례 봉행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3월 25일 문경 봉암사로 제 1차 범어사 성지 순례를 봉행한다. (051)508-3122



보살계 산림 입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4월 14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산림에 입재한다. (055)382-7182



산수유꽃 축제 개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3월 30일 산수유꽃 축제와 함께 하는 스파 여행을 개최한다. (061)782-7600



제1차 학업 원만성취 관음기도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3월 1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제1차 학업 원만성취 관음기도에 입재한다.



월호 스님 초청 특별강좌 개설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 원장은 3월 13일부터 '행불선원장 월호스님 초청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국제포교사회 포교사 고시 시행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02)722-2206



'붓다와 여성' 강연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종교와 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의 초청으로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연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25대 함종한 회장 선임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2월 26일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서 열린 2013년도 정기총회서, 제25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4년이다.

함종한 신임회장(69)은 강원도지사와 제12, 13, 15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 현재 용석장학재단 이사장, 대한걷기연맹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레크리에이션 법회 활성화에 최선"

불레협 제13대 회장 선출된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



계층별 지도자 부재 등 청소년 포교 과제 산적

전문가 양성 위해 노력 지역 법회 네트워크 추진

"어린 시절 체험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불교의 미래와 희망이 어린이, 청소년에게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불교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한 축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게 중요한 소임을 맡겨 준 이상 천직으로 생각하고 불교레크리에이션 법회 및 전문지도자 양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제 13대 회장에 선출된 혜만 스님(동두천 자재암 주지)은 선출 소감을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혜만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한국불교의 당면과제이지만 그 여건은 매우 열악함을 꼬집었다. 조계종 포교원과 유관 불교 청소년 단체들이 적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변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일부 사찰들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은 운영의 어려움과 제약 때문에 소홀하다"며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어린이·초·중·고등부 계층에 맞는 계층별 지도자의 부재로 이들의 관심을 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행 과제에 대해 혜만 스님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스님은 "먼저 대중들의 마음을 열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그 방편이 프로그램이며, 진행은 지도자의 몫"이라며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도자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혜만 스님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자 모임 활성화와 각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어려운 불교 교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해 계층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알아 한다"며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지도자 모임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각 사찰, 청소년단체, 신도단체 함께 연대하여 지역별 청소년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여 계층별·포괄적 포교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불자들에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올바른 전법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혜만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아이들의 건전한 정신과 문화가 곧 한구 사회의 미래 모습"이라며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애민하듯이 불자들도 어린이·청소년들을 항상 바른 전법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불레협은 제12, 13대 회장 이·취임 법회를 오는 3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행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禪의 위대함 알리고 싶었죠"

중국어판 순례기 〈禪門之路〉 펴낸 대원사 주지 법지 스님



심산유곡 토굴 등 찾아 직접 사진 3000장 기록 4년 6개월간 110여 곳 순례

부산 대원사 주지 법지 스님은 중국 110여 개 사찰을 순례한 4년 6개월의 기록을 〈선문지로〉로 펼쳐냈다.

"선사상을 총망라하고 싶다는 생각에 2007년 중국으로 갔어요. 난징(南京)대에서 수학하던 2007년 11월, 동안거를 위해 남화선사를 찾았다가 중국에 산재한 선종의 발자취를 모두 순례해보겠다고 발심하고 110여 곳의 사찰을 순례한 뒤, 이를 중국어판 책으로 펼쳐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다. 하루 18시간 혼자 운전하며 졸음과 싸우는가 하면 숱하게 악천후에 시달렸다. 인터넷 정보로 그린 지도가 실제와 달라 길을 잃고 헤맨 적도 많았다. 장시(江西), 후난(湖南) 등 성 접경지의 심산유곡 사찰 경내에 어렵사리 발을 들여놓은 뒤에도 선승의 흔적을 돌아보려면 가시덤불을 헤치며 토굴 등을 찾아 헤매야 했다.

스님의 선맥(禪脈) 답사는 사찰의 역사, 선승의 행적, 문화유적 등을 빼곡히 기록한 수첩 수십 권과 직접 찍은 사진 3천여 장으로 남았다. 이를 토대로 난징대 철학과의 상룽(尙榮) 교수 등 중국의 종교·철학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선문지로〉를 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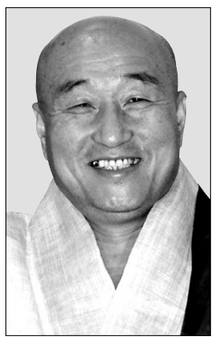
법지 스님은 이렇게 순례를 통해 학교에서 선사상을 연구한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고 한다.

스님은 "한국의 선종을 중국의 아류로 얕잡아보는 중국 불교계에 한국의 선(禪)이 살아 있다는 점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중국이 공산 국가이다 보니 당국 의도에 맞게 문화에 초점을 둔 점은 매우 아쉬웠다"고 전한다. 스님은 앞으로 2년간 20여 곳의 한국 선종 사찰을 소개할 계획이다.

법지 스님은 18세 때인 1980년 3월 부산 해조원(범어사 말사)에서 자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불국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동국대 선학과에서 '무아(無我)의 삼전성(三轉性)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2002년 봄 난징대로 유학을 떠나 2011년 5월 '육조단경(六祖壇經) 사상 및 연변(演變)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도 받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일면 스님, '한국을 빛낸 사람들'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 대상 수상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2013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에서 생명나눔실천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일면 스님은 한국언론인연합회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등의 주관으로 2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장기기증 홍보와 기증 활성화에 앞장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장기기증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돌파하고 희망등록자 수도 100만 명을 넘은 것을 보면서 장기기증 문화가 퍼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아직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며 "앞으로 더욱 장기기증 활성화에 매진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은 종교·정치·사회·경제·문화·국방·의학·환경·예술 등 일반 공직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의 공로 치하하고 표창해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불교상용의례' 지도교수 연수



불교상용의례 보급을 위한 지도교수들의 탁마 열기가 뜨겁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0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제2차 사찰승가대학 필수교과목 '불교상용의례' 지도교수 연수를 실시했다.

지도교수 연수에는 염불교육지도위원장 동주 스님과 위원 화암 스님, 인묵 스님, 법안 스님 등이 지도를 맡았으며, 각 승가대학에서 추천한 염불지도교수나 집전 스님들이 강의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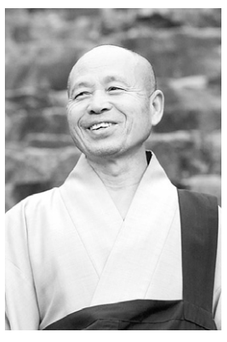
지도교수 연수의 내용으로는 사십구재, 상용영반 등 각종 재의식과 가정불공의례는 물론 염불교육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론과 실수를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염불교육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염불지도교수를 선발하고 연수를 거친 후, 각급 교육기관에 종단에서 결정한 한글 반야심경과 예불문을 각급 교육기관에 직접 지도해왔다"며 "지도교수의 지도와 학인들의 교육을 안착하고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포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교상용의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통화불교 전강원

대반열반경 수강생 모집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40권. 북량(北凉) 시대(A.D. 414~421) 번역. [역] 담무참(曇無讖)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래의 법신은 상주 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 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각성큰스님께서는 이번 열반경 강의가 일생 마지막 마무리 한다는 소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 더욱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전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 특 전 _ ① 통화불교 전강원 수료증 ② 전강원 연구회원 자격 부여
■ 제출서류 _ 수행이력서, 반명함판사진 1장
■ 접 수 처 _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번지 좋은절
■ 기 간 _ 4년

강의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
강의시간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 세미나실
수 강 료 | 한학기 6개월 (스님 30만원, 재가자 50만원)

모 집 | 비구, 비구니, 재가자 선착순
접수기간 | 2013년 3월 11일 ~ 3월 19일(화) 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 통화불교전강원 최재동)
문 의 | 010-4242-7070 (법경) 010-5497-8018 (용화) 011-520-9350 (도행)

주최 | 동국대학교 정각원 주관 | 통화불교 전강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전국 사찰과 선원은 2월 24일 불기 2556년(임진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석달 열흘간 안거 정진한 월정사 만월선원 스님들이 만행에 오르고 있다.



월정사 만월선원의 수행납자들이 안거 마지막날까지 정진하고 있다. 납자들은 이번 안거동안 자신의 마음자리에 만월을 띄웠을까?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이 2월 24일 열린 동안거 해제 법회 및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에서 탄허 스님의 수행일화집 〈방산굴의 무영수〉를 봉정하고 있다.

한암·탄허 후학, '禪敎一致' 정진 다짐

월정사 동안거 해제… 탄허 스님 탄신 100년 다례재

불교에서 '달'은 깨달음을 의미한다. '동방만월세계'는 약사정토 사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선사의 경책은 깨달음을 앞에 두고 이를 찾지 못하는 미혹한 범부를 꾸짖는다.

월정사에는 자신의 마음자리에 '만월(滿月)'을 띄우라는 의미에 '만월선원'이 있다. 오롯이 자신을 채운 보름달처럼 자신을 채우라는 의미일 것이다.

선원을 찾은 날도 둥근 만월이 떠오른 정월대보름, 불기 2556년 동안거 해제를 앞둔 날이었다. 올해 동안거에는 20여 명의 수좌가 방부를 들이고 깨달음을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사실 월정사에 있어 올해 동안거 해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월정사에 주석하며 수 많은 대중에게 불교의 참된 교리와 사상을 전했던 현대불교의 대강백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다례재가 해제 법회와 함께 봉행되기 때문이다.

흔히 탄허 스님을 떠올리는 이미지는 조계종 종풍을 따른 선사보다는 많은 학인과 강사를 키워낸 대강백이자 유·불·선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철인(哲人)이다.

하지만 지근거리에서 스님을 시봉했던 상좌 스님들은 탄허 스님은 '선교일치(禪敎一致)'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후학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선지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좌들에게는 한권의 경전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수지 독송할 것을 권했고, 교학을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는 참선을 통해 자신의 공부가 체화할 것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실제 탄허 스님은 매일 아침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으로부터 월정사의 가풍이 시작됐고, 그 제자였던 탄허 스님이 '선교일치' 관점에서 불교를 더 넓게 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월정사 만월선원, 단기출가학교, 템플스테이 등의 문화행사는 모두 두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를 한다는 것은 정중공부가 동중공부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불교 수행은 동중과 정중의 가풍을 두루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만행은 세상과 접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납자들이 정중·동중 공부의 진의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4일에는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가 해제법회와 함께 봉행됐다. 이날 해제법회에는 1981년 미국 고승법회에서 설한 탄허 스님의 육성법문이 후학과 대중들에게 깨달음의 진의를 전했다.

"유·불·선 삼교 표현이 불교는 만덕이 귀인이라 우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유교는 '정일집중'이라 정의롭고 한결같이 중도를 삼는다. 도교는 '득일만사철'이라 하나를 얻는 것 같으면 만사는 끝난다. 불교는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가지고 성을 본다. 마음이라면 총체적인 면모를, 성이라 할 것 같으면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월선원 內 20여 수좌 정진
'禪·敎는 하나'라는 가풍 지켜
결제는 동중공부로 나가는 길

탄허 스님 수행일화집 봉정
스님 가르침 선양 의지 다져

다례재에서는 탄허 스님의 수행 일화집 〈방산굴의 무영수〉봉정식이 함께 진행됐다. 〈방산굴의 무영수〉는 스님의 도반·법제자 11명, 문도 직계제자 9명, 수도원 시절 인연 6명, 비구니 제자 9명, 재가 인연 15명, 재가 제자 15명 등 총 65명이 스님과의 인연과 일화를 구술 정리한 것이다.

주지 정념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스님의 고뇌, 행보, 역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발자취"라며 "앞으로 문도회와 월정사는 탄허 스님의 모든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스님의 역사 및 사상, 지성을 올곧게 자리매김하는 데 진력하겠다. 또한 스님의 수행정신과 사상이 산중의 가풍으로 종단의 종풍으로 진작돼 혼미한 시대에 세상이 나아갈 지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암문도회 운영위원장 월면 스님은 봉정사에서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법통을 계승해 선문에 정진하시고 선어에 교학을 전승해 본지풍광의 심법으로 유·불·선 삼교의 학술을 회통하셨다"며 "후학을 위해 강원의 모든 교재에 현토·번역하고 오대산, 영원사 수도원, 초대역경장 등을 역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허 스님의 이력과 정신은 한국불교사에 찬란했지만, 스님을 연구하는 후학들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만, 수행일화집이 스님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연구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다례재와 봉정식에는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월정사 선덕 각수 스님, 동국대 이사 삼보 스님 등 상좌 스님을 비롯해 만월 선원 수행자 스님, 산내 암자 비구니 스님, 재가제자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석례 평창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평창 월정사=신중일 기자

공부·인재양성 평생 바친 분

상좌·시봉 스님들이 말하는 스승 탄허 스님



혜거 스님



삼보 스님



인보 스님

탄허 스님(1913~1983)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유·불·선 삼학을 두루 통달한 철학자이다. 스님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30주년을 맞는 시봉 스님들의 감회는 누구보다 남다르다. 시봉 스님들은 탄허 스님은 온화하면서도 엄격했던 은사로 회상했다.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은 가장 먼저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일화를 술회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은 항상 '큰 인재가 나와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항상 강조했다"며 "국가와도 바꿀 수 없는 인재가 나오도록 종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력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밝혔다.

실제 탄허 스님은 인재불사의 사명감으로 강원의 모든 교재를 한역(韓譯)했다. 그 분량 75책에 이른다. 거기다 사명감이 경전을 번역을 소의 경전 강원 전 교재들 대학과정까지 교과서를 전권을 번역 그게 75책이된다. 스님이 해오신 분량은 세조 당시 신미대사의 간경도감 설치해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 그때의 국책사업도 20여 책에 불과 하지만 스님은 혼자서 75책을 번역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은 완벽한 표준어로 100년이 지나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할 때 신중을 기했다"며 "언어의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스님의 번역본은 열반 30년이 지난 지금도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혜거 스님은 은사 스님이 항상 강조한 시간 관리에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님은 "탄허 스님은 9시에 자고 새벽 3시면 일어나셨다. 첫잠이 깨면 다시 눕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1분 1초의 낭비가 없으신 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할 일은 그날 마치셨고 시작과 끝이 항상 같았다"고 회상했다.

다른 시봉 스님들의 회상도 철저한 학승이었다. 동국대 이사 삼보 스님은 공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으로 기억했다. 스님은 "스님의 공양을 들고 오다가 엎어 식사 시간이 1시간이 늦어진 적도 있지만 화내시지 않으셨다"며 "하지만 공부에 게으름이 있으면 서릿발 같은 경책으로 꾸짖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원문을 다 외우지 않으면 아예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둔재라 공부 때문에 서러움을 좀 받았는데 요즘은 그때 서러움을 더 받더라도 더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한다"고 아쉬워했다.

9시 취침, 3시 기상
1분 1초 허투로 안 써
"공부만은 탐하라"고
독려하신 엄한 은사

탄허 스님을 시봉했던 인보 스님은 "가르칠 때 '이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단 10분의 여유도 주지 않으셨다" "책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강의하셨는데 그 분량이 방대했다. 필기만 정리하려도 몇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공부를 탐하라'였다"며 "월정사에 대학 수련회가 열리면 교수들의 특별 강좌는 빼놓지 않고 청강하셨다. 배움에는 지휘고하가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오래 사셨으면 좀 더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평창 월정사=신중일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템플스테이로 부족하면 청년법회로…

주요 사찰 청년회 법회 소개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다. 큰 시련을 겪게 돼 종교를 찾거나,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찾기도 한다. 이렇게 불교를 알게 되면 교리공부와 수행에도 관심이 가게 된다.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어 청년법회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국의 사찰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매주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다.





법회에 참석한 봉은사 청년들(사진왼쪽). 봉은사청년회에는 합창부, 봉사부, 문화부, 지혜부가 있으며 정회원은 1인 1부서에 소속돼 부서활동을 하게 된다. 조계사청년회 법우들이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제따와나 선원(원장 일묵, 02-595-5115)은 매주 일요일 오전 대학청년법회 '2030 법회'를 진행한다. 1부는 일요 경전법회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과 명상에 대한 법문을 들을 수 있다. 2부는 대학청년회원들끼리 경전독송과 아비담마 공부를 하고 법회가 끝난 후에는 차를 마시며 수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뒤풀이 시간을 갖는다. 매월 1·3째 주에는 일묵 스님과의 만남과 수행 인터뷰가 마련된다. 선원은 또한 매년 여름·겨울에 한 번씩 젊은이를 위한 마음명상 초보자과정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법회를 여는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 051-508-3122)는 각 주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청년법회를 진행한다. 매월 첫째 주에는 홍선 스님의 〈금강경〉 강의와 108배 수행이, 둘째 주에는 범어사를 탐방하고 찬불가를 배우는 문화법회가 열린다. 격월로는 연등제작과 생활용품(거울 등 악세사리)을 만드는 시간도 갖는다. 매월 셋째 주에는 지도법사 스님이 불교입문을 강의하며, 넷째 주에는 〈반야심경〉 강의, 생일파티를 연다. 다섯째 주에는 각 사찰을 탐방하는 야외법회도 마련됐다.

상도선원(원장 미산, 02-815-3391)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청년법회를 연다. 매월 첫째 주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주제로 법문을 진행하며, 매월 셋째 주에는 미산 스님의 〈초기경전 강의〉를 교재로 경전공부를 진행한다.

조계사(주지 도문, 02-732-2183)은 사계절의 특색을 살린 4개의 주제법회를 연다. 겨울(12~2월)에는 동안거 재가안거 수행을 실시하며 봄(3~6월)에는 연등제를 준비함과 동시에 '나의 스승'을 주제로 특별대법회를 준비한다. 여름(6~8월)에는 참선과 기초교리 공부로 신심을 다지고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가을(9~11월)에는 사회단체와 결연한 봉사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조계사는 주말에 참석하기 힘든 젊은이들을 위해 화·토요일로 법회를 마련하며 고정적 법사 운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성광·자우 스님의 '기신론 강의'와 힐링법회를 진행하며 토요일에는 광우·보각 스님의 '스토리텔링법회'를 연다. 또한 조계사는 수행을 생활화하고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가안거 수행에 주력하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는 "불교를 찾는 목적은 신행활동이다. 본래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 2회의 안거를 실시하며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매월 1회 수행법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길상사(주지 덕운, 02-3672-5945)는 매주 일요일 오후 청년회 정기 법회를 열고 있다. 매월 첫째 일요일은 다도, 영상법회 등 청년회원들의 재능기부 및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문화교육 시간을 가진다. 셋째 주는 외부활동 및 야유회 등의 문화활동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2·4째주에는 지도법사 광우 스님이 법문과 기초 선수행을 지도하며 다섯째 주에는 전국 사찰 순례를 한다.

봉은사(주지 진화, 02-511-6070)는 매주 토요일 법회를 연다. 청년회에는 합창부, 봉사부, 문화부, 지혜부가 있으며 정회원은 1인 1부서에 소속돼 부서활동을 하게 된다. 합창부는 정기연습을 통해 매월 1·3주 정기법회 음성공양과 각종 대·내외 행사에 참여하며 봉사부는 2·3째주 일요일에 승가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부는 매월 4째 일요일에 사찰문화탐방을 겸한 정기산행을 하고 있으며 한지공예특강, 연꽃컵등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지혜부 회원들은 기초교리를 공부와 불교서적 독서토론을 실시하며 매월 3째주 토요일 철야정진을 비롯해 마음나누기, 기도, 간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이슈와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마음공부를 하는 법회도 있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02-6925-7075)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백년 청년학교'다. 청년학교는 3월 25일~6월 2일 매주 1회 11주 과정으로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법륜 스님 입학특강 '새로운 백년을 여는 청년의 상상력' △오리엔테이션, 명랑운동회, 에코 MT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역사 탐방 △그룹세미나 '자기실현과 사회변화' 등을 주제로 한다. 신청기간은 3월 10일까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따와나… 경전법회, 담선시간

범어사… 매주마다 알찬 프로그램

상도선원… 초기경전공부 진행

조계사… 화요일저녁도 법회마련

길상사… 재능기부 통한 문화활동

평화재단… 포럼형식 청년학교 개최

농어촌 포교 활성화 방안은?

포교원 3월 15일 포교종책연찬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3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농어촌 포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5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포교 사각지대로 꼽히는 농촌과 어촌에 대한 포교방법론이 모색된다. 특히 지역 친화적 불교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108산사순례로 지역포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법문한다. 이어 첫 번째 발제로 당진 정토사 주지 선오 스님의 '농촌 포교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되며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수지행 남원실상자 종무실장이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발제로는 '어촌 포교활성화'를 주제로 광주전남전법단 지도법사 도제 스님이 발표하며 완도 신흥사 법일 스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포교원은 "현재 도서지역인 어촌은 기독교 선교가 활발한 지역"이라며 "성지순례 등과 연계한 지역연대 활동과 사찰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국제선센터, 禪 심리상담서비스

19일부터 불교영어강좌 진행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禪)과 심리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선과 심리상담서비스'는 선체험을 통해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심리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참본성을 자각함으로써 자유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4시 예약제로 진행되며 불림 스님, 상준 스님과 전문 상담사가 상담자로 나선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불교 기초지식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불교 영어강좌를 개설한다.

진관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담당법사인 불림 스님이 '붓다의 음성-영어가 즐거워'를 주제로 3월 19일~5월 16일 매주 화·목요일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틱낫한 스님의 저서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를 교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쾌하게 익히며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영어 읽기·듣기·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불교상담개발원은 2월 21일 회의를 열고 불교인재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한다.

불교상담개발원, 4월 자살예방세미나 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포교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와 불교인재 네트워크를 위한 강사 인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불교상담개발원은 4월 25일 불교역사문화박물관에서 자살예방 세미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지하공연장에서 창립기념식과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인재 네트워크를 위한 강사 풀 구성과 연합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훈동 한별정신과 원장, 총무는 이경애 심리상담소장이 위촉됐으며, 1년을 임기로 활동할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회의를 매주 셋째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정례화 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는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과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등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10명이 참여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혼인준비교육 등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불교여성개발원 2013년 정기총회 개최

불교여성개발원이 2013년을 생활수행문화 확산의 해로 삼고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

불교여성개발원·지혜로운여성(원장 정경연)은 2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 중점사업을 확정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올해 여성불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제6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과 교유의 장을 제공한다. 또 승만보살 10대원 실천과 사례집 발간, 웰다잉 교육 전문화, 사찰음식 문화 대중화로 채식과 친환경적 생활문화 조성 등 생활 속 수행문화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108인과 영108의 만남을 통한 세대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미혼남녀를 위한 혼인준비교육도 실시한다.

20대 젊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GEP(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를 통해 불교리더십을 개발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 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사회참여에도 앞장선다. 2012년 서울시봉사단체등록을 마친 개발원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집단상담프로그램 '내생애봄날'에 강사 파견지원을 실시한다. 또 다문화가정지원 및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도담도담놀이교사'를 파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도 계속 동참해나간다. 아울러 고등동다목적복지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지원 및 자원봉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정경연 원장은 "9월27일 부산에서 열리는 '6·25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위해 10만등 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밖에 거사 108인을 추대하는 사업도 추진해 남성불자들의 신행활동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불기 2557(2013)년

태고 경남 전문 강원 2기 학인 모집 안내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 강원을 개설하여
2기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과정

학기 / 과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교양필수	초발심, 사미율의	치문	서장, 도서	선요, 절요

1) 교육시간 : 2학년 4학기
2) 수강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까지
3)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4) 접수기간 : 불기 2557년 2월 25일 ~ 3월 25일까지
5)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태고종도는 생략), 입학원서 (종무원비치)
6) 수 강 료 : 한학기30만원 (교재비 별도), 우수한 학인은 장학금 지급됨.
7) 강 주 : 운범 스님
8) 입학식 및 개강일 : 불기 2557년 3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의식 : 2.4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까지 (월 2회) / 강주 : 불모산 영산재 보존회 회장 석봉스님
※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종무원 (☎ 055-298-363 4 / FAX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59-2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우편번호 : 630-811)

태고 경남 전문 강원 강원장 조지현 합장

“원폭피해세대 지원 대책 속히 추진돼야”

연대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
합천 평화의 집 현황





연대회의와 원폭피해 1·2세들은 2월 21일 경남 합천에서 원폭피해자 1·2세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폭2세환우들은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등 정신·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좌). 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회장(사진 왼쪽)의 아들도 뇌성마비 환자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원폭피해자가 가장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경남 합천군. 이곳에 원폭2세 환우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첫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이 자리하고 있다.

합천 평화의 집(원장 윤여준)은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2010년 3월 1일 100㎡의 개인주택을 개조해 만든 곳이다.

“병고에 시달리는 우리들은 정작 마음 놓고 문제를 호소하고 해결할 변변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평화의 집이 설립되기 전에는 원폭2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실질적인 후원이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쉼터가 생기면서 원폭피해자 2세 환우들이 요양할 수 있는 방 3개와 거실 및 사무실이 마련돼 그나마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고통 받는 원폭2세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70만 명이 피폭됐다. 그 중 10%인 7만 명이 강제 징용된 한반도 출신 동포였다. 이들 중 4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3만 명의 생존자는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왔으나 대부분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현재 원폭피해자 1세 대부분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불과 2670여 명이다.

피폭의 상처는 1세대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원폭2세환우들은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등 정신·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원폭 2세대는 7000~1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30%인 2300여 명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다.

일본은 1957년 원폭의료법이 제정돼 일본인 피폭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책임을 저버려 원폭피해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원폭 피해 배상을 촉구한 끝에 간신히 원호수당을 받고 있는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들은 한·일 양국의 외면을 받아오고 있다.

장애판정이라도 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원인모를 관절염, 협심증, 고혈압 등의 병을 2세들은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

환우들의 쉼터이자 미래를 위한 곳

합천 평화의 집은 현재 원폭2세 환우 가정을 찾아 재가복지서비스 및 현황파악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원폭2·3세 환우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조례제정운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매년 봄, 가을에 떠나는 평화여행은 원폭2세 환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원폭피해자 1세 어르신들을 위한 평화잔치 및 원폭희생자 추모문화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평화공원과 평화자료관 건립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원폭피해자 1·2·3세로 구성된 ‘합천평화씨알합창단’이 창단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평화의 집과 원폭피해자의 소식은 해외에도 알려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가와 활동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비롯해 각종 시민모임이 평화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합천 평화의 집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원폭2세환우를 위한 전문복지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땅 한평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평화의 집은 “전문복지센터가 건립되면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건강의료상담과 취업상담, 모임, 심리치료와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원폭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수립을 촉구 해왔다. 17·18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무관심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및 국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발의를 준비해왔으며 2월 21일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피해자 1·2세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국회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소관위 접수상태이며,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두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대해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다음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법공청회와 기자회견을 비롯해 토크콘서트, 사진전, 다큐상영회, 캠페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등 다양한 대외적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국내 원폭피해자와 2세 환우의 현실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2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폭피해 1·2·3세대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원폭환우들에게는 하루 하루가 피말리는 시간들이다. 원폭피해자 1세대가 사망하고 나면 원폭피해 실태를 규명하는 일도, 후세대에 대한 지원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올해를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여론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프리카에 학교 짓는다

아름다운동행, 5주년 맞아 1만 회원 모집 등 캠페인도 전개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이 2013년 5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추진한다. 불교계 내 모금에서 기업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일환이다.

아름다운 동행은 2월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아프리카에 중, 고등학교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케냐와 탄자니아 일대로 4월 중 부지선정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기독교계 공익법인인 굿네이버스 등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에 학교와 기초생활시설 건립 등을 통해 활발한 기금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이 건립하는 학교는 불교를 넘어 한국문화와 기술을 알리는 곳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현지 답사를 거쳐 현재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불자들과 일반 기업,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와 함께 2000명 수준인 정기 기부회원을 1만명 수준으로 유치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름다운동행은 먼저 학교 건립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과 후원의 밤, 아프리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가족 걷기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윷놀이 하고 부럼 나누고…행복은 우리 것”

교계 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다채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을 실시했다.

불교계 복지관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2월 22일 관내 야외마당에서 달집태우기, 소원지태우기를 하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했다. 또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마련해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가졌다.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진관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립불광노인복지관(관장 강송림)은 22일 대보름 전통놀이 체험과 팔씨름 대회를 열었으며, 오곡밥과 수육, 부럼 등을 함께 나누고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도 같은 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큰잔치 행사를 실시했다. 복지관은 풍물패 풍물공연, 평양아리랑 예술단의 신민요 및 장구공연, 난타공연, 남북사랑 예술단의 트롯트 및 색소폰 연주 공연 등 다양한 외부공연들을 마련해 이용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2월 21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축제 ‘도전 골든벨’을 실시했다. 저소득 가정 아동과 가족,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로 한국의 명절문화와 정월대보름에 관한 퀴즈를 풀어 최후의 1인을 가려냈다. 22일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1일 어르신 200명을 모시고 ‘윷놀이 한마당’을 비롯해 먹거리 장터와 민요공연 등을 마련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2월 22일 복지관내 1층 경로식당에서 속초시 지역내 어르신 250여 명을 모시고 부럼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교계산하 복지관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무사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일산노인, 문화대학교 졸업식

일산 노인 복지관 졸업식고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2월 21일 복지관 강당에서 제11회 호수복지문화대학교·제8회 호수복지문화대학원 졸업식을 실시했다.

복지관 부설 호수복지문화대학교는 일반 대학의 학사 운영 체계를 도입한 4년 8학기제의 학부와 2년 4학기제의 대학원 과정, 3년 6학기제의 특별연구생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노인평생교육대학으로 교양, 교육, 음악, 무용, 건강, 체육분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는 호수복지문화대학교 123명, 호수복지문화대학원 45명, 특별연구생 16명 등 184명이 졸업의 영광을 안게 됐다. (031)919-8677

이나은 기자

홍천군장복, 풋살 선수 모집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희유)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로터스 풋살선수’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2명이며, 13~50세 이하의 홍천군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로터스 풋살에 입단할 경우 강원도 및 전국대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동지원 및 유니폼 등이 제공된다. (033)435-7031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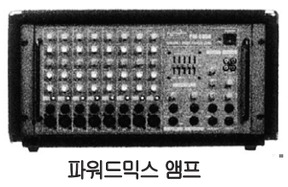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적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여성불자 정진은 불교 희망”



조계종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2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를 찾아 승만 보살 10대원 정진 1100일을 맞은 여성 불자들이 활발한 신행활동과 함께 불자의 사회적 역량확대에서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영 스님 (조계종 前 포교원장)

昨夜夢中 頭頭佛 작야몽중 두두불
今朝開眼 物物薩 금조개안 물물살

어젯밤 꿈속에는 머리머리마다 모두 부처이더니
오늘 아침 눈을 뜨니 물건물건마다 보살이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즉, 부처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뜸과 동시에 가정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보살로 거듭거듭 다가가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법은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고 그대로 있음을 설합니다. 불자가 어떻게 보살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여러분이 틀림없이 승만 부인처럼 성불할 것이란 믿음이 생깁니다.

얼마 전 대만에 갔습니다. 불교 5대 기념일 중 하나인 우란분절을 맞아 승공법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탄생·출가·성도·열반과 함께 우란분절의 의미는 큽니다.

우란분절은 원래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지옥의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우란분경〉의 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목련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餓鬼)의 세계에 빠져 고통 받고 있음을 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승려들이 모두 모여 참회하는 자자(自恣)를 행할 때 음식 등을 보시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구제됐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이 우란분절을 더욱 확대해 승공법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승공법회를 하며 지옥 중생의 구제를 기원하면서 재가자들도 스님들과 함께 스스로를 참회하고 정진을 다시금 다짐하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대만에서 불교문화가 사회에 크게 자리한 데는 바로 인간불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불교, 대승적 실천을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불교의 특징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1100일 동안 승만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 말했던 시구처럼 우리는 보살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주인의식 가질때 참불자
일념이 곧 수처작주
마음 집중에는 남녀 구분 없어

‘멀리 창밖을 보니 처처마다 주인이더라.’ 여러분은 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임제 선사께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처처에서 스스로 주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으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저는 경봉 스님을 모시고 선방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는 선방에서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경봉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법당이 가득 차다 못해 마당이고 산이고 사람들이 서서 듣는데 경봉 스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인생은 쇼야, 사바세계를 무대로 주인공으로 멋지게 쇼를 하는 거야.’

경봉 스님의 이 말씀도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양사 방장을 지낸 서옹 스님은 참사람 운동을 폈습니다. 그 근본도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입니다. 지금 스스로 서있는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일념으로 이어집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있으며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침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수행에서는 일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아무리 앉아도 일념이 없으면 화두가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으면 마음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는 여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도 많고 복잡한 삶을 삽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행하기란 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 복잡함 가운데서도 매순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남녀, 승속이 따로 없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거사들, 또 승만 부인 같은 보살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삶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욱 보살피고 일념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은 바른생각·자신감 가져야”



BBS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은 2월 2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탁월한 안목의 소유자! 당신을 위한 아주 특별한 명품콘서트’를 열었다. 서울경기불자청년회가 개최한 이날 ‘두런두런 토크콘서트’서 정목 스님은 취업난과 경제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청년 불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건네는 법문을 했다.

노덕현 기자

정목 스님 (정각사 주지)

저는 26살에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동국대 추천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느낀 바로는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는 인생의 계기가 된 일이 찾아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지도법사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26살에 시작해 31살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배웠던 간에 재가자들은 머리 깎은 스님들에게 큰절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스님이기에 의례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재가자들을 보며 종교와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찰에 갖고 오는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 것이며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는 끼니도 굶어가며 일한 이들이 자기 집안과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며 한푼 두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전화에서 무료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와 병원 일하고 저녁에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불륜과 같은 범죄들은 2~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특히 어린나이에 아버지와 딸의 성관계 등은 절 집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절집에서는 그저 새벽에 경전보고 기도하고 청정한 삶을 꾸리면 되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 온통 사람들이 어지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저 스스로도 그런 고통을 보며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치열한 삶을 영위하는 재가자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는 앉아서 절 받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절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뇌가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절에서 축원해 준다고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의말 경청할때 지혜생겨
삼업청정·탐진치 다스리고
‘원리전도 몽상’ 꿈을 펼치자

이런 생각에 17년간을 사회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절에서 조용히 지낼 수도 있었지만 함께 있으며 세상 사람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들을 한 번씩만 일으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나이가 54세가 됐습니다.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수행자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이 있다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수행자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절이요, 스님이여야 합니다. 저는 이를 ‘천처법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세상천지가 법당이란 생각에 52세가 될 때까지 주지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지로 있는 사찰도 은사스님이 연로하셔서 맡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 ‘천처법당’, 사람이 법당이고 곳곳이 법당이어야 한다는 마음에 20년 전부터 인터넷 법당인 유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불자님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불자들이 스스로의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하지만 분노의 상태에서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마음 밑바닥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의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면 한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의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은 뒤집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가진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불자의 길이란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여러 청년 불자들을 뵈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숨 쉬고 있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면 하시는 일들이 잘되실 것입니다.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강일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대한불교 선종

음 정월 15일 해제를 마치며

서기 2012년 음 10월 15일 대한불교선종 대원사 사부대중, 주석 스님 몇분과 불자 200여명은 선불교에 대한 연구와 발표 참선, 명상, 위빠사나 여러방편으로 3개월의 수행법회를 공부한 결과 2013년 계사년 음 1월 15일 해제 법회를 성대히 성만하였고,

다가오는 하계 결제와 지금의 원만성취를 즐거워 하면서 사람의 신체에 있는 병들은 의술로 치료와 약을 가지고 고칠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병들은 무었으로 고칠수 있으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모든 것을 이룰지어다.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해안로 1545번길 24호
▣ 전화 054)261-7777 / 팩스 054)261-6119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종총림 선(禪)불교 대학 선(禪)불교 승가대학

2013

2013(불기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까지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신촌 성룡사 : 02.336.2052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리 금성사 : 031.563.9364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구로 명화사 : 02.854.0196	안양 대안사 : 031.459.3666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산 월강사 : 031.419.5048				
성남 화성사 : 031.745.1482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일산 화성사 : 031.905.2912	군포 상락사 : 031.392.0924				

서울金剛佛教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한반도 평화위해 불자들 한마음 모으자"

정전60주년 학술세미나서 한 목소리

오강남 "마음까지 내적 비무장"
김용현 "북핵 해결 상호 신뢰 중요"
박경준 "불자들 실천 필요한 때"
유승무 "불교가 남북관계 실마리"


오강남 교수


김용현 교수


박경준 교수


유승무 교수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평화론과 평화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정전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사회 하에 2부 세미나가 진행됐다.

달라이라마의 '내적 비무장' 수용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명예교수는 세미나에서 '불교 및 이웃종교의 평화론과 통일의 길'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위해 달라이라마가 강조한 '내적 비무장'을 한반도에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동서양 종교의 평화관을 살펴본 오강남 교수는 "세계사와 종교사를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와 안녕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실제적으로는 전쟁과 분쟁을 촉발시키거나 심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진정한 평화 구현을 위해 달라이라마가 강조한 '내적 비무장'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교수는 "달라이라마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외적 비무장'도 필요하지만 '내적 비무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서로 연결되고 의존된 연기법에 따르면 스스로의 내적 비무장이 펼쳐져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했다.

북핵 시국은 평화 형성 출발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북한 3차 핵실험 국면'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핵 등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반도는 정전 상황으로 북한의 핵보유는 내부 결속과 더불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 확보로 체제 유지와 북미 ·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필수요소"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날 남한의 핵보유, 북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대응방안을 모두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 대응은 모두 수도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을 담보로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을 통해 남북간 대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가 불안한 휴전상태와 군사대결을 종식시킬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분단 한반도에서 상호간 가해지는 군사적 불신과 위협을 제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사상, 남북관계 대립 완화 시켜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의 평화론과 남북관계' 발표에서 평화에 대한 불교 사상을 살펴보고 통일과 평화 구축의 기원을 넘어 불자들이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는 자유와 평화의 이념을 똑같이 중시한다"며 "자유에 기초하면서도 이타적 자비의 실천을 통해 평등으로 나아가려는 불교는 오늘날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불교인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발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 평화통일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통일운동 등을 전개하는 불교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단체들과 서로 협력할 때 불교정신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도 '불교평화운동의 합심주의적 특성과 그 실천적 함의' 발표를 통해 "한국불교가 생명과 평화 등 근원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와 틱낫한스님의 불교평화운동 사례를 살펴본 유 교수는 "종교는 국가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대립 사이에서 불교가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와 주제발표에 이어 이창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기획위원과 이도흠 한양대 교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 대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의 사지' 2012년 보고서 나와

불교문화재硏, 대구 · 경북 지역


2012 한국의 사지 대구 · 경북 지역편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2012년 사지 학술조사사업 결과를 모은 한국의 사지 현황보사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에는 대구 ·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의 사지(寺址)'는 지난해에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대구 경북 지역의 폐사지를 대상으로 사역(寺域) 확인, 식생(植生), 유구 · 유물 수습, GPS(위성위치 추적시스템) 좌표 기록 등 사지(寺址) 발자취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번에 조사된 사지는 총 694개소로 현장조사결과 44개소가 신규 발견됐다. 특히, 사지(寺址)의 운영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기와 편에 대해서는 3차원 스캔 작업을 통해 그 이미지를 탁본처리 후 수록하였고, 중요 문화재가 남아 있는 사지(寺址)는 현재의 주변 환경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항공촬영을 하여 보고서에 담았다.

옛 문헌과 각종 연구자료 등의 성과물을 반영해 흩어져 있는 사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한 「한국의 사지(寺址)」는 앞으로 사지(寺址) 보존 · 관리방안 마련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사지(寺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발굴기관, 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도 게시해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사지 학술조사사업은 2015년까지 진행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총 15명으로 3개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 서울 · 인천 · 경기, 2011년 광주 · 부산 · 제주 · 전남, 2012년 대구 · 경북 지역에 이어 2013년에는 울산 · 경남 · 전북 ·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 사찰에서 조사사업이 실시된다. 특히 2013년에는 비지정소재문화재가 있는 사지, 훼손 우려가 있는 사지가 우선적으로 조사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한문강좌 개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3월 8일까지 불교한문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4일로 6월 21일까지 저녁 6시 30분부터 수업이 진행된다. 강좌는 월요일 유마경(신원 스님), 화요일 초서(양진석), 수요일 도서(박해당) · 천태사교의(한명숙), 목요일 고문진보(이상현), 금요일 논어 대학(공근식) · 맹자 중용(최병준) 등이다. 1강좌 당 수강료는 20만원. 동국대 재학생, 교직원은 30% 할인된다. (02)6713-5163

노덕현 기자

불광硏, 제2회 전법학술상 공모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4월 30일까지 제2회 전법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전법학술상은 광덕 스님의 전법행을 계승해 전법(傳法)과 교화(敎化)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 전법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기 위한 상이다.

2012년 제정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법학술상 논문 공모 주제는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 연구 분석 △전법교화의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전법교화의 현대적 방법론 제시 △전법교화의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법론 분석이다.

4월 3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은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국내외 학자 외에도 각종 불교기관 종사자들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발표논문 가운데 수상하지 않은 논문도 접수가능하다. 접수된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바라밀상 1편과 전법상 2편, 보현상 1편을 선정한다. 당선 논문에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학술연찬회 발표 등의 특전도 주어진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전법은 불법을 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전법상은 불교학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교계 담론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해인사 지장시왕도 등 4건 보물 지정 예고


해인사 지장시왕도

해인사 지장시왕도 등 불교문화재 4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2월 28일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등 유물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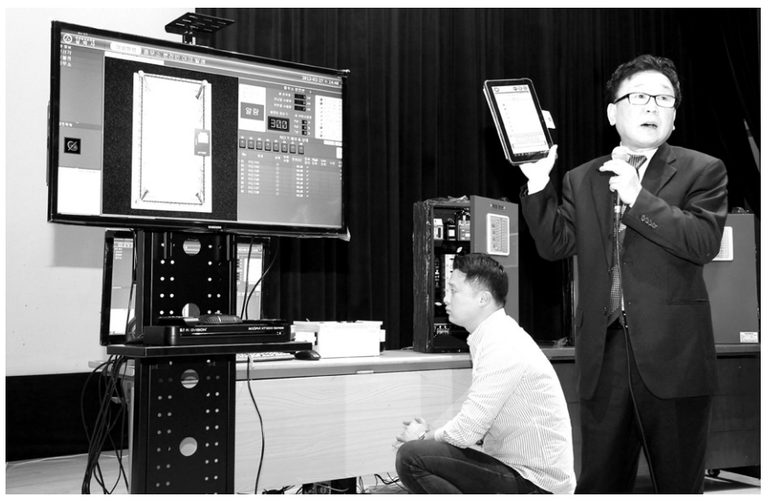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는 1739년(영조 15)에 관음전 불화로 조성됐다. 18세기 전반 경상도 지역 불화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명부전 불화 중 지장보살도, 시왕도와 사자도가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작품으로 각 불화마다 제작시기와 봉안처 등을 기록한 화기(畵記)가 남아 있어 가치가 더 높다.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삼존상과 함께 복장 후령통, 조성발원문 등을 조성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발원문을 통해 1647년(인조 25)의 정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봉안사찰, 조성주체,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5〉, 〈금강반야바라밀경〉 등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된 판본들로 완결성과 희귀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노덕현 기자



"인증업체 통한 방재시설 설치 필요"

조계종 문화부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대상 사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박희승 문화부 차장은 "종단은 장비의 표준화와 관제 시스템 통일화를 통해 통합 관제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종단 인증업체를 통한 시설 구축이 이뤄져야 일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종단 인증업체인 새턴정보통신과 파슨텍의 최첨단 지능형 통합 장재 예측시스템과 전기예측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도 함께 진행됐다.

2013년 대상 사찰은 총 123곳으로 이 가운데 종단 소속 사찰은 101곳으로 2012년에 비해 19곳이 늘어났다. 예산도 지난해 250억원에서 25억원 늘어난 275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문화부는 종단 인증업체를 통한 방재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화제의 신간
새로운 천년의 터

천년의 풍수역사를 정리한다.



이 책은 현재 모호한 풍수지리 정의에 일대 혁명적인 검증과 실증으로 풍수의 본질적 실체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파헤친 살아있는 글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대사를 열거 한다.

우리의 풍수역사는 천백년전 통일신라말기 도선국사를 시조로 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때가 즉 풍수 1세대이다. 도선국사는 그가 생전에 지은 저서들을 제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지리산 청학동에 숨겨놓고 후대에 그곳을 찾아내는 사람한테 그 법통을 잇게 하는 절묘하고 신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500년 후 이조초기 무학대사가 청학동을 찾아들어가 그 법통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 놓았다. 풍수 2세대인 것이다. 그 후로 청학동의 실체를 알아냈다.**

모성학지음 / 신국판 / 532쪽 / 정가 23,000원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원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7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백련결사터 강진 용혈암 발굴조사 시급

강진군, 용혈암지 조사 결과 청자 불상 조각 다량 출토

백련결사의 역사적 무대이었던 전남 강진 용혈암지에서 다량의 청자 불상편이 출토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2월 25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덕룡산에 위치한 전남도 향토문화유산 제47호인 용혈암지에서 지난 2월 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자 불상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를 실시한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조사단장 한성욱)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 2동과 석열 3기, 용도미상의 단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건물지의 경우 조선시대 평기와와 도자기가 중심을 이루며, 고려청자는 소량 출토되었으며, 용혈 내부에서는 청자불상편이 다량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청자 불상은 이전에도 많은 수량이 출토됐으나 정식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된 예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청자불상의 경우,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혈 내부의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청자불상이 발굴조사를 통해 다량으로 확인된 사례는 용혈암이 최초로 그 학술적 의미가 매우 높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지 2동과 석열 2기 등이 확인됐으며, 건물지 1동과 석열 2기는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청자불상의 확인은 용혈암이 종교적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유물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으며, 고품격 고려청자의 대표적 생산지인 강진지역의 청자 소비형태 등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청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발굴소견을 통해 "이번 조사는 축대 내부를 중심으로 한 시굴조사로 그 동안 문헌으로만 일부 알려져 왔던 용혈암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굴조사의 한계로 전체적인 건물의 규모와 배치는 물론 구전으로 내려오는 탑지(塔址)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광산 개발로 인한 채석으로 축대의 일부가 붕괴되는 등 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높고, 많은 수량의 청자불상이 확인된 용혈 내부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안전과 도굴 등의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학술조사 결과 최초 청자불상 출토
고려청자 생산 연구의 귀중한 자료
용혈암은 백련 8국사 중 4명 주석
방치할 경우 도굴 등 우려 있어

강진 백련사의 산내 암자였던 용혈암지는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245년 4월에 원묘국사 요세 스님이 주석했다는 기록이 있어 1245년 이전에는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혈암의 본사인 백련사는 고려시대의 불교 민중운동인 백련결사를 주도 했던 곳이며, 8국사를 배출한 고려의 대표적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강진 용혈암지에서 출토된 청자 불상 머리부분

용혈암지는 백련사가 배출한 8명의 국사 가운데 제1세 원묘국사 요세(1163~1245년)와 제2세 정명국사 천인(1205~1248년), 제4세 진정국사 천책(1206~1294년), 제7세 진감국사 무외가 주석하면서 고려 후기 종교 민중운동인 백련결사를 주도했던 역사적인 유적이다.

용혈암은 동문선(東文選), 만덕사지(萬德寺志) 등 관련 역사기록에 따르면 13세기까지는 운영됐으나 조선 전기에 폐사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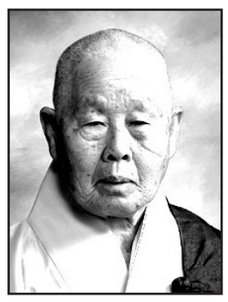
그러나 19세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된 후 매년 용혈에 놀러갔다는 기록도 있어 폐사된 이후에도 식자들의 인식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혈암지는 현재 터만 남아 있으며 높이 4~5m 되는 높은 축대에 동서 20m, 서북 17m의 약 330㎡에 달하는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뒤편으로 길이 15m, 높이 2~2.5m의 동굴인 일명 '용혈(龍穴)'이 위치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문종 종정 효광당 혜일 스님 입적

세수 94세 · 법랍 79세 28일 전주 정혜사서 영결식



대한불교보문종 제5대 종정 효광당 혜일 스님이 2월 26일 오전 1시 전주 정혜사에서 세수 94세, 법랍 79세로 입적했다.

1919년 전북 완주의 불심이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934년 15세의 나이로 명주 스님을 은사로 전주 정혜사에서 출가했으며, 같은해 매곡 스님을 계사로 정혜사에서 사미니계를 받았고, 1941년 금산사에서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다.

이후 1964년 정혜사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완산선원 선원장과 보문종 7,8,9,10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05년 종정에 추대됐다.

스님은 1990년 보문종 제7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제8~10대까지 연임하면서 보문종의 행정과 교학, 수행에 대한 체계를 갖추게 했다. 이후 지난 2005년부터 보문종 제5대 종정에 부임해 종단의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받으며 후학 양성과 보문종이 비구니 종단으로서 위상을 세우는 토대를 다졌다. 혜일 스님의 영결식은 2월 28일 오전 10시 전주 정혜사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열려



불교와 지역의 토속신앙이 결합된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2월 23일 전북 부안군 석포리 입암마을에서 열렸다.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결합에 의한 복합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수령 1천년과 700년으로 추정되는 내소사 경내의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과 입암마을의 날당산(할아버지 당산) 느티나무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그동안 사찰의 주도 하에 전승돼 왔다.

내소사 주지 진학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주변 5개 마을주민 800여명은 스님들의 독경, 범패의식에 이어 당산굿, 길굿, 샘굿, 성주굿, 천룡굿, 용줄감기를 함께 하며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다.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은 "사찰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당산제를 지낸 유례는 찾아보기 힘든 귀한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지역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내소사와 당산제 보존위원회, 지역주민과 함께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각 분야 리더양성 강좌 마련

빛고을 불교리더스클럽 4월 3일부터 도법 스님 등 강사 13명

광주지역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리더스클럽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불광출판사와 공동으로 '제2기 빛고을 불광MY리더스클럽' 강좌를 개최한다.

2010년에 개최돼 광주불교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불교리더스클럽은 '좋은 벗들과 떠나는 행복한 구법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개강을 하여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총 13분의 강사와 다양한 주제로 만난다.

강연에 참여한 강사도 불교계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로 꾸몄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서는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은 1990년부터 불교결사체인 선우도량을 만들고 지리산 실상사에서 귀농학교, 대안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이끄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강좌에는 '삶을 위한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월 3일 첫 강의를 연다.

△제2강은 4월 10일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 참여한 불광교육원 전임강사인 목경찬 박사의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진행된다. △제3강은 4월 17일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지난 20여 년간 심리학과 명상의 접목을 시도한 김정호 교수의 '마음챙김으로 스트레스와 친구 맺기'가 진행된다.

△제4강은 4월 24일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불교의 수행과 공부를 통해 경험하고 터득한 보편적 지혜를 정신 치료에 응용하고 있는 전현수 박사의 '생각버리기 연습'이 △제5강은 5월 1일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 원장으로 불교 심리학과 상담, 자아초월 심리 치료관련 강의와 워크숍 및 집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서광 스님의 '치유하는 불교 읽기' △제6강 5월 8일 동국대 교양교육원 강의 전담 교수로 활동중인 자현 스님의 '상징으로 본 사찰의 의미' △제7강은 5월 15일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동국대 겸임교수로 강연을 하고 있는 유근자 교수의 '불교미술의 상징과 문양' △제8강은 5월 22일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과 불교학 연구회 상임이사인 김재성 교수의 '초기불교에 보이는 재가자의 이상적인 삶' △제9강은 5월 29일 前 송광사 주지인 현봉 스님의 '대승불교' △제10강은 6월 5일 조계종 고시위원장과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인 지안 스님 △제11강은 6월 12일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과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로 활동중인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제12강은 6월 19일 조계종 교수아사리, 동국대학교 명상상담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명법 스님의 '언어습관 속에 숨어 있는 자아 만나기' △제13강은 6월 26일 고려대 철학과 교수로 우리는선우 상임대표와 철학연구편집장을 맡고 있는 조성택 교수의 '우리 시대에 불교관' 등이 진행된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섭 사무처장은 "이번 불교리더스클럽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전문강좌를 개최해, 지역 재가불자 리더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목적으로 한다"며, "향후 수료 후에도 동문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와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역불교의 다양한 강좌개최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좌는 1시간 30분이 진행되며, 30분간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무각사 이경자 입사 작품전 개최

조선시대 마지막 입사장(入絲匠)의 전통을 잇는 작품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금속공예가 이경자 씨는 3월 1일~31일까지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에서 '항하사(恒河沙)에서 별을 보다'라는 주제로 입사 작품전을 개최한다.

무형문화재 입사장인 이경자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별(부처가 깨달은 새벽 별)을 쇠(鐵)와 금·은실로 표현한다.

입사란 도자기의 상감기법처럼 쇠의 표면에 금·은·동 같은 재료를 박아 넣는 기법으로, 이번 전시회에는 쇠의 표면에 무수한 두드림에 의해 홈을 만들고, 그곳에 금실이나 은실을 메워 거듭된 반복으로 원하는 문양이나 형태를 만든 작품이 전시된다.

광주의 첫 개인전을 갖는 이경자 씨는 소감을 통해 "출가수행자 싯타르타가 좌선삼매에 들어 새벽 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듯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뜬 별을 바라보며 생명 가치의 공존을 바라는 마음"이라며 "마음속에 삶 전체를 빛나게 해 줄 눈부신 별 하나를 걸어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금속공예가 이경자는 1977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무형문화재 19호 입사장 보유자로 1984년부터 전국 12개 박물관의 은입사 유물 200여 점을 재현하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우울증·암, 명상으로 치유한다

해운대 시선원, MBSR 치유명상수련 개설


부산 해운대 시선원에서 수련생들이 K-MBSR 수련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 수련 가미한 K-MBSR 도입
명상시 감마파 발생, 만성병 예방

현대인들의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 치유하는 과학적 프로그램인 K-MBSR 프로그램이 해운대 시선원에서 부산 최초로 선보인다.

해운대 시선원(원장 우현법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수련과정은 3월 16일부터 8주 과정으로 한국명상치유학회장을 역임한 영남대 심리학과 장현갑 교수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시선원 원장 우현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르침이다. 수행역시 어렵거나 막막하지 않고 생활 속에 이로움이 확인되고 이해되는 좋은 방편이어야 한다"며 "한국불교의 전통수련법에 과학적 옷을 입혀서 보다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의 하나가 MBSR 수련이다. 많은 이들이 보다 쉽고 과학적인 불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수련개설 취지를 전했다.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은 미국의 메사추세츠대학 의과대학의 존 카밧진(John Kabat-Zinn) 교수가 20년 전 명상과 요가 등 동양 전통의 수행법을 현대인에게 맞도록 수정하고 보완한 프로그램이다. MBSR은 관계증진, 섭식문제, 중독재발방지 등 다양한 행동의학적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치료프로그램들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 심신통합적 치료프로그램이다.

K-MBSR은 'Korea-MBSR'이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장현갑 교수가 중심이 돼 8년 여의 개발과정을 통해 한국의 수련 전통을 가미한 한국형 MBSR이다. 카톨릭의대 성모병원과 암 환자를 위한 효과 연구 등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의료적 절차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치료'라는 조건을 충족시켜가고 있다.

장현갑 교수는 "꾸준한 명상으로 치매와 우울증, 감기, 암까지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발생하는 감마(γ)파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만성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시선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K-MBSR 수련과정은 부산에서 최초로 개설되는 과정으로 전문가 과정을 위한 기초교육 및 일반인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한국명상치유학회가 인정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고 본부와 지회행사에 일정기간 참여하면 명상치유 전문가의 자격이 수여된다.

국제도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시선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를 개설 운영하는 등 외국인 포교에도 앞장서는 전법도량이다. 원장 우현법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일념으로 전법도생의 한 길을 걷고 있다. 해운대 시선원 K-MBSR 기초교육과정은 3월 11일까지 접수한다. 051-746-7611

박경수 부산지사장

고운사, 사찰음식 대중화 나선다

사찰음식체험장 설립추진

고운사(주지 호성)가 경북도와 의성군으로부터 1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선다.

고운사는 2월 28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찰음식 연구개발 및 표준·대중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운사는 사찰에만 전해 내려온 40여 가지 반찬류를 표준화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조리법과 음식의 효능 등을 담은 요리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북 의성과 영천 등지에서만 전해지는 전통 장류인 시금장(보리 속겨로 만든 전통 장류) 보급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고운사는 사찰 방문객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사찰음식체험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고운사 총무국장 도륜 스님은 "전통사찰음식 대중화 사업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연밥을 비롯한 일상 사찰음식.

은해사 새주지에 돈관 스님 선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해사 신임주지후보에 돈관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의원으로는 장적· 덕조 스님이 확정됐다.

은해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은해사 경내 도선당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주지후보로 돈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돈관 스님은 "문중화합과 교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돈관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1978년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3월 15일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 선문 스님(좌)이 돈관 스님(우)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운문사, 장학금 2400만원 전달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는 2월 26일 경내에서 제11회 법계장학금수여식을 봉행했다.

운문사는 수여식에서 중앙승가대학을 수석 졸업한 선효 스님 등 스님 6명과 대구대학교 환경공학과 방종성씨 등 불자 학생 2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명성 스님(가운데)이 학인 스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보현사 신협, 정기총회 열어

대구의 대표적 불교전문금융기관인 보현사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성)이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보현사 신협은 2월 26일 대구 향교 대강당에서 이사장인 지성 스님을 비롯한 이사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지성 스님은 "올해도 임직원, 조합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단결해 원만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전통 사찰 경관 지키기

2005년의 낙산사 화재는 우리나라 사찰의 화재사에 길이 기록될 대참사였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사찰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다.

낙산사가 불타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사찰이 불에 탄 기록은 한 두건이 아니다. 그만큼 사찰은 화재에 취약하다. 목조건물이 많은데다 촛불이나 향불이 화재의 원인이 되며, 재를 지내고 난 뒤 여러 가지 것들을 태우면서 불씨가 날리면 화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찰주변은 불이 잘 옮겨 붙는 소나무림이다.

낙산사 화재 이후 산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스님들과 종무원들은 신도들이 켜놓은 촛불이나 향불을 끄느라 분주했고, 재를 지내고 난 다음 마당에서 이것저것 태우던 것을 소대를 만들어 화재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 가지고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문화재청에서는 급기야 사찰에 소화전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큰 사찰에서는 아예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보내 빨간색 소방차가 절 마당에 비상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사찰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문제였다.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철제함이 사찰의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몇몇 사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소화전함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판단, 나무상자를 주문제작해 철제 소화전함과 교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시설물이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사찰의 경관과 조화될 리가 없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소화전은 물론 전기분전반 같은 시설들을 지하에 맨홀을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 물론 비가 올 때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동을 하는데 불편하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가시되지 않기 때문에 경관적으로는 그럴 수없이 좋은 방식이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비가와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맨홀도 등장했다.

사찰은 신앙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이면서 동시에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예산을 쓴다면 그러한 좋지 않은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본래부터 의도한 경관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철제 소화전함은 전통사찰의 경관과 부조화되는 요소이다. 전라북도 ㅅ사찰



사리탑 앞에 서 보아야 법의 인연을 알게 된다

적멸보궁 1-양산 통도사



통도사 적멸보궁 사리탑. 신라 646년 당나라로 유학갔던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100과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통도사를 열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 사찰 중 불보종찰(佛寶宗刹)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주변의 8개 왕국의 왕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가고자 구시나가라를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사리를 8등분하기로 하였는데, 제천의 천왕들과 용궁의 용왕들도 찾아와 사리를 원했다. 결국 부처님의 사리는 하늘과 사람과 용궁으로 골고루 돌아갔다. 이때 여덟 나라에는 저마다 8만 4천 과의 사리가 돌아갔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 사리를 봉안하고 칠보탑을 세웠다. 진신 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불상이 조성되는 시기까지 예배의 대상이었으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에도 그 의미와 가치가 이어졌다. 사찰에는 '적멸보궁'이라는 전각이 있는데, 부처님 사리를 모신 법당이다.

신라 선덕여왕 재위 646년 왕명으로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 율사는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 사리 100과와 가사 1벌을 받아 귀국한다. 자장 율사는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절을 세웠다. 통도사다. 황룡사와 태화사에도 사리를 봉안했다. 적멸보궁이 있는 통도사는 우리나라 삼보(三寶 · 불보, 법보, 승보) 사찰 중 불보종찰(佛寶宗刹)이다.

통도사에 가면

대찰의 사격은 도량으로 드는 오솔길부터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장송들이 길을 장엄하고 있다. 걷는 길과 찻길 두 갈래 길이다. 매표소에서부터 약 500~600m 거리다. 걷는 길의 소나무들은 걸어야 볼 수 있고, 찻길의 소나무들은 늦추는 만큼만 볼 수 있다. 겨울 끝에 선 도량의 풍경은 아직 왜소하다. 하지만 색칠을 기다리는 밑그림처럼 도량의 풍경은 분명한 윤곽을 마쳤다. 봄이 턱 밑에 있었다. 겨울에 묶였던 물이 계곡의 수위를 높여가고, 가지마다 자리를 잡은 꽃들의 배후는 발화 직전이다. 곧 풍경의 빈곳은 화려한 봄빛으로 채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총림문을 들어서면 부도전이 보인다. 촘촘하게 자리 잡은 조사들의 내력이 다시 한 번 대찰의 사격을 일러준다.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면 범종루와 극락전이 보인다. 세월을 버틴 건지 세월이 버틴 건지, 빛깔이 빛깔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빛깔이 다시 무너뜨린 빛깔만이 남은 극락전을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다.

극락전을 지나 불이문을 지나면 대웅전이 눈에 들어온다. 대웅전은 '적멸보궁'이기도하고 '금강계단'이기도 하고 '대방광전'이기도 하다. 전각의 면마다 편액이 걸린 것이 여느 법당과 다르다. 그리고 법당 안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기 때문이다. 대웅전 오른 쪽으로 돌면 사리탑이 나온다. 아득한 그 옛날, 사람과 하늘과 용궁이 나누어 가졌던 부처님 사리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전하고 또 전하여서 이곳까지 모신 부처님 사리다. 자장 스님의 노고와 또 그 이전 누군가의 노고까지, 사리탑 앞에 서면 편하기 그지없는 '나'를 깨닫는다. 통도사에 가면 사리탑 앞에 서보아야 한다.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두 손을 모으게 한다.

통도사 가람의 특징



언양 자수정동굴나라 내 송운사 미타 대석굴



통도사 입구에 위치한 통도환타지아

한국의 사찰은 각기 나름대로 고유한 가람배치를 통하여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삼보사찰의 경우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통도사의 전각 배치는 금강계단을 정점으로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는 지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데, 세 영역으로 나뉘어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 영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한국건축의 공간 가운데 유일한 구조로 통도사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한국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건물군이 가지는 특징을 보면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동서축선이 각 세 개 노전(爐殿) 영역의 중심선인 남북축선과 직교하면서 통합하는 구조이다.

통도사는

해발 1050m의 영축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통도사는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큰 뜻을 함축하고 있다. 현재 통도사는 영축총림으로 지정된 이후 선원, 율원, 강원을 두어 한국 불교 최고의 종합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개산대재, 화엄산림법회,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포교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적멸보궁이란

부처님이 성도 후 최초의 적멸도량회를 열었던 마가다국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금강좌에서 비롯된다. 화엄경에 따르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처음 7일 동안 시방세계 불보살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기 위한 해인삼매 선정에 들었다. 이때 부처님 주위에 많은 보살들이 모여 부처님의 덕을 칭송했고, 부처님은 법신인 비로자나불과 한 몸이 되었다. 적멸보궁은 본래 두두룩한 언덕 모양의 계단(戒壇)을 쌓고 불사리를 봉안함으로써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서 적멸의 법을 법계에 설하고 있음을 상징하던 곳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의 적멸보궁은 본래 진신 사리의 예배 장소였다. 처음에는 사리를 모신 계단을 향해 마당에서 예배하던 곳이었는데 후에 전각을 짓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적멸보궁이 있는데 통도사와 강원도 오대산 중대의 월정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다.

양산 통도사=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주변보기

〈산내암자〉

함께 돌아보면 좋을 암자를 소개한다.

▲**자장암**(055-382-7081)-금와공으로 유명하다.

▲**극락암**(055-382-7083)-경봉 스님 주석처.

〈사찰〉

▲**내원사(말사)** 하북면 용인리 055-374-6466

▲**홍룡사(홍룡폭포)** 상북면 대석리 055-375-4177

〈가볼 만한 곳〉

• **통도환타지아** / 하북면 순지리 055-379-7000
통도사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테마공원. 30여 종의 놀이공원과 수영장, 호수 숙박(콘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족여행지로 좋다.

• **언양 자수정동굴나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052-254-1515
체험학습과, 놀이동산, 동굴탐험, 레져시설을 갖춘 자연 속 테마공원. 길이 2.5km의 자연동굴로, 6500만년 전 화강암으로 형성된 태고의 신비가 이어지는 자수정동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연 그대로의 자수정을 볼 수 있다.

• **송운사 미타대석굴**(052-264-0077)
자수정동굴나라 내 사찰로 동굴 안에 대웅전 등 법당이 조성되어 있다.

〈숙박〉

-통도환타지아 콘도(055-379-7000)

-언양에덴벨리 리조트(055-392-2114)

〈식당〉

-토박이 숯불촌(055-372-1996)

-부산식당(055-382-6426)

-통도식당(055-381-4445)

통도사 운영 주요 프로그램

■**통도사 템플스테이**
사물관람 및 스님의 일상체험, 수행, 명상 및 요가, 솔밭보행로 걷기, 사찰 둘러보기, 다도체험, 인경체험, 계곡 물놀이, 걷기명상 등이 있고 4, 5월 중에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이 신설 운영될 예정이다.

■**영축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선재 스님과 함께 하는 자연건강 사찰음식 집중연수과정 / 3월8일~10일 / 50명 선착순 모집

▲명상과 힐링, 세상과의 소통 / 3월 6일 개강(11주 과정) / 호흡수행법 및 5분 명상법, 24시간 수행법

▲마인드케어 지도사 과정 / 2기- 4월 5일 개강 알아차림(SATI)명상을 기반으로 한 마음건강 관리 및 자격취득 과정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캠프 / 2월 24일~28일 인터넷, 스마트폰, TV 등 미디어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초, 중, 고 청소년 누구나 선착순 50명

■**통도사불교대학**
2013년도 신입생 모집 / 2월 한 달
2013년도 입학식 3월 4일 오후 1시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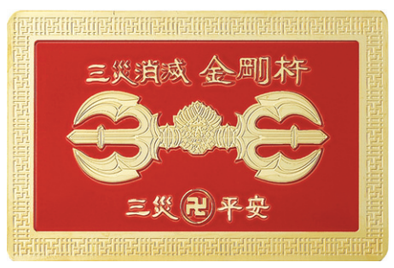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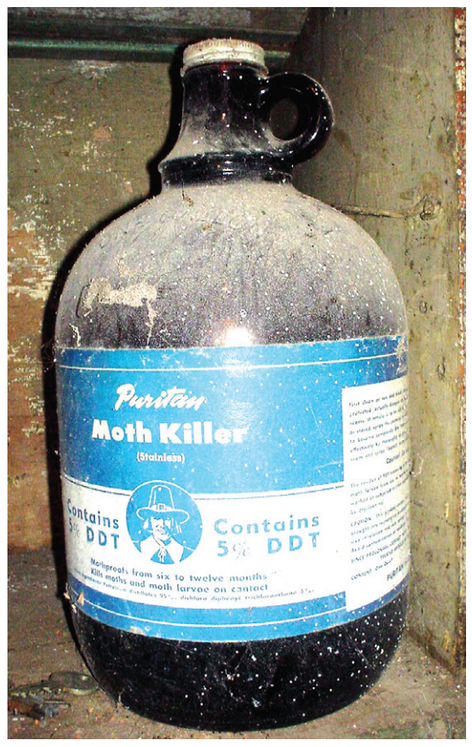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생태사회와 불교
환경문제와 과학의 역할

과학기술로는 환경 위기 해결 안돼





영국의 대표적 킹스노스 석탄 발전소〈사진 왼쪽〉와 강력한 살충제로 잘 알려진 DDT〈사진 오른쪽〉. 화석원료를 사용하면서 이뤄진 산업화와 기술발전, 그리고 과학지상주의는 급속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다.

神이라는 미망을 물리친 과학

과학자 뉴턴을 토대로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계몽주의 사상의 출현은 인류역사의 전사와 후사를 나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세계의 중심은 '신'이었다. 따라서 모든 과학은 신학과 신성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그 주장을 한 코페니르쿠스는 종교의 이름으로 화형을 당해야했고,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서 화형 직전까지 가야 했다. 그러던 것이 뉴턴과 데카르트 이후부터 달라진 것이다. 과학을 토대로 한 이성, 합리주의가 자연과 우주에서 신의 세계를 몰아낸 것이다. 그 이전에 '신'의 존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이었고, 과학이 신학 밑에서 검증 받아야할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은 반대로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신이 과학 밑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과학적'이라는 말은 곧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다 이 과학은 기술과 결합해 드디어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엄청난 기술개발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었다. 또한 왕이 중심이던 절대왕조가 붕괴되고 만민이 평등하게 주인인 공화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종교와 신학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과학은 날개 돋힌듯 발전하였고 더욱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서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제 달과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올렸고, 전자산업과 IT의 발전은 해마다 거의 2~3배이상 갱신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46억년의 지구역사, 200만년 인류역사로 보면 눈깜짝할 사이 밖에 안되는 불과 500년만의 인류의 위업이었다.

이제 과학의 위치는 이전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 과학이 모든 진리의 검증도구가 된 것이다. 과학적이지 않으면 미신이고 비진리라고 생각한다. 과학주의의 절대성, 과학이 종교가 된 것이다. 기술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서 모든 문제와 위험과 위기는 결국 기술로 돌파할 것이라는 믿음과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심화되는 과학기술 의존성

과거에는 삽이나 괭이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던 것을, 오늘날에는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앞세운 기술로 그 개발의 속도와 규모는 수십배에서 수백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은 곧 자연을 개조하는 기술이 수십 수백배에 이른다는 말이다. 물론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는 순수한 것이지만, '기술'은 결국 자본과 정치,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기술발전이 문제지 과학발전은 선한 것으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무한 신뢰로 인해, 종국에는 우주의 진리를 다 밝혀내서 인간에게 유리하게 자연을 조작하겠다는 오만에 이르게 되었고,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자만까지 하게되었다. 그저 열심히 과학을 탐구하고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이 생산해 돈 벌고, 소비하며 살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결국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가장 표준이 되는 미국은, 지구온난화가 바로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부정하며 교토협약을 끝까지 가입하지 않았던 나라였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연과 자원이 유한함에도,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도 자원은 무한하다는 착각을 기반으로 과학적 추론을 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과거 300~400년동안 인류의 자원소비와 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알아내지 못했고, 인간의 산업행위가 앞으로 10~20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과학수준이다. 그 많은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말해온 핵발전소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를 접하고 나서야, 그들 주장이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기술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다. 인간이 버린 폐기물과 오염을 결국 과학기술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다.

과학은 진리의 최소한

과학은 이론적으로도 완결성이 있어야 하지만 실험적으로도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실험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된다면 그것은 과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인정받은 것만이 공식적으로 과학적 사실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직 평가되지 않은 더많은 실험과 이론들이 아직도 줄을 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다.

사고 실험을 해보자.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동의하는가? 만약 동의한다면 이 말은, 밝혀내지 않은 과학의 발전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다시한번 질문해 보자. 그렇다면 자연계에서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밝혀내지 않은 사실 중에 어느 영역이 많을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재 밝혀진 과학적 진리는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말한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우주의 총 진리를 100 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과학이 밝혀낸 것을 많이 잡아 10%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90%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니 거의 대부분을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과학은 자연 이치파악하는 순수한 것
기술은 자본·욕망의해 좌우되는 비순수
CFC, DDT, 원자력 등 환경위기 초래
과학기술 중요하지만 의존주의 극복돼야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과학은 현재수준서 진리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과학적 사실을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과학이 진리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비과학적 자세' 아닐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인간은 그 10%의 사실을 진리의 100%라고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아직도 모르는 90%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10%의 사실을 진리의 전체인양 생각하며, 자연과 인간에게 함부로 파괴하고 차별하고 학대해 왔던 것이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오만함, 그 교만이 오늘과 같은 위기를 초래했고, 위기의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회복하는 방법도 찾지 못하게 만든 원인인 것이다.

환경위기를 초래한 과학기술주의

냉장고의 냉매로 쓰는 프레온가스(CFC)는 자연계에 본래 없던 것으로, 1928년 발명되어 듀퐁사가 생산한 가스였다. 당시에는 이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 인류에게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물질임을 알게 되었다. DDT는 1874년에 합성되어 만들어진 뒤 강력한 살충효과와 제초효과가 증명되었다. 이로 인해 벌레와 병충해로부터 해방되어 급격한 농업혁명을 이끌었다. 그러나 실용화 이후 약 2~30여년이 지난 뒤 1960년들어 레이첼 카슨 여사가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이 화학물질에 대해 비극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DDT로 만든 농약과 살충제로 인해 수많은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체내에 중금속을 축적하게 되어 이를 잡아먹는 물고기, 또 그것을 먹는 새들의 몸에 농축되어 결국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결국 봄이와도 새가 울지 않게 되었다고 그녀의 저서 '침묵의 봄'은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대단히 많다. 대표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이다. 원전은 1) 값싸고, 2) 깨끗하고, 3) 안전하고 4) 무한에너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3~40년이 수명인 원자력발전소를 위해, 거기서 나온 방사능폐기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수백년이 지나야 할 정도이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한번 사고가 나면 기류를 따라 전세계가 피해를 입게 되고, 수백년동안 후손에게 까지 영향을 끼친다. 안전시설을 위해 비용이 훨씬 높아졌으며, 우라늄도 매장량이 불과 60여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무한에너지가 아니다.

생태위기 해결은 문명적 전환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해왔던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시켜줄 것이라고 정부와 기업측의 과학기술자들도 말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갈수록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환경학자들과 눈맑은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연 스스로의 정화능력, 수용능력, 복구능력을 넘어서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과학기술에 힘입어 더 많은 자원을 수탈하고,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고, 더 빠른 속도로 쓰레기와 오염을 뱉어내고 있다. 인간 소비의 부산물까지 과학기술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산소를 생산하여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의 산림이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복구해 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만종의 생물들과 그 유전자들은 수백만년간의 지구 진화의 자산이다. 그렇게 없어지는 생물들을 어떻게 복구한다는 말인가. DDT로 수질이 오염되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과 그것을 잡아먹는 다른 생물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생명을 복구해 낸단 말인가. 오존층파괴로 발생한 피부암 등 수많은 질병환자들을 어떻게 원상으로 복구하고,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살던 마을과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고향을 어떻게 기술로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글의 요점은 과학기술을 절대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반대로 과학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통해 오염과 파괴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한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만능주의, 과학기술의존주의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삶, 큰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으며, 빠른 것이 좋다는 인간의 잘못된 생활양식의 전환이 근본이 되고 그 토대위에 과학기술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위기는 바로 그러한 전환을 강제하는 메시지이다. 그러한 근본적 전환없이 과학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산업사회에서 구멍난 것을 때워 현 지속불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려 한다면, 피해발생의 시간을 늦추는 것일 뿐이며, 오히려 해결의 시점을 놓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여 결국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중요하지만 과학기술만이 능사라는 의존주의는 극복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발적 가난, 청빈한 삶을 통해 "작은 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생태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교와 미학

분노와 두려움의 미학

두려움은 한계를 넘어 새 길을 연다





여수 흥국사의 사천왕(사진 왼쪽)과 역대 배트맨 시리즈 중 최고로 평가 받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 나이트〉(사진 오른쪽). 험상궂은 얼굴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장 사천왕과 악을 퇴치하기 위해 스스로 두려움의 존재가 된 배트맨은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

문은 공간과 공간을 가르는 경계이다. 어느 세계에 살든, 가보지 않은 세계는 매력적이다. 문 안쪽의 사람은 문 바깥의 세계를 꿈꾸고, 문 바깥의 사람들은 문 안쪽의 세계가 궁금하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家門)을, 출가자들은 산문(山門)을 가지고 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문을 통과하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이르는 입구

출세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에 세 개의 문이 있다. 문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마음은 정화되고 의식은 맑아진다. 문이 없는 문, 일주문(一柱門)과 하늘의 문, 사천왕문을 거쳐, 성(聖)과 속(俗)의 세계를 둘로 나누면서도 하나로 잇는 불이문(不二門)을 통과하면 마침내 청정한 땅, 부처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적묵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지나가지 못한다. 하늘의 왕들이 눈을 부릅뜨고 손에는 칼을 들고 발로 사나운 악귀를 짓밟고 서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악한 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다. 바로 이들이 사천왕(四天王), 호세천왕(護世天王)이다. 그들은 욕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가장 낮은 하늘에 거주하면서 부처님을 지키고 불법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동쪽 하늘에 거주하는 지국천왕(持國天王)은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신이다. 서쪽 하늘에 거주하는 광목천왕(廣目天王)은 눈을 부릅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못 생기고 거친 그의 눈은 힐끗 보기만 해도 겁을 먹어 다시는 악한 짓을 못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 가장 겁나는 눈은 부릅뜬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이다.

남쪽 하늘에는 증장천왕(增長天王)이 살고 있다. 그는 모든 생명을 기르는 신이다. 북쪽 하늘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것을 듣는 신, 그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된 이후로, 그는 역할을 바꾸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신이 되었다.

불법의 수호자, 사천왕

원래 사천왕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 야차들이었다. 그저 완력과 신통력을 자랑하던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은 불법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설법이 행해지는 공간과 불법에 귀의한 사람들을 지키는 호법신장(護法神將), 불교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사천왕들이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선택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사실은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심리적인 힘이다. 찌푸린 미간과 튀어나온 눈, 이글거리는 눈빛, 크게 벌이거나 꽉 다문 커다란 입,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험악한 얼굴과 우락부락한 몸에 창과 칼을 들고 살짝 위협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방의 천왕이 도열해 있는 문은 삼엄하기 이를 데 없다. 광목천왕과 다문천왕은 매서운 눈빛으로 멀리까지 지켜보고 있고 지국천왕과 증장천왕은 위협하듯 눈을 부릅뜨고 서 있으니, 결계(結界)가 이루어져 청정한 부처님 세계는 그 어떤 삿된 것도 범접하지 못한다.

하지만 니체가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악마를 이기기 위해 악마성을 차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천왕은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악마적인 힘을 이용했을까? 표면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천왕을 악귀가 아닌 천상의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천왕과 배트맨의 공통점은

초능력을 발휘하여 악당을 해치우고 지구를 구하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천왕과 닮은 구석이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은 외계인인 경우도 있다. 가끔 사고를 통해 우연히 초능력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악신에서 선신으로 변하는 사천왕 이야기의 감동 같은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내가 아는 한, 배트맨도 B급 감성의 그저 그렇고 그런 슈퍼히어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배트맨 삼부작 시리즈에서 평범한 인간

험상궂은 얼굴의 사천왕
스스로 '僞惡' 된 배트맨
희생통한 이타적 존재 닮아

"佛法 사칭한 사이비들은
사천왕의 분노 두렵지 않을까"

이 어떻게 진짜 영웅이 되는가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히어로들과 달리, 주인공은 타고난 장사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그는 무술로 단련된 몸과 엄청난 재산으로 얻은 최첨단 과학기술 덕분에 슈퍼히어로가 되었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눈앞에 있는 악당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 우물에 떨어졌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었다.

"문제는 적이 아니야. 진짜 적은 네 안에 있어. 넌 너 자신을 두려워해."

그를 진짜 영웅으로 만든 것은 마음의 힘이다. 무의식 깊이 각인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식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진짜 슈퍼히어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고담시로 돌아온 뒤, 악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전략은 어린 시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박쥐인간, 배트맨이 되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법. 넌 적의 악몽이 되어야 해."

이제 자신을 두렵게 했던 힘이 적을 두렵게 하는 힘이 된다. 하지만 악한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두려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상징이 되고자 했다.

히스 레저의 조커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다크 나이트〉에서는 '선 그 자체를 위한 선'의 반대편에 있는 '악 그 자체를 위한 악'의 존재와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보여준다. 배트맨과 조커는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악의 상징이다.

배트맨 시리즈 완결편인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어둠의 감옥에 갇힌 주인공에게 탈출을 권하는 늙은 죄수의 입을 통해 다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의 역설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그 어떤 절박함이 있기 마련이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 때 희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려움은 한계를 넘어 길을 연다.

이미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에게 두려움은 고담시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으로부터 나온다. 탈출을 감행하며 그는 그 두려움과 맞선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인공의 두려움은 〈배트맨 비긴즈〉의 두려움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 그야말로 보디사트바의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위대함은 살인을 하지 않는다거나 법에 의한 징계를 한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고담 시민을 위해 완전히 헌신하기 전까지는 배트맨은 "아직"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는 전설적인 존재가 된다. 곧 그 전설은 사람들 마음에 위대한 존재의 상징으로 살아남아 세상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배트맨이 정말 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선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배트맨 시리즈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는 어떻게 평범한 인물이 전설적인 존재, 선의 상징이 되느냐가 아닐까?

배트맨은 현대판 사천왕 이야기

다시 사천왕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얼굴 표정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사천왕은 우리를 지켜주는 착한 신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천왕의 추하고 험상궂은 얼굴 표정은 분명 신적인 존재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의 신들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고귀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힘은 폭력이나 완력이 아니라 설득과 감동, 지혜와 자비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보다 강력한 힘과 신통력을 가졌지만 아직 감정과 형상을 떠나지 못한 욕계의 존재인 사천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인 분노와 두려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천왕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악당뿐이다. 마음이 청정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 불법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도 두려움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을 겁먹게 해서 제압하는 것은 사악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이지만, 사천왕은 적들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는 역발상의 비책을 썼던 것이다.

고귀한 자들도 분노한다. 위력을 과시하여 악한 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지만, 그들은 순수한 이타의 의지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을 보호하는 흑기사, 다크 나이트가 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다문천왕 역시 북쪽 어둠의 하늘의 왕이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 색이 칠해져 있다. 그러므로 위압적이고 폭력적 표정에도 불구하고 사천왕을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배트맨이 그랬던 것처럼 타인을 위한 완전한 헌신이 아니겠는가?

악으로부터 선을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심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점과, 완전한 이타적 희생을 통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은 사천왕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았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시리즈는 현대판 사천왕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요즘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면서 사천왕의 분노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 청정한 세계를 지키는 사천왕을 까탈이나 부리는 타부의 신으로 만들어 무지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문을 지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없는 자들이 문 앞에서 입장권을 팔고 있다. 그들에게 문은 더 이상 문이 아니다. 잡탕의 세계만 있을 뿐이다.

생각해보라. 배트맨이 선량한 시민을 위협한 적이 있던가?

그가 두려워 떨게 만들려고 했던 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 부패한 관료,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당, 이념에 빠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조커 같은 아나키스트들이다. 불법을 수호하고 불법에 귀의한 사람을 지키기로 서원한 사천왕은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오히려 그들이 분노하는 대상은 불법을 사칭하는 사이비들이 아니겠는가?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깨닫고 나면 지난 수행은 허망한 짓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9⟩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그 위에 다시 보탤 것이 없다.

성품은 늘거나 줄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다. 성품이 변화해서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성문 · 연각 · 벽지불도 된다. 모양이 있는 것도 되고, 모양이 없는 것도 된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일체처일체시에 끝없이 나투면서도, 나투되 나툰 바 없이 늘 여여부동한 본래면목을 잃지 않고 있다.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다만, 어리석은 곳에 빠져서 허망한 시간을 보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본래 마음자리는 둘이 될 수 없어서 늘 여여한 모습임을 믿어야 한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선악을 떠난 또 다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인 것을 알되, 허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쓴다면, 보다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깨닫고 난 뒤에 지난 오랜 세월의 수행을 돌이켜 보면,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래서 여래께서는, "내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서 실로 얻은 것이 없다.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셨다.

본래 성품자리는 얻었다 할 것이 없다. 다만 깨달음과 늘 더불어 살았는데, 허망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것이다. 늘 그 성품 자리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연등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지, 억겁의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다. 수기를 받으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연등부처님께 증명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들 사이에 수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일체 모든 중생들도 부처와 둘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를 이루는 것은 억겁의 세월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현애상(縣崖想)을 낸다면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보리(깨달음)라 한다."고 하셨다.

본래 성품자리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본래면목 자리를 등지고 살다가, 그 입장을 한 바퀴 전환해서 늘 함께 했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제대로 공부한 것인지 아닌지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인연 따라 믿음이 커져서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가르침을 돌이켜보니까 그 까닭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본원청정심은 중생과 부처세계, 산하대지, 모양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시방법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상(相)이 없다.

성품은 늘거나 줄지 않으나
인연따라 천차만별 모습
끊임없이 나투면서도
본래면목은 여여부동

본원청정심은
법계 평등하여 상이없고
항상 밝아 두루비춘다

'견문각지' 마음 삼으면
그것에 덮여 본체 못본다
'견문각지' 텅 비워 버리면
즉시 마음길이 끊어져
종횡자재 도량 아님이 없다

일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성품의 바다여서, 이 일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 그나마 안목이 바뀌어 듣는 힘을 지니게 된 배휴이기 때문에, 황벽스님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눈뜨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근본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입장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 본원청정심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여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見聞覺知]'으로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이어서 끝내는 정밀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의 근원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뚜렷이 밝고 두루 비추어 만물을 제대로 구별하는 마음 바탕이 바로 성품이다. 다만 견문각지 하는 것에 마음이 가려져서, 견문각지 하게 하는 그것을 놓치는 것이다. 아주 미묘한 것이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본인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고서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당장 무심하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견문각지만을 인지하며 행하고 움직이지만, 이 견문각지를 텅 비워 버리면 즉시 마음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무심하기만 하면 즉시 근본이 드러난다. 그런데 본래 마음자리는 등진 채, 견문각지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마음을 작용시키는 그 찰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날 때의 찰나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벽이 깨지면서 비로소 시절인연이 열리는 것이다. 텅 비워버린다는 것도, 따로 어떻게 비운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다. 공부의 맛을 좀 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쉽지 않다. 내버려둔다는 말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말이다. 공부할 때의 입장은 그렇다 쳐도, 공부한 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이런 말을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힘든 것이므로,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 "어떻게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할 때, "나도 몰라. 알아서 해!"라고 하면, 당장 무책임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다. 책임진 입장에서 바로 찔러서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다만 견문각지 하는 곳에서 본심을 인식할지라도,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다. 견문각지 하는 가운데, 견해를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그리하면 즉(卽)하지도 않고 여의지도[離]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종횡으로 자재하여 어느 곳이든지 도량(道場) 아님이 없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마음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으면 안 된다. 일체처일체시가 성품과 함께하는 청정도량이다. 늘 청정도량에 머물면서 방편을 세워야 한다. 있는 도량을 등지고 없는 도량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저지레하지 말아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⑲



실로 수보리여, 보살의 길에 나아간 자는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왈라교훈

1999년 8월 24일, 인도 델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침 일찍 우리 가족은 라즈가트(Raj Ghat)를 찾았다.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해서 화장한 곳인데, 그 후 공원으로 꾸며놓았다. 라즈가트를 둘러보고서, 다시 한번 더 간디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보라는 뜻인지 그 맞은편에 '간디 기념관'이 있었다.

라즈가트로 간디기념관으로 발품을 팔다보니, 어느덧 배가 고파온다. 식당을 찾아가기로 하고, 지나가는 사이클릭샤(자전거가 끄는 인력거)를 잡아 탔다. 우리 가족 3인을 태우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페달을 밟는 릭샤왈라(사일클 릭샤의 운전사)를 보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가 누구인가. 인정 많은 한국인 아닌가. "팁으로 2루피 더 얹어주자"고 합의했다. 원래 10루피니까, 12루피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마음을 내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해 돈을 치루려 하니까, 그는 돈을 안 받는다. "30루피"라는 것이다. 아까 "10루피"라 한 것은, "1사람에 10루피"라고 하는 것이었다.

저 밑에서 팔뚝만한 불기둥이 치솟는다. 인도로 갔다 온 여행자들이나 여행 안내서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많은 체험담이 있다. 그리고 대처법까지. "돈을 그냥 릭샤 위에 올려놓고 가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 정말 진실로 30루피를 받는 것이 맞았다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그 릭샤왈라는 우리를 따라왔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30루피를 받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역시 "안 되면 말고" 식이었던가.

식당에 도착해서 땀을 닦고 나니, '아차' 싶다. 12루피를 놓고 왔어야 했던 것이다. 12루피를 주자고 했으면서도, 그가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에 '괘씸죄'를 걸어서 그만 10루피만 주고 말았던 것이다.

만약 내가 12루피를 주고 내렸더라면, 나는 그러한 '대상에 머물지 않고서 보시를 행하는' 보살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날의 일을 '왈라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의미에서 '왈라교훈'이라 부른다.

⟨금강경⟩의 주제, 보시

⟨금강경⟩은 사실 주제 파악이 쉽지 않은 경전이다.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경전의 내용을 분류하면서 읽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읽는 ⟨금강경⟩은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법회를 열게 된 인연) 등으로 이름이 주어져 있다. 32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국 양(梁)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昭明)태자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널리 유통되기는 하지만,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제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대승의 핵심)과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걸림없는 행은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을 나눈 것이다.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딱 잘라놓은 것이다. 그 부분은 함께 생각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제3분과 제4분 부분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 부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는 것이 좋을까? 대승정종분이라 해도 좋고, 묘행무주분이라 해도 좋을 것같다. 형식적으로는 대승정종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묘행무주분일 터이다. 즉 대승의 핵심은 바로 묘행무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금강경⟩의 주제는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보다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묘행"이 앞서고, 그 묘행을 근거지우며 가능케 하는 것을 "무주"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 불교논리학에서 볼 때, 묘행은 주제(宗, 제시)이고 무주는 이유(因, 근거)이다. 정작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먼저 '종'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금강경⟩의 경우, 그것은 '묘행'이고, '보시'이다. 그런데 그것을 '대상 · 법에 머물지 말고' 하라는 것일 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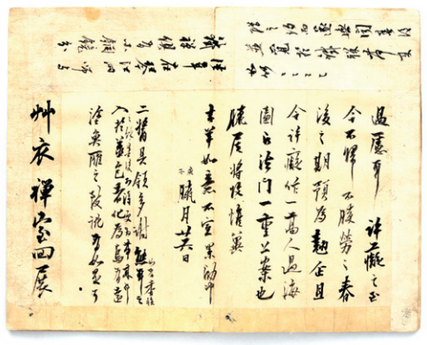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입을 벌리면 먹고 눈을 감으면 잡니다"

완도의 이진포에서 아쉬운 이별을 고했던 추사, 제주도에 도착한 지 백 여일이 지난 후 초의의 편지에 답신을 보낸다. 뭍과 섬, 제주도는 지금처럼 가까운 땅이 아니다. 거친 풍랑을 이긴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며, 세상의 풍문이 단절된 땅이었다. 초의가 보낸 편지에 "마음이 위로되고 가슴이 후련해졌다"는 추사였다. 간난의 처지에서도 막힘없는 원융의 경지를 넘나들던 추사의 달변을 응대할 상대는 초의였다. 〈완당전집〉 〈여초의〉 15신에는 이들의 무애의 경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제주 유배시 추사와 초의의 교유를 살필 수 있는 〈벽해타운첩〉.

선두(船頭)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 모르겠습니다만 해인의 빛남도 이와 같은 경지가 있는 것인지요. 진실로 터럭이 거대한 바다를 삼키고, 개자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여 막힘없는 원융으로 녹인다는 것을 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후 이미 백일이 지났습니다. 소식을 듣기에 불리하여 세상의 소문들이 마침내 여기엔 막히고 끊어졌는데, 홀연히 여기 멀리까지 그대가 편지를 보내 주어, 실로 수행이 정길(淨吉)하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흐뭇하고, 가슴이 트이는 듯합니다. 저는 요즘 입을 벌리면 먹고, 눈을 감으면 잡니다. 그대의 삶도 이것을 벗어남이 있는가요. 그대는 자비로서 의당 마음이 쓰이겠지만 지나치게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허 소치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 무척 기다려집니다. 봄이 지난 후 (제주도에 온다는)기약한 것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또 허 소치에게 "고인과해도(高人過海圖)"를 그리게 한 것은 곧 법문의 중요한 공안입니다. 선달도 다 지나 가는데, 오직 길상여의하시길 빕니다. 이만 줄입니다. 누륵충 경자(1840)년 12월26일

두 가지 장을 모두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강 꾸러미 속에 능이버섯을 넣었다고 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먼 길이라 편지가 잘못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분의 향적(香積: 좋은 음식)을 봄이 지난 후에도 얻어 다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해 금강에 있을 때, 그대와 철선스님이 다 함께 굳게(작은 거울을 나누어 주고 받으며)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봄이 지난 후 모두 찾아서 철선에게 보내는 것이 어떨지요.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船頭分別 未知海印發光 亦有如是一境歟 固當以毛呑巨海 芥納須彌 無礙圓融而銷之 師又謂何入海以後 已近百日 風信不利 世諦上聲聞影響 遂此阻斷 忽此禪械遠存凭 悉團蒲淨吉亦足慰開 累狀開口即喫 閉眼即眠 師之活計 亦有外是者耶 以師慈悲 宜其注存 亦無庸過慮耳 許痴之至今不歸 不勝勞勞 春後之期預爲翹企 且令許痴作一高人過海圖 即法門一重公案也 臘尾將收 唯冀吉羊如意不宣 累泐冲 庚子 臘月 廿六日

二醬具領多謝 熊耳之入於薑包者 化爲烏有 遠塗魚雁之致訛 有如是耳 如有香積之餘 春後可得 更爲帶來耶 往年在琴江時 師與鐵禪 俱有小銅鏡分贈之約而遂無聞 春後並覓 於鐵禪 帶來如何 帶來如何

〈벽해타운첩〉에도 함께 수록된 이 편지는 경자(1840) 12월 26일에 쓴 것이다. 실제 추사는 월일만 기록했다. 친필본 추사의 편지에 세필(細筆)로 쓴 "경자(庚子)"는 초의의 글씨이고, 하단의 "如有香積之餘~帶來如何"부분과 년 월일은 〈〈완당전집〉〉〈여초의〉15신에는 결락되었다. 따라서 〈벽해타운첩〉은 제주도 유배 시기 추사와 초의의 구체적인 교유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추사가 소치에게 "고인과해도(高人過海圖)"를 그리게 했는데 이것을 불교의 공안으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인(高人)이 바다를 건너는 그림인 고인과해도(高人過海圖)는 실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향하는 초의를 그리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망망한 바다, 풍랑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선각자인 신선을 그린 것인가. 아마도 추사 자신을 그리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초의는 대둔사의 진미(珍味)인 능이버섯과 장류를 제주로 챙겨 보냈다. 추사가 향적을 보내라는 거듭된 재촉은 지기(知己)에게나 통하는 정감어린 희언(戱言)이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교, 시, 방송은 내 삶의 三業"

국악방송 박준영 사장

"유리하다고 교만치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치 말자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참인지 깊이 생각해
이치가 명확하면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의 길이니라"

〈잡보장경〉중에서

30여년째 〈잡보장경〉 독송으로 아침을 여는 불자가 있다. 박준영(74) 국악방송 사장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가 다 아침을 기도와 신행으로 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박 사장 같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사는 이들에겐 정말 불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박 사장이 이 경구를 매일 아침 독송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서 바쁘게 일하던 시절, 모처럼만에 가족들과 여름 휴가차 설악산을 올라갔다.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조계암에 도착한 갈증을 해소하러 샘물로 갔다. 물을 길어 올려 마시려는 순간 머리 위서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을 봤다. 바로 종이에 코팅된 〈잡보장경〉이었다. 물론 처음 본 구절은 아니었지만 왠일인지 그날은 마음속에서 새롭게 느껴졌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나무에 매달린 〈잡보장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고 있었더니 역시 물마시러 온 보살님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며 혼자 중얼거리며 이 경구를 읽었다.

박 사장은 생각했다. "아 이 구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옥같은 명법문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자 박 사장은 즉시 종이와 펜을 가방서 꺼내 이 〈잡보장경〉 구절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다.

휴가서 돌아온 그는 당시 KBS 사보에 〈잡보장경〉을 소개하는 글을 썼으며, 수십 장을 복사해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집에 걸어 놓은 〈잡보장경〉 구절을 삼배와 함께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미래소년 코난' '개구리 왕눈이' 등 우리가 말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40여편의 만화 주제가를 일선 PD시절 작사하기도 했던 박 사장은 자신의 인생을 '불(佛), 시(詩), 방(放)'으로 표현한다. 즉 시를 쓰고 부처님 법대로 살며, 방송을 통해 국악을 대중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박 사장이 하는 주 업무도 국악방송 사장으로서 방송 매체를 통한 '국악의 대중화'다.

"국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국악을 알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게 되고 내 조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뿌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과 일상의 소통 이것이 국악방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술과 문화는 현상과 모양 소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지요. 국악방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아있는 문화'로서 청취자들에게 판소리와 정가, 민요 등을 전달합니다. 우리 한국사람의 몸에는 국악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학생들은 우리 음악을 모릅니다. 생모 얼굴을 못 보고 자란다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국악을 꼭 살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국악방송은 분명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성이 있는 우리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국악방송을 통해 세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가 아리랑 캠페인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한국의 대표적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나의노래 아리랑' 특집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몇해 전 서울시청서 열린 '아리랑축제'에 참가한 퓨전 재즈기타의 최고봉인 리 릿나워(Lee Ritenour)는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 혹시 그 이름은 몰라도 두 번만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가락이 아리랑이요 모두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게 재즈의 거장 마저 빠져버린 아리랑의 매력을 국내 대중들에게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는 게 박준영 사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대중들에게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2010년 10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국악제'이다. 한국국악협회와 국악방송이 공동 주최했다. 국악방송 박준영 사장은 이 행사를 'KOREA No.1 BRAND ARIRANG ; 대한민국 대표상징 아리랑'이란 주제로 기획했다. 이틀 동안 펼쳐진 이 행사는 1930년대 이후 아리랑의 대표곡인 아리랑과 민요 아리랑 등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예년 국악제와 다르게 주제를 분명히 해, 무대에 아리랑 관련 노래의 자막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쉽게 아리랑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 '아리랑 노래방'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매일아침 〈잡보장경〉 독송으로 시작
'아리랑' 대표브랜드 만들려 축제 기획
'참으로 국악 사랑하는 운동' 회원 1만명

1999년 방송인 연합불자회 창립
주말마다 사찰다니며 불교시 습작

박준영 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 '얼쑤 아리랑1'과 '얼쑤 아리랑2'의 가삿말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아리랑을 친숙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박준영 사장은 아리랑에 대해 "오늘날 우리 가슴에 절로 흘러 내리는게 우리 가락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라며 "예나 지금이나 동서나 남북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배어 있는 친구이자, 정서이자, 바로 우리 문화의 상징이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로 박 사장이 주력하는 것이 '참국사' 운동이다.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캠페인 용지 한 장을 들고 신청서에 가입을 종용한다. 직접 영업(?)도 나서는 것이다. 고희가 넘은 나이임에도 열정 하나만큼은 왠만한 젊은이 못지 않다.

국악 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해 후원하자는 취지로 2010년 4월 출발한 '참국사'는 현재 1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덕수궁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악 대중화를 위한 그의 열정 깊은 곳에서는 불교가 있었다.

"국악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도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민간 토속신앙을 흡수하며 발전했습니다. 국악 역시 그 기원을 따지



2009년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하는 박준영사장(사진 왼쪽).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상패를 수여받고 있다.



박준영 사장은 … 1940년생으로 동아대와 중앙대 대학원을 거쳐 1968년부터 동양방송 영화부 PD로 방송일을 시작해 1970년대의 TBC 애니메이션과 1980년대 KBS 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미 문단에 등단한 시인으로서 많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작사했다. 빨강머리앤, 그레이트마징가, 그랜다이져, 꼬마자동차붕붕, 미래소년코난, 우주소년아톰, 짱가, 호호아줌마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1990년대에는 KBS영상사업단 사장과 대구방송 대표이사로 활동했고, 2000년대에는 SBS 전무이사로 재직했다. 이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뒤 국악방송 사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도장포엔 사랑이 보인다〉 〈장안에서 꿈을 꾸다〉 〈얼짱, 너는 꼬리가 예쁘다〉 〈동물의 왕국 그림자를 베다〉 등이 있다.

고 들어가면 농경사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하며 흥얼거리던 가락이 국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융합 과정을 거쳐 발전한 국악과 불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국악과 찬불가 선율이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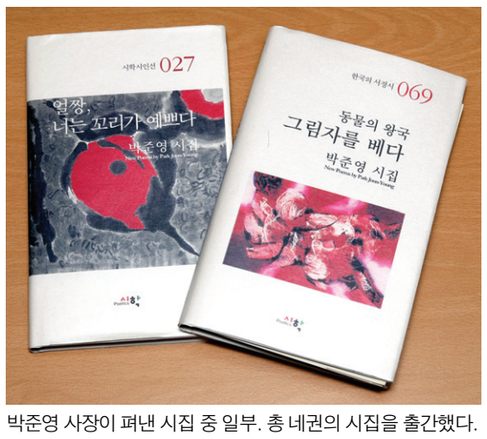
그가 이렇게 평생 동안 불자의 길을 걷는데는 집안 내력과도 관계가 깊다. 경남 진주의 신심 깊은 불교집안서 태어나 불교적 정서를 많이 받고 성장했다. 새벽마다 마을에 은은히 울리던 종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으며, 진주 사범학교 시절 고성 견성암서 고시공부를 잠깐 하며 산사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방송국 PD로 일하면서 주말마다 사찰을 즐겨 다니며 신행생활을 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나가면 하루가 즐거워서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해 지거든요. 대구방송 사장 시절에는 제가 있는 숙소가 조계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 후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립학교다 보니까 학교 안에 법당이 있었어요. 맹모삼천지교라고 법당 근처에서 사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 예불에 참가하게 됐지요. 그리고 주말이면 동화사, 파계사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詩)도 썼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박 사장은 1990년 봉은사 불교대학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또한 SBS 전무시절인 1998년에는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사내 불자회를 재조직했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SBS와 MBC, KBS, 경향신문 등 신문방송 현직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방송인 연합불자회를 만들어 매주 목요일마다 법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박 사장의 법명은 '향산(香山)'이다.

그가 평소 존경하는 봉화 축서사 무여 스님에게 받은 것이다. 세상에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박 사장은 남모르는 선행도 펼쳤다.



박준영 사장이 펴낸 시집 중 일부. 총 네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2009년 수상한 불교언론인상의 상금 300만원을 교계 방송모니터 모임인 사단법인 보리에 보시했다. 고희때는 선물로 자식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여행경비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참여불교재가연대에 고스란히 전하기도 했다.

이런 박 사장이 최근들어 국악 대중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 또있다. 고등학교 교가의 국악화다. 현재 1만1317개의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서 불리는 일본군가 형태의 교가 대신 국악반주 교가를 보급하는 것이다.

"교가는 주요 국가기념일과 학교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각 학교의 상징이자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애교심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음악성과 함께 민족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음악이 가지는 특성상 단체활동을 시작하는 학교인 경우 교가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교서 사용하는 교가의 음원 상태가 대부분 열악해 이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박 사장이 국악방송 스튜디오를 개방했다. 녹음 및 믹싱 과정을 스튜디오서 거침으로써 한층 더 수준높은 음질의 교가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계룡중학교를 비롯해 금성여고, 대원여고, 봉의고, 예성여고 등 10여개 학교 이상에서 국악 교가 편곡에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박 사장의 인생에 또하나 비중을 두는 것이 있다. 시(時)를 짓는 것이다. 박준영 사장은 〈도장포엔 사랑이 보인다〉 등 시집을 네 권 펴내기도 했다. 그런데 시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말마다 사찰을 답사하며 써서인지 불교적 내용들이 많다. 특히 '바보부처'는 우리 중생이 모두 부처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시로 잔잔하게 펼쳤다.

"금부처 금부처 도금한 금부처야/도둑놈이 금칠을 벗겨가도/쓰다달다 가타부타 말이 없는 먹부처야/부처님은 바보/바보니까 부처/그런 거 안 가리니까 더 부처/거지도 부처/도둑놈도 부처/당신도 부처/우리 모두 부처/부처가 바보니까/우리 모두 바보/바보, 바보 바보가 아름다운 세상" ('바보부처'중에서)

박 사장은 말한다. "부처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이자 멘토입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법을 알리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발원하지요. 앞으로도 여지껏 그랬듯이 '불, 시, 방' 인생을 계속 잘 회향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전법일기

가신님을 위해 부르는 '송가'

부치지 못한 편지

우리절에서는 49잿날 재를 지내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족이 쓴 편지를 읽는다. 아들이 어머니께, 딸이 아버지께, 외손녀가 외할머니께,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사위가 장인어른께,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는 집의 가족들에게 말한다. 임종환자의 눈이 빛을 잃기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 이별을 충분히 하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들은 혼침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 또렷한 정신을 지니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어느 날 문득 환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나서 사람들은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여섯 번 재를 지내는 동안 유가족들에게 말한다. "편지를 써 오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좋고, 죄송하다고 참회하는 말도 좋고, 감사의 말도 좋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고…, 어떤 글이든 다 좋습니다."

대체로 세 집 중 한 집은 편지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다고. 다만 그들은 글 쓰는 데 자신이 없거나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은 거다.

어떤 집은 전 가족이 다 써오기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전에 꿇어앉아 돌아가신 분과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참석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는다. 그런 날은 49재가 길어지지만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림 · 박구원

절절한 고인과의 추억 가슴에 묻고 우린 살아가네

유난히 금슬이 좋았던 부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아내는 앙탈을 부리듯 소리쳤다. "여보, 난 어떡하라고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나는 당신 없이 혼자 살기 싫어. 나 얼른 데리고 가!" 그리고는 법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놓아 통곡했다.

갓난아기였을 때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가 마지막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고통 없는 세상으로 얼른 가시라고 기도했던 손녀는 할머니의 49잿날 그걸 뉘우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나니 하루, 한 시간, 한 순간이 그리운데 왜 그때는 할머니를 고통없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만 기도했을까. 그리고 부처님은 그 기도를 왜 그렇게 빨리 들어주신 걸까."

머나먼 외국 땅에서 임종을 맞는 어머니를 찾아오는 자식의 절박한 심정을 아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어머님께서 제가 도착하는 화요일까지 살아만 계셔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이 어미와 도착하여 어머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체온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를 존경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생 안고 산 상처를 언급하며 영전에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시할아버님의 기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버님께서 이튿날 공산당원의 죽창에 찔려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시신을 보셨다는 그 사건이 아버님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치며 아버님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딸은 49일이 지나도록 엄마의 부재(不在)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위암을 선고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없이 엄마와 헤어졌네요. 정말 내 곁에 안 계신지, 지금도 실감하지 못하고 텅 빈 집에 받지 않을 전화도 걸어보고 입지 못하시는 옷도 빨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떠난다. 이 육신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러니 서로 미워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중국 선종 오가의 법을 이은 허운 대사의 법제자, 중국 위앙종(潙仰宗)의 제9대 조사
선화(宣化) 상인(上人)의 활발발한 해설

◉ 선화 상인 참선법문
• 왜 참선을 해야만 하는가?
• 어떻게 참선을 해야 하는가?
• 무엇이 참선의 요결인가?
• 참선 수행에서 만나는 경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화 상인 강설, 각산 정원규 편역
228쪽 | 값 9,000원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하)
강설 선화 상인, 편역 각산 정원규
신국판 양장 | 상 944면, 하 840면
각권 42,000원
선교겸수(禪敎兼修), 현밀겸학(顯密兼學)의 경전
『능엄경』의 핵심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50종의 마장에 대한 상세한 강설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
강설 선화 상인, 편역 각산 정원규
신국판 | 256면 | 값 12,000원
『능엄경』의 핵심 능엄신주의 바른 염송법과 능엄신주의 신묘한 힘에 관한 실제 체험담 업장과 마장을 타파하는 능엄신주의 모든 것

선화 상인 (宣化 上人, 1918-1995)
법명은 안자(安慈), 자는 도륜(度輪), 중국 위앙종(潙仰宗)의 제9대 법손으로 사호는 선화(宣化), 1956년 운거산에서 허운(虛雲) 선사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아 중국 위앙종의 제9대 조사가 되고 선화(宣化)라는 법호를 받았다. 홍콩과 미국 등지에 전법하였다. 미국 등 세계 각지에 27개의 도량을 건립하였고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평생토록 엄정하게 수행하면서 참선과 염불 예참, 경전 연구, 계율 수지, 대중화합을 특히 강조하였다.

각산(覺山) 정원규(鄭源奎)
불교에 입문한 이후 줄곧 마음을 밝혀 건성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선화 상인 능엄신주 법문』, 『선화 상인 능엄경 강설』(상·하) 등을 옮겼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스리랑카, 음식이 종교 갈등의 불씨

할랄푸드(Halal Food) 인증제가 스리랑카 불교계와 이슬람계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스리랑카 정부가 "국내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할랄푸드 인증제 참여와 관련 제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칼리즈타임스(Khaleejtimes.com)는 2월 26일자 보도에서 "스리랑카 불교계가 정부의 친 이슬람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며, "수도 콜롬보 교외 마하라가마(Maharagama) 지역에서 24일 열린 불교계 집회에서는 수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NO HALAL' 문구를 새긴 흰색 T-셔츠를 입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상세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집회를 주도한 '보두 바라 세나(Bodu Bala Sena)' 측은 "국민의 90%가 반대하는 할랄음식 인증제를 정부가 수용키로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인증제 시행의 주체가 정부 기관이 아닌 무슬림 NGO 단체라는 점도 간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한 칼리즈타임즈는 보두 바라 세나 측의 말을 인용, "오는 3월 말 시작되는 '스리랑카 새해 축제' 현장에서 관련 음식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랄푸드'란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류를 총칭하는 용어다. 이들 음식 중에서 스리랑카 불교계를 자극하는 것은 단연 '육류'다. 신의 이름으로 가축을 도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도축된 육류를 '축복의 음식'으로 탈바꿈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할랄푸드 인증제'인데, 정부가 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월 24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불교계 집회에서 수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NO HALAL' 문구를 새긴 흰색 T-셔츠를 입고 정부를 비판했다.

할랄푸드 인증제 놓고 불교 · 이슬람교계 긴장 고조

불교계, 3월 말까지 육류 등 정부의 인증제 철회 요구

3월 말 열리는 새해 축제 반입 금지 등 적극적인 불매운동 전개

갈아보다 테로(Galaboda Thero) 스님은 이날 집회에서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대통령에게 "수백여 명의 스님들은 정부의 친 무스림 정책이 스리랑카 내 불교계와 이슬람계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두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정부는 3월 말까지 할랄푸드 인증제를 백지화하는 한편, 추후 인증제 논의를 개진하기 전에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 시스템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스리랑카 내에서 할랄음식 인증서를 발행하는 곳은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무슬림 NGO인 'All Ceylin Jamiyyathul Ulama(이하 ACJU)'이다. 1928년 설립된 ACJU는 현재 '할라 위원회'를 운영하며 '할라 인증'에 대한 대사회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26일자 보도에서 "스리랑카 불교최고위원회인 '마하나야케스(Mahanayakas)'의 스님들이 '스리랑카 무스림위원회(Sri Lanka Muslim Council, 이하 SLMC)' 위원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할랄푸드 인증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하고, "이번 문제가 자칫 두 종교간 갈등을 첨예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마하나야케스 측은 "할랄 인증제 도입은 두 사회를 갈등을 표면화시킬 수 있는 불씨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할랄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데 인구의 90%을 차지하는 불교도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증의 주체가 무슬림 NGO인 ACJU라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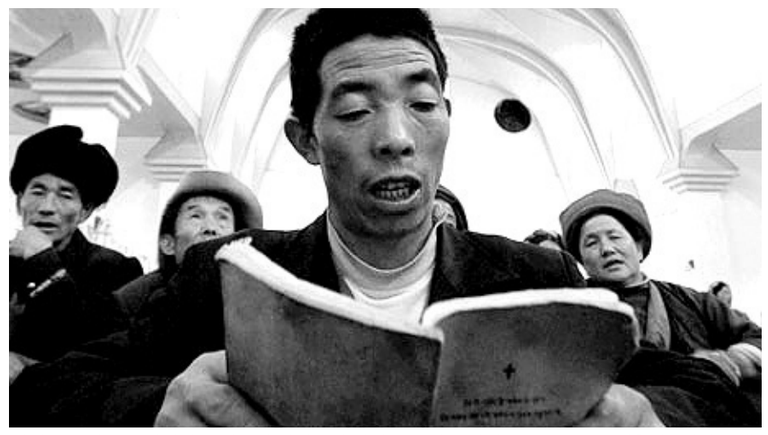
반면 SLMC 측은 "할랄 인증제는 스리랑카의 두 종교 사회의 이해를 돕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반발은 스리랑카 종교부와 ACJU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SLMC 측은 "현제의 인증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정하고 있다"며 "무슬림의 수가 국민의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들 모두 할랄 푸드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할랄푸드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네슬레, 맥도날드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할랄푸드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2009년 4월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발표한 할랄 푸드 과자 중 한국 제품으로는 국희땅콩샌드, 콘칩, 빼빼로 등이 포함되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서구 선교사, 티베트인 개종에 '혈안'

英 가디언, "티베트에 선교사 400명 거주, 전략적 선교중"


티베트 자치구 교회에서 티베트인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출처=신화통신〉

영국인 크리스(Chris · 가명)와 사라(Sarah · 가명)는 티베트인 밀집 거주지역인 칭하이(青海)성 시닝(西寧)에 새로 단장한 방 2칸 짜리 아파트로 이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 흥분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곳의 삶이 척박하긴 해도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티베트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티베트가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로부터 새로운 개척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곳 시닝시에만 거주하는 외국인은 400명 정도이며 대부분이 선교사로 추정되고 있다.

티베트에 있는 선교사 대부분은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들은 영어 수업, 직업전문교육 등을 티베트인들에게 제공해 충성도를 높인 후 개종을 권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그간 중국이 1949년 공산정권을 수립한 후 서방 선교사를 '정신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나서 선교사들을 모두 국외 추방하고 선교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월 22일(현지시간) 티베트인 밀집 거주지역인 시닝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티베트 불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티베트(시짱 · 西藏) 자치구에 선택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허용할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며 "이런 방침에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정치적인 계략이 숨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가디언은 10여 명의 소식통과 인터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티베트에 기독교 선교를 허용하려는 것은 정치 · 경제 등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가디언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 기독교계의 티베트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중국은 서방 선교사들이 가진 경제적 이점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서방 선교사들은 티베트 선교가 허용되면 현지에서 이익이 풍부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현지 학교에서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선교사 생활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외국에서 오는 헌금 등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티베트에 기독교가 전파돼 티베트 불교와 대립하기를 바라는 당국의 정치적 흉계라는 관측이다.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중국의 오랜 전략인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티베트 불교 통제에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티베트 전문가 로비 바넷은 "기독교 전파로 서방은 티베트 종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고, 중국은 티베트 종교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분석이었으나 최근 시닝에 몰려드는 서방 선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 기독교 선교사들이 티베트 선교로 티베트 불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중국은 티베트 불교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특정 부분을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의 티베트 자치구 관광을 제한하는 중국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기독교 전단지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선교를 했다면 현재는 크리스와 사라처럼 커피숍, 레스토랑, 게스트 하우스 등을 열어 장기 중국 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는 의사와 자원봉사자로 티베트에 입국하기도 한다.

이 밖에 서방 선교사조직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등 기독교 선교를 보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선교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역겨운 전술' '뇌물'이라 비유하며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티베트인은 "티베트인들에게는 불교가 전부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종교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한 공격을 한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햇볕에 거대한 탱화 말려요"

"티벳 스님들이 햇볕 잘 드는 언덕 중턱에 새해의 희망을 담은 거대한 탕카를 펴쳐 놓았다."

티벳 수도인 라싸 밖에서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라브랑(Labrang) 사원이 2월 22일 햇볕 잘 드는 곳에 부처님을 담은 거대한 탕카(tangka)를 펼쳐놓는 일명 'The Basking of Buddha' 의식을 봉행했다고 중국의 신화통신(Xinhua)이 보도했다.

이 의식은 좋은 해를 기원하는 티벳의 전통 하나로, 중국 간쑤성(Gansu Province) 북서쪽 샤허(Xiahe) 지방에 위치한 랑브랑 사원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1709년 세워져, 현재 겔룩(Gelug)파 계열의 1천여 스님들이 대중 생활을 하고 있는 라브랑 사원은 1만여 점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고, 철학 • 의학 • 역사 • 문학 등에 걸친 6만5000여 권의 불서를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종욱 편집위원

바비인형, 심슨가족에 이어 불상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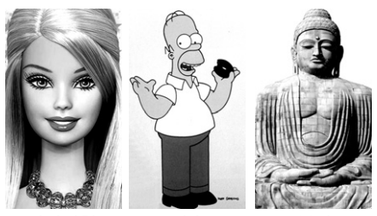
이란, 반입금지 목록에 불상 올려

이란이 바비인형과 심슨가족에 이어 불상을 반입금지 목록에 올렸다고 데일리메일이 2월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는 테헤란에 있는 가게들의 불상 홍보가 금지 당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서구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바비인형과 같은 장난감의 반입을 금지해왔다.

이란 문화유산 보호 공무원인 사히드 자베리 안사리는 "불상은 문화적 침략"이라고 전하며 당국이 그러한 물품들의 홍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얼마나 많은 수의 불상이 압수당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압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이란인들은 장식을 위해 집이나 차에 불상이 두기도 한다. 대부분의 불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페르시안 만에 있는 이란 자유 무역 지구에서 수입된다.


바비인형 심슨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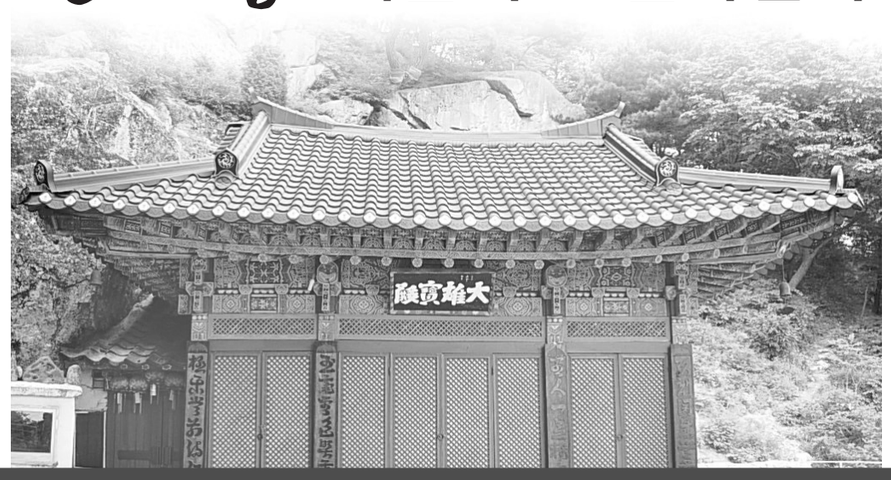
가게를 운영하는 레자 사나에는 "아무도 불교때문에 불상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저 장식용일 뿐이다"고 말했다.

테헤란에서는 2010년에도 유명한 이란인들의 조각상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형상을 한 조각을 거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비난받았다.

이나은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에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벽암록〉 중에서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20주년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3월3일 입재

[구담자모암 법당불사 새로 완공 되었습니다]

구담자모암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 매년 양력 3월.6월.9월.12월 첫째 일요일 천도재 합니다.

2013년 3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 부터 태아영가 참회기도 입재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부모는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배움에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라고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도 안 된다. 생명을 가진 일체의 중생들은 모두 무명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일체의 존재는 모두 인연에 의해서 나며,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면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상주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하였으며,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업이 〈살생〉이라고 하였습니다.

◎ 망 태아영가도 한 생명입니다.
◎ 낙태되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할 귀한 생명이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가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 부모는 그 업보로 악연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 태아영가는 위 조상님과 함께 천도재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엄마, 아빠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태아의 영혼이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기를 참회기도 천도재 합시다.







오는 날
※ 입재 : 양력 3월 3일 (천도재 입재)
※ 3 재 : 양력 3월 24일 (엄마. 아빠참회 참법기도)
※ 5 재 : 양력 4월 7일 (관욕하는 날)
※ 6재 : 양력 4월 14일 (구병시식)
※ 7재 : 양력 4월 21일 (회향, 끝나는 날)

준 비 물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 등 (갤러리 참고) (지의 옷과 신발은 사찰에서 판매함)

계좌번호 국민은행 : 217801-04-021932 구담사 / 농 협 : 225051-51-113712 구담사

대한불교조계종 엄마 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자모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75 NAVER 구 담 사 http://gudamsa.org 문의 : 031)529-2855

버스운행
1호차 : 조계사 앞 (7:00 출발) ⇒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 (7 : 40) ⇒ 길음역 10번 출구 (8:00 ⇒ 미아삼거리역1번 출구(8:10) ⇒ 수유역1번 출구 (8 : 20) ⇒ 도봉산역 (8 : 30) 의정부터미널 (9:10) ⇒ 구담사
2호차 : 강변역 테크노마트 앞 (8 : 30) ⇒ 광나루역3번 출구 버스정거장 (8 : 35) ⇒ 구리역 앞 롯데백화점 (8:40) ⇒ 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패 관계로 접수는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 ·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가세요-

“매화꽃 피니 봄향기 가득하다”

포스코미술관 매화전…3월 9일까지

매화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추위를 이겨내고 세상에 봄향기를 내뿜는 매화를 담은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3월 9일까지 포스코미술관에서 열리는 ‘梅花, 피어 천하가 봄이로다’는 16세기~20세기 초 매화를 주제로 한 묵매도, 첩, 병풍 등 9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김홍도(1745~?), 본연 스님(1873~1949), 이응로(1904~1989) 화백 등의 매화도를 감상하며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포스코미술관 측은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로부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백과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자의 꽃, 매화를 주제로 다룬 다양한 옛 그림 속에 나타난 선인들의 절개와 지조어린 삶의 지혜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풍속화의 대가로만 알려졌던 단원 김홍도의 사군자 작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단원의 ‘매화음(梅花飮)’에 얽힌 사연은 재미있다.

김홍도는 매화나무가 썩 마음에 들었으나 끼니도 거르기 일수인 가난한 살림에 매화나무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마침 누군가가 김홍도에게 그림을 청하고 그 사례로 3,000냥을 주자 김홍

본연 스님 등 90여 작품 전시
김홍도 ‘매화음’ 흥미로워

도는 2,000냥으로 매화를 사고 800냥으로 술을 샀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매화를 감상하며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술자리를 ‘매화음(梅花飮)’이라 했다. 특히, 포스코 미술관은 앞 정원에 백매와 홍매 등의 나무를 식재해 전시기간 내내 매화의 개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3월 9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매화도 그리기 행사도 마련한다. (02)3457-1665 **정혜숙 기자**





포스코미술관은 3월 9일까지 매화전을 연다. 그림 왼쪽은 본연스님 ‘매국대련 중매’, 오른쪽은 김홍도 ‘괴석에매화’

“봄맞이, 사찰 문화강좌로 하세요”

불화에서 베이킹까지
각 사찰별 프로그램 다채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맴돌지만 나뭇가지에서는 새싹들이 움터 올라 온몸으로 새봄을 말해준다. 그렇다. 긴 겨울의 그림자를 뚫고 봄이 온 것이다.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이때 내 삶의 신선한 자극을 주고 싶다면 사찰 문화센터로 가보자. 요가 라인댄스에서 사찰음식, 불화반, 다도, 베이킹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문화강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3월 개강을 앞둔 조계사 문화강좌는 도심속에 위치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요가, 천연염색, 불교한문, 디지털카메라, 한국무용, 불화 도자기 공예, 민요 단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계사 문화강좌로 운영중에 있다. 특히 도자기 불화 염색, 요가 등은 모집과 동시에 정원이 다 찰 만큼 인기가 좋다.

조계사 문화강좌 담당 진선미 주임은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다보니 전통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특히 소수정예로 인원을 채울 수밖에 없는 도자기반은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요가 역시 몸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수강생들에게 관심이 높다. 이번 봄학기에는 바느질 소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규방공예반을 신설해 신입 수강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02)720-1390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강좌는 전문 단청 불화 서각반 전각반 불교문화답사반 불교문화강좌반, 전통손누비반, 생활자수반 등이 있다. 2월 수강생을 모집해 3월 신입생을 맞는 성보박물관 문화강좌는 10여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봉은사 사찰요리강좌



통도사 불화반의 불화그리기 모습.



봄철을 맞아 사찰에서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조계사 도자기 문화강좌

조계사, 요가·도자기 등 인기
통도사, 불화·손누비반 전문 강좌
비구니회관, 사찰음식반 관심 집중

통도사 최현정 씨는 “불화나 단청반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미술전공자들도 많이 찾는 인기강좌다. 특히 단청반은 자격증반까지 갖추고 있어 전문적인 수강을 원하는 이들이 찾는다. 전문가를 찾기 힘든 전통손누비반 역시 인근 울산 부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까지 수강생이 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055)384-0020

능인선원은 꽃꽂이 한국무용 영어회화 서예 단청 불화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이번 봄학기에는 명상다도 베이킹 사군자·동양화 등이 개설돼 수강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능인선원 문화강좌 담당자는 “건강과 관계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이번에 개설되는 베이킹 프로그램은 유기농 재료를 이용해 기름기 없이 빵을 굽는 프로그램으로 웰빙에 관심이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한데 모으고 있다. 또한 명상다도 프로그램 역시 심신의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대중들에게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02)571-2988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는 사찰음식, 규방공예, 천연염색, 민화, 다도, 생활자수 등의 강좌가 운영중이다. 전국비구니회관의 사찰음식반은 1년 강좌로 진행되며 수강대기자가 밀려 있을 만큼 인기가 좋다. 현재 180여 명의 수강생이 꾸준히 수업을 듣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관 측은 “주로 생활밀접형 강좌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사찰음식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가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오랫동안 강좌가 진행되다 보니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집안의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생활자수 역시 수강생들이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강좌 중 하나”라고 전했다.(02)3411-8103

봉은사는 사찰음식, 노래교실, 사진교실, 초의다명상 등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봉은사 강민수 팀장은 “외부에 열려 있는 강좌이기는 하지만 워낙 신도수가 많다 보니 수강생 모집을 하면 사찰 신도들로 바로 채워지는 편이다. 하지만 사찰음식 강좌는 타종교인들에게도 거부감이 없어 꾸준히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02)3218-4800

이밖에도 연화사문화센터의 요가 라인댄스 모듬북 어린이요가 포크아트 규방공예 천연비누만들기 난타 단소 풍물 등의 강좌가, 진관사는 오카리나 사찰음식반 풍물반 등이 수강생을 기다리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립대구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4월 13일부터 불교 역사·문화 강좌 열려

고려불화 한국의 불상 조각 등을 배울 수 있는 문화강좌가 대구에서 열린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역사·전통강좌와 문화유적지 현장답사로 구성된 제18기 박물관대학을 연다.

수업은 △4월 13일 개강식 및 국립대구박물관과 대구의 역사·문화 △4월 20일 신석기시대 문화 △4월 27일 청동기시대 문화 △5월 4일 고구려 문화의 이해 △5월 11일 백제 문화의 이해 △5월 18일 신라 문화의 이해 △5월 25일 답사 △6월 1일 한국의 금속공예 통일신라 △6월 8일 한국의 불교조각 통일 △6월 15일 문자-목간·이두 △6월 22일 발해의 역사와 문화 △6월 29일 답사 △7월 6일 고려의 지방사회 △7월 13일 고려 불화 △7월 20일 우리 옷의 역사 △7월 27일 아시아의 복식 문화 등으로 구성된다.

300명을 정원으로 하며 4월 13일~7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6주 동안 이루어진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http:// daeg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3)760-8580~3 **정혜숙 기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데자뷰’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선정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을 소재로 한 뮤지컬 ‘데자뷰’가 2013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으로 선정됐다. 극단 초이스 시어터가 만든 데자뷰(대본 안희철·작곡 여승용·연출 최주환)는 초조대장경 조판 천년을 맞는 부인사에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이다.

감독 최주환 씨는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부인사의 초조대장경이다. 조판 천년을 맞는 대구 부인사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은 부인사에서 발견된 미라가 가슴에 품고 있던 무엇인가가 사라진 흔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형사, 특종을 찾기 위해 뛰어든 여기자, 문화재청 초빙연구원 보리 베베르가 만나게 되면서 초조대장경의 미스터리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최 감독은 “천년을 오가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일체유심조의 사상을 말하고자 했다. 인간의 욕심이 허망하다는 진리를 보여주며 불행도 행복도 모두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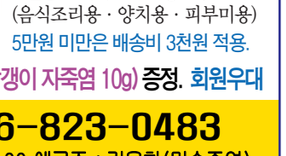
초조대장경을 소재로 한 ‘데자뷰’가 2013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으로 선정됐다.

데자뷰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신화와 설화적 상상력이 가미된 다채로운 음악형식과 안무형식의 뮤지컬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상상력을 극대화해 코믹과 진지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데자뷰’는 2012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창작지원작으로 선정되어 남우조연상을 수상했고, 2012 제주 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에 뽑히기도 했다. 데자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 지역 문예회관 공연에 나서게 된다.

정혜숙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실용신안 의 장 특허출원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법일) 010-9591-8599

☆ 유* 무선 겸 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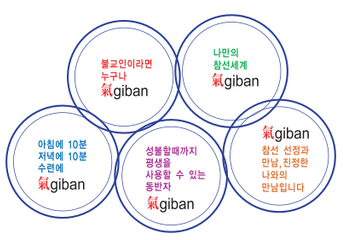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백제 사찰 기와 한눈에 본다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자취' 展

경희대 박물관서 6월 30일까지

왕흥사 금강사지 용정리사지 등의 사찰 기와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경희대 중앙박물관이 '백제기와 - 문양과 기술로 남은 瓦工의 자취' 展을 6월 30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기와의 종류와 제작기법은 물론 백제기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기와의 일반적 이해 △시기별 백제기와의 특징 △백제기와와 다른 나라의 기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첫 코너에서는 기와의 용도, 종류 기와의 제작 도구와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시기별 특징으로는 △한성기-서울 풍납동 출토 수막새 △웅진기-공주 공산성, 정지산 유적 출토 수막새 △사비기-부여 지역에서 수습한 경희대 소장 기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비기에서는 용정리사지와 금강사지 왕흥사 등 여러 사지에서 수습한 각종 기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기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코너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신라 수막새, 백제의 영향을 받은 신라 수막새 △중국 육조(六朝) 시기 수막새, 일본 아스카(飛鳥)와 나라(奈良) 시기 수막새 △통일신라 기와, 고려 기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경희대 중앙박물관은 1975년 8월 와당실(瓦當室)을 설치하는 등 오래전부터 기와수집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1000점 이상의 와전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 주로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수습된 88점의 고구려 와당은 2005년 9월 '역사의 숨결 가득한 고구려와당' 특별전을 통해 정리되었다. 한편 백제, 신라 및 통일신라 와전은 공개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었다. 그 가운데 백제 기와를 정리하여 이번에 기획전을 열게 되었다. 공휴일과 토·일은 휴관한다. (02)961-014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화문 연목와



연화문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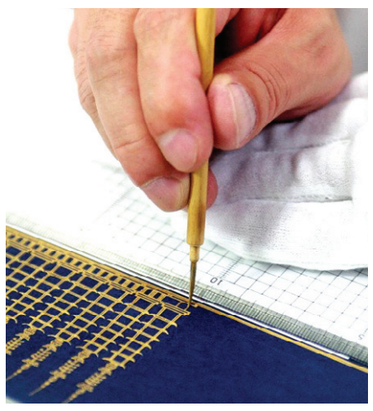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서 사경 강좌 열려

김경호 씨 3월 5일부터 강의

사경이 예술의 전당 강좌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전통사경기능전승자인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은 예술의 전당 서예 아카데미 과정에 '사경반'을 개설, 3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강의한다.

이번 강좌는 사경의 정의, 역사, 종류, 의식, 사경수행의 자세 및 호흡법 등 사경의 총체적인 이론교육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고려 전통사경의 표지, 신장도, 변상도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기수업도 함께 진행된다.

김경호 회장은 "한국 예술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전통사경 강좌가 열린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강좌를 계기로 전통사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4시에 진행되며 3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장이 3월 5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사경강좌를 연다.

김경호 회장은 전북대 국문학과,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금니사경을 계승 한국전통 사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02)580-1657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안상(眼象)→영기창 ㊦

선석사 불단은 영기창 증명



그림① 불단과 불상

아직도 '영기창이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창이라는 것과, 그 영기창을 통하여 만물이 화생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고정관념이란 참으로 깨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나 틀린 것이 많은지 모른다.

나는 어느 날 도록에서 선석사 불단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한편 매우 기뻤다. 마침내 영기창이 우주로 통하는 창이고 영기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 영기창을 통하여 만물이 탄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석탑, 승탑, 불상대좌, 석등, 불단에서 많은 영기창을 보아 왔으며 그 영기창 너머로 무한한 우주 공간이 열려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알아 가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런 영기창을 모든 장르에 베풀었을까.

영기창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기단부에 있다. 그리고 그 영기창에서 신장상이라든가 사자모습의 영수(靈獸), 비천, 보살 등이 역시 영기화생하여 나타나고 있다. 바로 그 기단부에서 그 위 부분 전체가 화생하는 극적인 장면이다. 즉 불상이나 불탑이나 승탑 등이 영기화생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안상이라고 하면 그런 엄청난 광경을 상상할 수 없다. 영기창(靈氣窓)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임으로써 비로소 모든 장르의 개념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 성주군에 자리 잡은, 세종대왕자 태실의 수호사찰인 선석사(禪石寺) 대웅전의 불단을 찾아갔을 때, 영기창의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결정적 작품임을 직감했다.(그림①) 각기 다른 영기문으로 구성한 다양한 형태의 영기창들 안에는 두 용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보인다.(그림②-1, 그림②-4)

두 용은 보주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려보고 싶으나 영기창이 뚫린 판자를 떼어내야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삼천대천세계(우주)에 나는 두 용은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상징한다. 즉 용이란 존재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듯이 동물이 아니요, 대생명력을 구상화한 추상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우주에 충만하되 보이지 않는 영기(靈氣), 즉 대생명력을 여러 가지 영기문으로 표현하여 왔으나 현실에 없는 것임에 무엇인지 몰랐다. 이제 그 보이지 않던 영기문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동안 써 왔던 중요한 용어들이 틀렸거나 아예 이름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두 용이 마주 보고 있으나 아마도 몸은 순환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보주를 가운데 두고 두 용이 회전하는 형상이 모든 장르에 많은데, 그것은 우주에 가득 찬 대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불단 여래와 보살 영기화생
충만한 생명의 조형세계 상징

즉 선석사 불단은 우주 그 자체이다. 구태여 말하자면 불단 안에는 영기가, 즉 대생명력이 가득 차 있거나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대생명력을 상징하므로 영기가 충만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불단을 옛 기록에 '佛卓'이라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시대의 작은 불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큰 규모로 전개하므로 불단(佛壇)이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단의 넓은 앞면과 양 측면에 갖가지 영기화생하는 극적인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경우에든 영기창에서 만물이 화생하는 광경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가장 밑부분에는 반드시 영기창에서 용이 화생하여 용의 입에서 갖가지 영기문이 양쪽으로 발산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의 근원인 물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귀면(鬼面) 혹은 그것을 우리말로 바꾼 도깨비라고 부르니 통탄할 일이다. 그것은 여래를 보고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러한 불단 위에 무량한 여래와 보살이 영기화생하는 것이다. 비록 석가여래와 문수-보현보살 등 석가삼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은 무량한 여래와 보살을 석가삼존으로 대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여래와 보살은 원래 보이지 않는 대생명력, 즉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생명을 구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래와 보살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제 불단과 여래-보살의 상관관계가 분명해 지지 않았는가. 불단과 불상 모두가 생명을 나타낸 조형 세계이다. 불교사상이 바로 '생명존중'의 사상이므로 불교미술의 조형에는 생명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②-1. 좌측 용의 얼굴



그림②-2. 우측 용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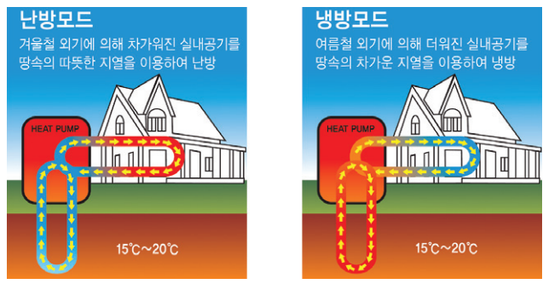


그림②-3. 바닥은 바다의 파도



그림②-4. 꼬리 부분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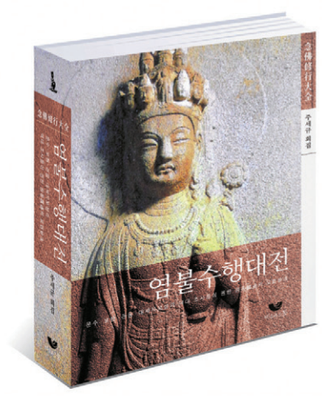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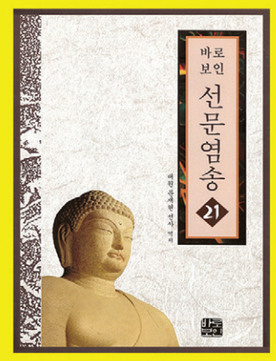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 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기억 속에서 불러낸 탄허 스님의 생생한 모습



방산굴의 무영수 –상·하
월정사 · 김광식 지음
오대산 월정사 펴냄
2만5천원

탄허〈사진〉, 한국불교 근대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스님은 1983년 6월 5일, 오대산 월정사 방산굴에서 세수 71세, 법랍 49세의 그림자를 지웠다. 스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이라면 그의 그림자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 〈방산굴(方山窟)의 무영수(無影樹)〉다. 스님의 생전 조실채였던 '방산굴'은 중국의 이통현(635~730)이 〈신화엄경론〉을 지은 장소인 북경의 '방산토굴'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책은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큰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도반들이 풀어놓은 생생한 역사 현장의 목소리이자 스님의 모습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증언집이다.

증언에는 석주, 범룡, 각성 스님 등 서른다섯 명의 도반과 제자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김광식 교수가 증언을 모았다.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인연담도 담겨있어 대선사, 대강백, 대학자, 석학, 사상가 등 그의 이름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약관의 탄허 스님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속의 실존적인 방황을 당대의 최고 선지식인 한암 스님에게 의탁한다. 이후 3년여에 걸친 수차례의 문답 끝에, 22세의 탄허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하게 된다.

"탄허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본래 유가(儒家)에서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자 남화경 같은 책을 읽어보니 통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경을 보고나서 보니 그때야 〈장자〉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탄허 스님은 장자를 다 줄줄 외우고 있었지요."

탄허 스님은 유불선을 회통한 강백, 화엄경을 역경하고 가르친 학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그러나 책에 수록된 다양한 증언, 회고를 접하면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탄허 스님에게는 선사, 대강백, 대석학 외에도 교육가, 사회운동가, 사상가, 선교일치적인 사상 등 다면성이 자리잡고 있다. 책은 탄허 스님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때 탄허 스님은 선원 대중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3본산 승려 연합수련소의 수련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 저녁때가 되면 한암 스님께 올라가 원문에 토(吐)를 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배운 뒤 이튿날 우리에게 쭉 읽어주었지요. 그리고 대중들이 듣다가 의심이 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한암 스님이 직접 대답해 주었지요. 다시 말하면 탄허 스님이 풀어서 읽어 주면 대중들은 그것을 듣고, 대중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면 한암 스님이 대답해 주는 방식이었지요."



탄허 스님은 오대산에서 입산하여 수행하고,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한암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이어 받았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수도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는 등 스님의 활동은 오대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대산 불교, 더 나아가 한국불교에 대해서는 탄허 스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책에는 탄허 스님이 수행한 결사적(結社的)인 내용도 다수 나온다. 탄허 스님의 수행, 유불선을 망라했던 학문, 교육의 중심에는 〈신화엄경론〉의 번

"불경 보고나니 '장자' 보여"
스님 총체적으로 다시 조명
결사적인 차원도 평가받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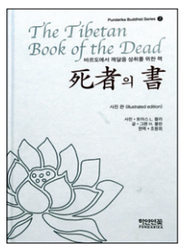
역, 출간이라는 대작불사가 있다. 그리고 오대산 수도원, 영은사 수도원의 개설 및 운영이 있다. 이러한 탄허 스님의 대작불사, 수도원 운영은 그 자체가 결사였다.

수십 년간 지속된 스님의 그 행보는 가시밭길이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분야를 개척한 고독한 행보였다. 책은 "이제 스님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역사로서 결사적인 차원에서도 접근, 해석, 평가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대담자이자 저자인 김광식 교수는 증언집 작업을 위해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을 만나면서 '탄허'란 이름은 '큰스님'이란 인간적인 면모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책의 증언들은 스님에 대한 재평가, 재조명을 기할 수 있는 증언들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대작불사를 이루어낸 탄허 스님은 인간승리의 표본이다. 이러한 스님의 업적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화시켰고 스님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쉬지 않았던 진정한 큰스님, 탄허 스님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탄허 스님께서 탄생하신지 100년,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후세의 등불이 되어 국가 미래의 꿈, 수행자의 좌표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티베트의 고전으로 보는

삶·죽음·해탈·환생



사자(死者)의 서(書) –사진판
사진 · 토마스 L. 켈리
글 · 그렌 H. 물린
한역 · 조원희
하얀연꽃 펴냄
3만3천원

1927년 옥스퍼드대학 출판부는 〈바르도 토돌(Bardo todol)〉또는 〈듣기에 의한 사후 세계에서 깨달음〉으로 알려진 티베트 고전의 번역본을 처음으로 출판했다. 이후로 이 심오한 작품은 여러 형태로 접근을 시도한 책들이 영어로 출간됐다. 책은 이 고전을 재구성한 것이다. 〈바르도 토돌〉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만, 이와 관련된 눈으로 보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책은 사진가 톰 켈리의 사진들을 기반으로 한 '사진판' 프로젝트다.

티베트 경전 〈사자의 서-Tibetan Book of the Dead〉로 알려진 〈바르도 토돌〉은 8세기 경 인도의 탄트라 불교를 처음으로 티베트에 전래시킨 티베트 불교의 승려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가 썼다는 108개의 경전 중 하나로서 사후 세계에 관한 경전이다.

바르도란 용어 자체는 두 경험 사이의 간극이나 공간이란 의미에서 단순히 '사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때는 죽음과 환생 사이의 간극 또는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티베트의 문헌에서



두 명의 라마가 화장의식에서 기도예식을 하고 있다. 1985년 네팔 훔라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바르도 영상'과 '바르도 길'과 같은 말은 사망 후에서 환생까지의 시기에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토돌이란 '듣는 것을 통한 영원한 해탈이라는 뜻으로, 죽음의 순간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르도 토돌이라고 한다.

"요기가 이 의식 전이를 시도하길 원한다면, 그는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표시들을 관찰해야만 하며,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중략〉 그리고 나서 죽음의 마지막 단계의 표시들이 일어날 때, 해방의 포와 방법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전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이 〈바르도 토돌〉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와 기법이 성공하지 못하면, 의식집행자는 망자의 몸에 가가이 앉아서 이 〈바르도 토돌〉을 독송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고 바르도에서 윤회와 해탈하는 과정에 필요한 의식과 바르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7단계로 설명한다. 이 7단계 동안에 여러 다양한 모습들의 붓다들이 나타나 해탈과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고 한다. 각 단계마다 해탈을 이룰 기회가 제공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단계(7일) 중 어느 한 단계에서 해탈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카르마, 번뇌, 무명의힘은 강합니다. 몇몇 이들은 지시사항을 분명하게 읽어줘도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적절한 영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탈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들은 7일간의 주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탈의 단계가 끝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여 부적절한 환생 피하기', '부적절한 자궁에 이르는 문을 닫는 방법', '적절한 환생 장소 찾아내기', '환생하는 두 가지 방법' 등 환생의 단계를 소개한다.

"바르도를 건너뛰고 붓다의 경지에 바로 이르게 된 이들 외에는 모두 바르도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최선은 이곳에서 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바르도 경험의 수준에 따라 해탈을 성취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비밀을 담은 티베트의 고전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힘든 세상을 살게 해주는 스님들의 깊은 생각들

스님의 생각

정법안 지음 | 부글북스 펴냄 | 1만3천원



"천당은 못 오게 막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음속에 번뇌를 잔뜩 지니고 있어 문이 환히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옥도 오라고 유혹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다. 왜 그럴까? 오욕 덩어리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책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한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 많은 일들을 겪게 된다. 어차피 온 곳을 모르고 가는 것을 모르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의문과 물음 앞에 직면하고 있다.

책은 효봉 스님, 청담 스님, 경봉 스님, 성철 스님, 서옹 스님 등 선지식들의 법문과 일화를 소개한다. 저자는 성찰을 위해 한 순간도 경책의 죽비를 놓지 않고, 오직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스님들의 등불 같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한다.

영하의 차가운 겨울에도 졸음을 이기기 위해 찬물이 든 항아리 속에 몸을 담그고 수행한 춘성스님의 일화라든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찾아온 신도에게 오히려 법문을 통해 부부란 서로가 진정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경봉 스님의 일화라든지, 죽을 고생을 하고 삼천 배를 한 신도에게 성철 스님이 던지는 촌철살인의 예화 등은 '삶'에 매달려 있는 모두에게 실천의 실마리를 던진다.

저자는 "저는 어린 시절, 불교에 입문하여 그 동안 이 시대의 큰스님들을 많이 친견해 왔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살 삶의 따뜻한 교훈들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지난날은 내게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면서 책에 실린 큰스님들의 말씀과 일화들은 분명 모두에게 삶의 지팡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0 ~ 2/2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출판
6	지금 당장	도법	다산초당
7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김영사
8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지유 외	불광출판사
9	공부하다 죽어라	정찬주	열림원
10	가슴이 부르는 만남	벽택주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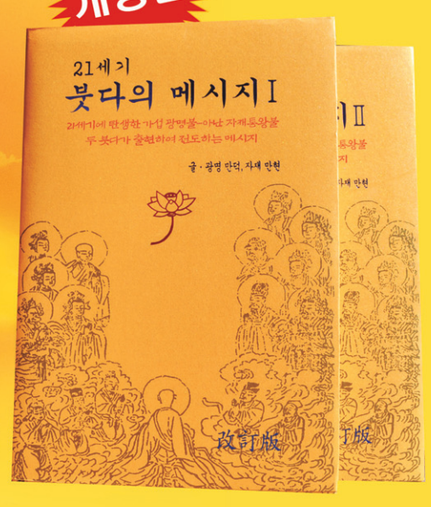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0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3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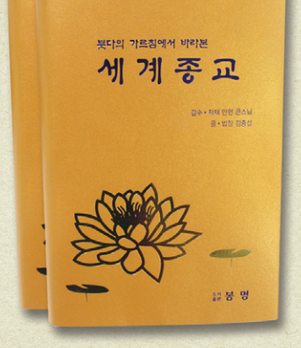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 · 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715쪽 | 값25,000원

▶ 달라이 라마 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할 양서!

*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 영혼체 윤회론 (158쪽/10,000원) -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 관음태교 (227쪽/10,000원) -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무료배포) - 현지사 천도재 안내

"좋은 인연은 양보와 이해로만 이뤄져"



스님의 쓴소리, 절대 혼자 살지마라

혜철 스님 지음
마젠타 펴냄
1만2천원

옥천 대성사 중매쟁이 혜철스님이 결혼을 주제로 한 에세이 〈스님의 쓴 소리, 절대 혼자 살지 마라〉를 펴냈다.

스님은 결혼중매에 대한 임상실험(?) 많은 베테랑 커플매니저다. 현재까지 1200여쌍 이상을 결혼으로 골인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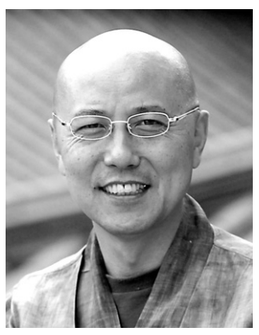
스님은 이 책에서 인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사는 이곳이 최고의 장소이듯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내게 최고의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연을 만났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역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없도록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라고.

그럼 스님이 생각하는 불교적 인연이란 무엇일까? "불교서 말하는 부부의 연은 1겁의 연인데, 1겁이란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때까지 걸리는 무한대의 시간이니, 그만큼 소중합니다."고 말한다.

커플 멘토라 불리는 혜철 스님은 결혼하지 못한 선남선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인연 맺어주기를 본인의 업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30대 중반에 출가해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결혼 못한 남녀의 사연을 듣고 이런 저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다보니 어느덧 수행의 업이 돼버렸다. 충청북도와 협력해 2005년부터 인터넷 카페 '따뜻한 만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법회를 열어왔다.

"좋은 인연은 서로의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결혼은 인생 대역전이 아닙니다. 결혼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까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적인 만남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전제되고 작은 것 하나까지 공유할 때 사랑은 더욱더 공고해지지요. 선남선녀의 따뜻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연기법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이들을 하나 둘 만나게 해준 것이 점점 범위가 커졌습니다. 인연을 못 만난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일이 나의 업이자, 시대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최고의 배우자를 기다리며 60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가 그해 자신의 이상형인 여성을 만났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껏 찾아온 이상형이 당신이니 청혼을 받아달라고 청했더니 그 할머니는 단박에 거절하며 그 할아버지에게 "당신의 이상형은 나지만 나의 이상형은 당신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평소에 이상형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이상적인 사람



현재까지 1200여쌍 중매 골인
선남선녀 만남은 연기법으로 시작
이상형 얻으려면 자신이 이상형 돼야

이 되도록 노력해보라고 미혼남녀에게 조언한다.

누구나 사랑이란 말은 좋아한다. 그런데 사랑을 조건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이가 많으니, 사랑이 왔다가도 저만치 달아나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사랑은 신기루 같은 것이며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또한 사랑의 무게는 영혼의 무게라서 측정할 수도 없으며, 그 귀한 것을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정성도 들이지 않고 얻으려 하는지 혜철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의 짧은 사랑에 대해 지적한다.

"결혼은 계약이며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결혼은 비즈니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결혼 조건이 하나 둘씩 늘게 되자, 급기야 이 데이터를 갖고 사업 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세대에게는 어울리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즈니스적인 접근 보다는 여자와 남자, 즉 음과 양이 만나서, 서로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렇게 전달된 감정을 맞잡고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보이던 것들이 가슴으로 느끼다보면 확실히 다가옵니다. 내가 과연 무얼 원하는지를. 그렇게 하다보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의 반려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문을 열어 상대방을 보도록 하세요."라고 말한다.

혜철 스님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결혼을 미루는 이유들을 살펴보고, 외로운 인생길을 손잡고 걸어갈 동반자를 얼른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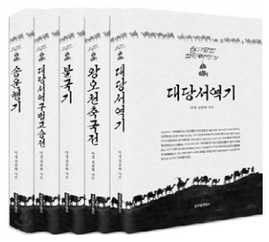
▲저자 혜철 스님은?

옥천 대성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불교공뉴스' 대표를 비롯해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홍포원 홍보부장, (사)원봉문화복지회 이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충청북도 상임대표, 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대사 등을 맡고 있다.

5~8세기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를 풀어놓다

실크로드여행기 (전 5권)

김규현 역주 | 글로벌콘텐츠 펴냄
통권 11만원



고전을 번역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크로드 고전여행기〉은 그런 번역물중 하나다. 인도여행기 다섯 종을 한 질로 묶은 백과사전적 대하기획이기도 하다. 인류역사상 최대 여행기로 꼽는 7세기 현장법사의 순례의 혼이 깃든 대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8세기 신라 혜초(慧超)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그리고 최초의 인도 구법여행기인 5세기 법현(法顯)의 〈불국기(佛國記)〉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의 백미인 8세기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과, 위의 여행기들의 시대적 공백을 이어준 6세기 송운(宋雲)의 〈송운행기(宋雲行記)〉 등 5대 고전여행기를 한 질로 묶었다.

그동안 이 방면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불편한 점이었던 분산된 방대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간행되는 〈실크로드 고전여행기〉는 참으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모든 고전여행기가 후인들을 위한 가이드북의 성격을 띤 것이란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여행의 의미를 한결 업그레이드한 테마여행은 이미 현대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붐을 이룬 지 오래 되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본다면 여행기라는 고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테마여행의 중요한 텍스트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문제는 어떻게 고전을 업그레이드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해답으로 옮긴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5대 여행기의 체취가 묻어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두 발로 다니며 다양한 자료를 모아가며 큰 의미가 있는 지도와 도표를 만들어 고전여행기를 '가이드북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존 고작 두세 가지였던 실크로드를 더욱 세분해 큰 간선으로는 11루트, 작은 지류로는 22갈래로 분류해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이를 다시 〈실크로그 갈래길 총도〉와 〈파미르고원 횡단도〉로 만드는 성과를 이루어 이번 여행기 총서에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다. 특히 파미르고원을 넘나드는 루트는 예부터 실크로드의 여러 갈래길서 가장 백미에 해당된다.

우리의 혜초사문과 현장법사를 비롯한 수많은 순례승들의 체취가 진하게 배어 있는 비중 있는 곳임에도 불과하고 역사상 그 누구도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옮긴이의 풍부한 현지답사의 경험을 살려 난해한 원문의 지명을 현재의 지명과 함께 병기하여 '가이드북'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였다. 또한 모든 나라이름은 지도와 같은 숫자로 코드화하고 또한 각주에서는 5대 여행기를 교차적으

인도여행기 다섯 종 묶어
지도·도표 만들어 가이드북화
20여년간 지구촌 곳곳 누벼
고대 지명 코드 및 디지털화

로 비교하여 독자들이 고전여행기를 읽을 때 만나게 되는 혼란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는 점도 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역자는 그 스스로 "미지의 세계로 향해 뻗어 있는 길을 걸어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른바 역마살(驛馬煞)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김규현 씨. 그의 경력은 독특해, 성균관대 화공과를 자퇴하고 해인불교전문강원을 거쳐 중국 등지에서 탕카를 공부하고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를 설립했는가 하면, 20년 가량 이들 5대 여행기의 현장을 뒤지고 다녔다고 한다.

이번 역주본은 번역문을 전반부에 싣고 원문을 뒤에다가 몰아 배치하되, 곳곳에 해당 여행기 현장의 체취를 담은 관련 사진을 풍부히 담았으며 각주 또한 풍성하다. 나아가 이들 여행기에서 최대 난관은 그들 구법승이 다닌 길의 지도와 그 현장의 당시와 후대 지명 문제다. 김씨는 이번 역주본에 관련 지도 30개 정도를 제공했으며 고대 지명은 현대 한글명/현대 원어명/현지 영어명/고전 한글명/고전 원어명 등을 제공한다.

김주일 기자

초등생 자녀 위한 불교식 교육 지침서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민병직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5천원



현직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초등학교 아이들과 그의 부모를 위한 아이 교육서이다. 다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새로운 아이 교육의 지침서이다. 저자는 다년간 불교전문교육기관에서 수학하면서 주요 일간지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단한 화려한 경력으로 여러 권의 자녀 교육서와 동화집을 출간한 바 있는 전문 작가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를 '내 것'이라는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아이를 비난하고 비교하고 훈계하고 꼬치꼬치 따져 묻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아이 교육은 시작되어야 함을 깨우쳐 준다. 그러기에 아이 교육은 '아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 내 아이가 아님을 제대로 자각할 때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해 준다.

아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반야심경〉의 공사상과 대비해서 문제해결을 제시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 교육서이다. 〈반야심경〉은 명징하게도 이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이를 공부시키는 이유를 일러 주고, 참된 부모의 길을 제시해 주며, 부모와 아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길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이런 면에서 〈반야심경〉은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불이법문인 동시에 최고의 아이 교육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 준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당신의 아이는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변하는 까닭이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 **김주일 기자**

고은 대표 선시 180여 편 묶은 〈뭐냐〉 재출간

뭐냐

고은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1만1천원



고은 시인이 1991년 냈던 선(禪)시집 〈뭐냐〉가 문학동네에서 재출간됐다. 시집엔 20여년 전 수록했던 선시에 이후 시인이 쓴 작품까지 총 180여 편이 실렸다.

"앞산에 번개/ 뒷산 우레/ 이 가운데/ 돌멩이 벙어리"(시 '어느 날')

시인은 서문에 "오직 선은 마음뿐이다. 이 마음속의 진면목으로만 기존의 세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선의 목적"이라고 썼다.

20여 년 전 빛을 봤던 시집이라지만 이후 그가 여기저기 발표하고 써두었던 선시들까지 두루 넣었으니 거의 새집과 진배없는 책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적인 언어들로 번역되었고 현재보다 많은 언어들로 번역 가운데 있다니, 시인 고은의 저력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따지고 보자면 이 시집은 '선'의 세상 속에 뿌려진 소금이 아닐까.

굳이 따지자면 총 180여 편의 시를 담았다지만, 고은의 〈뭐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편들로 직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한 편의 시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한 줄의 시가 매 순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조보다 광대한 사유에 하이쿠보다 자유로운 품격으로 붓 든 자 아이인가 붓 든 자 노인인가 그 사이를 가늠할 바 없이 오고 가는 시인은 우주 만물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기미들을 살피고, 그 안에서 돈오의 알곡들을 골라내기에 몹시도 분주한 모양새다. 때론 강권하고 때론 청유하고 때론 질문하고 때론 감탄하면서 시인은 마치 세상에 처음 온 듯, 그 처음으로 호기심밖에 가진 게 없다는 듯 걸음마다 두리번거림을 한 짝으로 삼고 있다.

이 말랑말랑한 언어들을 시인의 일갈이라 귀 기울이게 되는 건 시집 군데군데 들어 있는 시인의 그림을 통해서다. 붓 끝에 힘이 들었으나 제목대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김주일 기자**

명리(사주)학 학인 모집

당 문수불교문화원에서는 2013년 명리학인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반(6개월)
   음양론, 오행론, 사주의 구성, 합충법, 원진, 파, 해, 절기론, 대운법, 암장법, 공망, 당사주실무
   나. 중급반(6개월)
   육친법, 남과여의 육친적용, 포태법, 12신살론, 왕, 상, 휴, 수, 사, 조후론, 흉살, 길신
   다. 고급만(실전교육)
   격국론, 용신법, 통변법이론과 실무, 풍수지리이론, 작명이론

※ 강의 특징: 원리위주, 이해위주, 한글위주, 통변위주 ※

2. 개강일시
   가. 개 강 일 : 2013년 3월 13일(수요일)
   나.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명리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학기당 30만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원에서 교부)
6. 강 주 : 현조(문수정사 주지) 구미지역 사회 교육협의회 명리학 강의(7학기 강의) 구미 노인대학 특강, 김천 도서관 특강
7. 접수기간 : 2013년 3월 1일 ~ 13일까지(선착순 20명 이내)
8.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3-16번지(지하철 1호선 반월당 2번 출구 앞)

연락처 010-2509-5535

문수정사 문수불교문화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절교육 절수행 깨달음

700만 배 절수행
청견스님 노하우

완벽한 표정 + 자세 + 동작 + 부처님호흡법대입
+ 동작알아차림 + 염불알아차림

전신의 챠크라 열어드리고 숨통 뚫어드려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절해야 숨고요 마음고요로
저절로 몸 나쁜기운, 맘 나쁜 생각 쏙쏙 빠져나가는
완전웰빙 심신건강 예방 ,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숨차고, 헐떡거리며 상기되고 힘빠지며
피곤하고 몸이 냉해지면 절을 잘못 하는 것

⊙ 장 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대구법당 : 053)743-0063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서동이 「서동요」를 지은 까닭은?

신라와 결혼 통한 화친의 전략 가요

1. 서동은 누구인가

『삼국유사』에 소개되어 있는 향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가요는 신라 진평왕 대에 백제의 서동(武王)이 지은 「서동요」이다. 대다수의 향가들이 신라의 사국 통일 전후에 이루어졌으나 이 「서동요」는 예외적으로 통일 이전에 지어진 노래이다. 서동은 '마를 캐던 아이' [薯童]일 뿐만 아니라 워낙은 '막내아들'의 의미인 '맏둥' 즉 '말자' (末子)의 뜻이다. 때문에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말통대왕' (末通大王)이라 적고 있다. 백제는 처음에는 형제 상속으로 왕위 계승의 전통을 세우다가 장자(太子) 상속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장자 상속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차자(次子)나 삼자(三子) 혹은 사자(四子)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더러는 형제(兄弟) 상속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태자 혹은 왕자들은 왕위를 되찾아 오기 위해 골육 간의 정쟁(政爭)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연(一然)이 '무왕' 조의 할주(割注)에 옛 책에서 '무강' (武康)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왜(倭)나라에서 태어나 백제의 왕이 된 사마왕(斯麻王) 즉 무녕왕(武寧王)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무왕을 무강왕 즉 무녕왕이라고 한 것은 서동이 설화에서 백제의 강역을 크게 확장한 무녕왕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 전설적 영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서동 즉 무왕이 위덕왕 (威德王)사후 갑작스럽게 왕이 된 혜왕(惠王)과 그의 아들 법왕(法王)을 이은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가 동성왕-무녕왕-성왕-위덕왕으로 이어진 왕족의 태자(夭折)의 아우이든 아니면 다른 이복(異腹)왕자였던 간에 그는 분명 왕족의 핏줄을 타고났기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을 법왕의 아들로 적고 있으나 『삼국유사』「왕력」편에서 혜왕은 위덕왕의 아들로, 법왕은 혜왕의 아들로 적혀 있지만 무왕의 부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일연 역시 할주에서 "『삼국사』에는 법왕의 아들이라 하고 여기서는 과부의 아들이라 하니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제30대 왕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가 홀로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에 있는 용과 통하여 장을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서동(薯童)이며, 재주와 도량이 한없이 넓었다. 마를 캐다가 팔아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善花, 善化)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면서 가까이 지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꾀어 부르게 하니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 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김완진 역) 동요가 장안에 퍼져 궁중에 알려지니, 백관들이 적극 간하여 공주를 먼 곳에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왕후가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귀양가는 길에 서동이 나와서 절을 하고 모시고 가겠다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기뻐하며 그를 믿고 따라가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준 금을 내놓으며, 함께 백제로 가서 이것으로 생활 계획을 세우자 하였다. 서동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이오?" 공주가 말하였다. "황금인데 백년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서동은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서는 이런 것이 진흙처럼 쌓여 있소." 공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이것은 천하의 보배인데 당신이 금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 이 보배를 우리 부모님의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금을 모으니 마치 구릉처럼 쌓였다.

나제동맹 깨지며 왕권 약화
왕족 서동은 신라화친 특사

2. 선화공주와 미륵사 그리고 사택씨 왕비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의 지명(知命)법사의 처소에 가서 금을 운반할 방법을 물었다. 법사가 말하였다. "내가 신통력으로 옮겨 줄 테니 금을 가져오시오." 공주가 편지와 함께 금을 사자사 앞에 옮겨다 놓으니, 법사가 신통력으로 하룻밤에 신라 궁중으로 날라다 놓았다. 진평왕(眞平王)이 그 신통한 변화를 기이하게 여겨 더욱 존경하고, 항상 서신으로 안부를 물었고, 서동은 이로 인해서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루는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행차하려고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못에서 나타나는지라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큰 절을 세우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왕이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법사는 신통력으로 산을 무너뜨려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 삼회(彌勒三會)의 형상[像]을 본떠서[法] 전[殿]과 탑[[塔]과 낭무(廊廡)를 각각 세 곳에 창건하였다. 진평왕이 백공(百工)을 보내 돕도록 했는데 지금도 그 절이 남아 있다.

위의 기록은 '무왕' 조에 나오는 미륵사



선화 공주가 지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미륵사. 사진은 미륵사 당간지주와 1992년 복원된 동탑.

연기에 대한 것이다. 무왕과 혼인한 선화(善花)는 '예쁜 꽃'을 의미하며 셋째 딸을 의미하는 '셋희'의 차자(借字)로도 읽힌다. 만일 선화가 신라 진평왕의 딸이라면 첫째인 덕만(德曼)과 둘째인 천명(天明)에 이은 셋째 공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삼국유사』 '무왕' 조에서만 선화가 셋째공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가 공개되면서 미륵사의 설립 주체가 사택씨(沙宅氏) 왕비였다는 사실이 힘을 얻고 있다. 639년 1월에 안치된 이 「사리봉안기」에는 1) 이곳에 모신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이고, 2) 가람 설립과 사리 봉안의 주체는 사택 왕비이며, 3) 왕실의 안녕과 불법의 확산을 발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육변려문(四六變儷文)으로 이루어진 「사리봉안기」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으기 생각하건대 법왕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근기[機]에 따라 감응을 보이시었고 무리[物]에 응해 육신을 나투셨으니 마치 물에 비친 달빛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인도) 왕궁에 의탁해 태어나시고 (사라) 쌍수 아래서 적멸을 보이셨으며 여덟 섬의 사리를 남기시어 삼천(대천)세계를 이롭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섬광을 오색으로 빛나게 하여 행보를 일곱 바퀴 돌게 했으니 신통한 변화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전면) (竊以法王出世, 隨機赴感, 應物現身, 如水中月. 是以託生王宮, 示滅雙樹, 遺形八斛, 利益三千. 遂使光曜五色, 行遶七遍, 神通變化, 不可思議.)

2)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아득한 세월[曠劫]에 선미한 씨앗을 심으시어 오늘의 이생[今生]에 수승한 과보를 받으셨으며,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어 삼보의 대들보가 되셨습니다. 때문에 능히 깨끗한 재물을 삼가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이십구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았습니다. (我百濟王后, 佐平沙乇積德女, 種善因於曠劫, 殊勝報於今生, 撫育萬民, 棟梁三寶. 故能謹捨淨財, 造立伽藍, 以己亥年(이하부터 후면)正月廿九日, 奉迎舍利.)

3) 바라옵건대 세세생생 공양을 올리게 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게 하여서 이 선근(善根)으로써 우러러 대왕 폐하의 수명(年壽)을 산악과 같이 견고히 하고, 치세(寶歷)를 천지와 함께 영구히 하여, 위로는 정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는 자량으로 삼으소서. 또 바라옵건대 왕후 자신에게 마음은 수경(水鏡)과 같아 법계를 비추어 항상 밝게 하시고, 몸체는 금강(金剛)과 같아 허공과 나란히 불멸하시니, 일곱 세의 구원까지 함께 복리(福利)를 입게 하시고, 무릇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함께 불도(佛道)를 이루게 하소서. (願使世世供養, 劫劫無盡, 用此善根, 仰資大王陛下, 年壽與山岳齊固, 寶歷共天地同久, 上弘正法, 下化蒼生. 又願王后即身, 心同水鏡, 照法界而恒明, 身若金剛, 等虛空而不滅, 七世久遠, 竝蒙福利, 凡是有心, 俱成佛道.)

이 「사리봉안기」에 의하면 미륵사와 서탑의 설립 발원자는 사택씨 왕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라진 중탑(木塔)과 동탑(石塔)의 봉안기에도 사택씨 왕비 이외의 발원자가 있을 수 있다. 『삼국유사』 '무왕' 조의 기록에 의하면 미륵사의 설립 발원자는 분명히 선화공주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자는 641년 3월에 왕위에 올랐고 5월에 무왕이 세상을 떠났다. 641년 10월에 왜국의 서명(舒明)천왕이 서거하자 의자왕은 조문사절을 왜국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1948년 부여읍 관북리 도로변에서 발견된 「사택지적비」에 의하면 사택 지적(砂宅智積) 역시 641년 11월에 서거했다. 그 이듬해인 642년 1월에 사택씨 왕비 역시 세상을 떠났다. 위의 두 기록 사이의 간격과 이들 역사적 사건을 연관지어 보아야만 거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무왕과 지적의 사후에 백제에서 친위 정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서기』(24권) 황극(皇極) 원년(642)조 기사에 실린 사택 지적이 죽은 641년 11월 기록과 관련시켜 문제를 풀어보면 의자(義慈)는 무왕 즉위 이전 선화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선화공주는 의자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무왕이 어렵게 왕위에 올랐듯이 의자 역시 무왕 33년에야 세자로 책봉되었다. 때문에 무왕은 자신과 선화공주의 소생인 의자를 무척 아꼈으며, 의자 또한 부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부왕의 계비(繼妃)인 대좌평 사택지적의 딸인 사택씨 왕비에 효성을 다하고 그 소생의 이복 아우들에게 우애를 보이며 신망을 쌓아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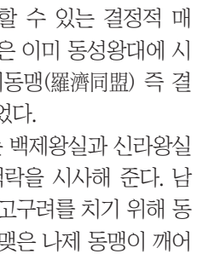
불교융성 양국상황 활용
승려분장 잠입, 선화공주 꾀어

그렇다면 마[薯]를 팔아 생계를 하던 서동이 선화공주와 어떻게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 '무왕' 조의 기사처럼 그는 지모와 매력이 뛰어난 인물로 보인다. 당시 백제 왕실은 불교식 왕명을 쓴 성왕(聖王)-위덕왕(威德王)-혜왕(惠王)-법왕(法王)의 치세 이래 불교가 극성하였다. 법왕은 조서(詔書)를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나 새매 같은 새들을 놓아 주도록 하였다. 심지어 고기잡이나 사냥하는 기구를 불태워 일체 금하게 하였다. 경신년에는 갓 머리를 깎은 30명의 승려로 하여금 당시 서울인 사자성(부여)에 왕흥사(백마강가)를 세우게 하고 겨우 터를 닦다가 승하하였다. 아마도 서동은 불교를 매개한 일련의 화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로서 법왕에 의해 발탁된 것은 아니었을까? 서동은 신라와의 화친을 추진하려는 법왕의 명을 완수하기 위해 국경의 수비를 쉽게 따돌릴 수 있도록 승려처럼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서라벌로 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서라벌에 이르른 서동은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선화와의 인연을 맺는 것이 신라 왕실과 백제 왕실의 화친을 위한 최고의 계책임을 간파하였다. 해서 그는 노래를 지어 서라벌의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면서 부르게 하였다. "선화공주님은[善花公主主隱]/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他密只嫁良置古]/ 서동 방을[薯童房乙]/ 밤에 알을 안고 간다[夜矣卯乙抱遣去如]." 노래의 효험은 의외로 컸다. 아이들의 노래가 서라벌 곳곳에 퍼져 궁중에 까지 알려졌다. 문무 백관들은 이 해괴한 노래를 듣고 왕에게 간하여 공주를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서동의 지모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서동요」는 단지 네 구절에 지나지 않는 노래이지만 그 안에는 백제와 신라가 화친할 수 있는 결정적 매개항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동성왕대에 시도된 적이 있던 나제동맹(羅濟同盟) 즉 결혼동맹(結婚同盟)이었다.

이처럼 '무왕' 조는 백제왕실과 신라왕실의 경쟁과 화친의 맥락을 시사해 준다. 남진 정책을 도모하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 동성왕이 신라 왕실과 맺은 나제 동맹이 깨어진 이후 백제와 신라는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되었다. 신라의 배신에 의해 성왕이 전사한 뒤 우덕왕은 백제의 대성(大姓) 귀족들로부터 크게 압박을 받았다. 해서 위덕왕대 이래 왕실은 신권(臣權) 중심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혜왕과 법왕은 신권 중심의 질서를 왕권(王權)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호불왕이었던 법왕은 불교와 결혼동맹을 매개하여 신라와 화친을 도모하려 하였다. 법왕의 명을 받은 서동은 신라 왕실로 건너가 선화와 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진평왕과의 화친을 맺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덕에 서동은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동요」는 무왕의 지모와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뛰어난 정치가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정 민, 『불국토를 꿈꾼 그들』(문학의 문학, 2012).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광불교강좌 안내

각묵 스님의 청정도론(淸淨道論) Ⅰ 10주



●개 강 일 : 2013년 3월 18일(월요일)
●강의진행 : 오후반(1시 30분) 저녁반(7시 30분)
●수 강 료 : 100,000원(교재 별도)

『청정도론(淸淨道論)』(Visuddhimagga)은 1500년전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Buddhaghosa) 스님이 스리랑카로 건너와서 지은 논서이다. 붓다고사라는 법명의 유래는 붓다고사 스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부처님의 음성과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 한다.

상좌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근본말씀' 이라고 한다. 팔리어로 지어진 주석문헌으로 경율론의 삼장을 해석하면서 불교의 핵심을 7가지 청정도로 정리한 책이다.

불광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각묵 스님을 모시고, 청정도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광 불교대학

불광사에서는 불교와 첫 인연을 맺는 분들과 함께하는 불교기본교육과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2년제 과정의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광불교기본교육(3개월)

▪ 주요내용
불자예절, 찬불가,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역사, 기본교리, 불교문화, 불교의례, 불광신행 등

▪ 모집분야
3월 11일(월) 개강
아침반 : 매주 월요일 오전 10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3월 9일(토)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50분

불광불교대학(2년제 4학기)

▪ 모집분야
3월 5일(화) 개강
아침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50분
저녁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20분
(단, 재일 · 법회가 겹치는 날에는 오후 2시 ~ 4시)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138-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02-417-2551 www.bulkwangsa.org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의지할 것도, 불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야차의 물음에 부처님이 대답했다. "항상 계율을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염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함 월 선 원 (참선수행)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참나를 찾는 수행공간
생활속 수행을 원하시는
모든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052)243-4900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한글본 대장경 구합니다

031)386-1569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개인지도
○ 교육 후 바로 상담 책임지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010-2586-7938

관상 •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 특별 개인지도
• 철학원,포교원,무속인,일반인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관계 없음)
•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천도재,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철학, 역학 지지법

영가 찾는 법
조상 찾는 법
스님 일반인 모두 환영
회비 한달 2만원
(부산법원 옆 무상사)
010-7532-8797 향적 합장

조용한 암자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 약간명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 대상 : 빙의, 우울증, 불면증, ADHD(주의력 결핍장애), 틱장애, 불안장애 등 병원치료가 어려우신 분
010-9034-2727(금강선원)

아직도 법당에 보살들을 세우시렵니까? 이제 직접 스님들께서 천도의식을 진행하십시오

한국무용 배우실 분
살풀이, 승무, 극락무, 지전무 등등 스님에 한하여 수강해 드립니다
비구승 포함
(부산 보성암)
보성스님 010-8510-0108

경자생 비구 사찰 및 포교원 운영 소임원함

사주명리 명상치유 등의 방편력 보유
010-4876-1042 성진

스님이 없는 빈 절이나 가난한 절을 구합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리고
발전을 약속합니다.
(65세 비구승)
010-7534-4848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천도재 49재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 이상도 가능)
010-4220-0566

비구 부전스님 (50세 미만) 모십니다

(마산)
010-3428-666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부전 스님 모십니다

010-7223-7893

비구니스님(30~50대) 모십니다 공양주(50~60대)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2297-1919
02)516-9153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월 14일(목) 저녁반, 3월 15일(금) 오전반, 3월 19일(화)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 암 역 리 원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02)597-1101 / 011-9150-2284

제11기 지도자양성 부업봉사자 무엇이든 물어보셔요

가정, 회사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치매, 암예방, 가족갈등, 대학입시, 취업기도, 비만, 스트레스, 새학기 입학기도.
010-2353-2010, 010-6703-9904
010-3033-8889, 010-5523-9181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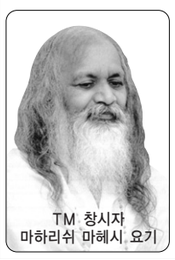
경북 김천
010-7178-0700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서 울 범 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과 깨달음!

20분 새에 잠보다 2~3배 깊은 휴식으로 피로 스트레스 신속해소, 원기회복하는 자가치유 비법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 불면 · 대사증후군 해소
KBS(마음, 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초월명상으로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입증되다" 2005년 5월 2일 SBS 8시뉴스, 중앙일보 의학뉴스
"초월명상은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대사증후군을 동시에 개선한다" 미국 심장협회지(JAMA)–2006.6.12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대인관계 개선 / 고3병 퇴치 / 두뇌개발, 창의력, 학습력 증진 흡연, 음주, 분노, 습관개선 / 노사화합, 창조적 경영 내면의 평화, 삼매경 체험 / 자아각성(깨달음)

'저는 하루 두번 20분씩 TM이라는 보약을 복용합니다. 우리 회사원 300명도 TM을 배웠는데 그 결과는 너무 놀랍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두통이 사라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회사에 창의성과 생산성이 넘쳐납니다. 초월명상으로 여러분은 최고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참선을 하다가 TM을 배웠습니다. 불면증이나 혈압 치료는 문제가 아닐 정도입니다. 온 종일 잔잔한 즐거움에 휩싸이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명상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을 정도여서 부처님 이곳에서 입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김상호 교수, 대통령상 4회 수상한 교육자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 건물 6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관련서적 증정)
문 의 서울 598-3152 / 010-7443-1296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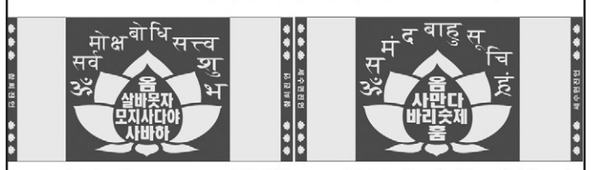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불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 아함경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의왕
- 법당 : 50
- 요사 : 60
- 대지 : 1000
- 종각,가액 8억

- 위치 : 경기
- 법당 : 40평
- 요사 : 100
- 대지 : 700
- 가액 : 15억
- 가액 : 80억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목조)
- 요사 : 50평
- 부지 : 2000평
- 전세금 : 3억

유명관광지 점 ,문화재 보유 사찰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조정가)

- 위치 : 경기도
- 법당 및 요사 : 70평
(법당 및 요사채 신축허가필)
- 부지 : 1,30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500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개베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답사후 결정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9338-0118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국립영천 호국원 정문앞
- 대지(개인유지)1070평 (676평 분할가능)
- 주차장 150평완비
- 가격은 절충, 연락요망

010-5633-8768

포교원안내

- 태백산 산신도량
- 대지 179㎡
- 조립식 건물 별도 산신각 1동
- 금액 9300만원

011-9794-5815

사 찰 안 내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건평23평 대지100평외 과수원밭 1.500평(6년생사과나무 250주있음)
- 아주예쁘게지어놓은 황토집이며 법당
-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토굴 암자(급)안내

- 용인시 양지IC 부근 접근성이 용이함
- 임시법당 있고 전망 좋음
- 토지 대 911m 건평 79
- 조적조벽돌기와지붕
- 급양도가액: 3억 3천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051)412-0400
010-3732-523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57-24
- 최고급법당인테리어
- 법당내집기, 가구, 소품 포함
- 방2, 법당1, 화장실 등 사행활가능
- 보증금 2,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조절가능) 월세50만원

010-7767-13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8천 7백 5십만원. 절충가능

054)435-1259

밀양 암자 안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전화 후 상담

010-4619-2600

포교원안내

- 위치 :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3리
- 대지 200평, 건평 35평
- 방3개, 창고3동 •올수리
- 삼존불, 후불탱화
- 주변에 소나무 숲 저수지
- 전세 3천만원, 시설비 없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5만원

010-6253-6892
011-729-6011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57-24
- 평수 69평 • 1층 요사채 28평 (공양실, 방3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8평 (스님방 1개)
- 종무소 4평
- 가액: 3억 4천만원 (은행 융자 1억 4천만원 가능)

010-6575-171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 앞
- 4층의 2층. 약 20평
- 방2개, 부엌, 삼존불, 지장불, 아미타불, 관음불, 탱화 지장불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5백만원, 달세 無 시설비 1천2백만원

010-7929-779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평수 69평 • 1층 요사채 28평 (공양실, 방3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8평 (스님방 1개)
- 종무소 4평
- 가액: 3억 4천만원 (은행 융자 1억 4천만원 가능)

010-6575-171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양산 남부동
- 3층건물중 3층 • 총평수 34평
- 인근시장 도보 5분거리
- 시청 도보 10분거리
- 가액: 보증금3천만원 월30만원(시설비 3백만원)

010-5285-0781

사찰(급)안내

- 울진군 해수욕장 100m 인근
- 대지 563평
- 대웅전 24평, 산신각, 용왕각 각 1동
- 요사채 35평, 방6개
- 가액: 2억 4천만원
- 즉시 입주 가능

010-3066-1080

초미니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 약 400M 주택 밀집가
- 1층 : 철학 및 상담 사무실1
- 미니법당방1, 주방1, 화장실 따로
- 보증금 400만원 월 24만원
- 시설비 300만원

010-2499-0779

힐링센터 및 사찰부지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 대지 700평 (2층주택 70평 포함)
- 야산 1300평
- 특징: 2차선도로에 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산에는 다수의 식수, 정원수 있음 사찰 및 힐링센터로도 적합하며
- 주인직접 매물임
- 가액: 10억 (방문상담 후 결정 희망)

010-4250-8566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 지하철 금곡역에서 도보 5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3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창고1
- 시장골목, 도시가스사용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1-448-2159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시 금호읍에서10분거리
- 연못 옆 암자
- 법당, 거실, 방3, 주방, 화장실
- 106평
- 가액: 8500~9000만원

010-3071-8199
011-812-1363

암 자 안 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성호동
- 전망이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
- 시내가 모두 보이는 곳
- 방2, 목욕실, 부엌, 거실
- 양도가: 2천 2백만원

011-852-1500
010-4429-1880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사찰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 : 7억

- 위치 : 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양도 : 4억6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종교부지 1700평 병산리, 산 168-2 4,130평 (총 5,830평) 대웅사
- 건물, 대웅전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조건 및 금액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4178-2700

신축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 총평수 : 413평
- 대지 : 300평
- 대웅전 25평(목조기와 요사채 1동) 창고 1동
- 가액: 2억 6천 5백만원

010-8794-1257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찰터안내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 구학산 아래
- 대지 전 합 3800여평
- 9마리의 학의 형국이라 판검사 3명 배출된 명당터마을 전망좋고 도 계곡 접 , 전체 바위 돌
- 가액: 2억 3천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시 해수욕장 방생지
- 대지 약 700평
- 총건물 120평(목재건물)
- 1층 60평, 2층 요사채, 법당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가격절충)

054)261-110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5평, 지하 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천만원 포함)

010-3194-373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종교부지 1700평 병산리, 산 168-2 4,130평 (총 5,830평) 대웅사
- 건물, 대웅전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조건 및 금액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4178-270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운창동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 지하1층 60평, 큰법당 방2칸, 공양간 시설완벽
- 보증금 100만원 월 28만원
- 시설비 7백만원
- 상업지역, 아파트3천세대 최고요지
- 현 포교원 운영중,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387-3679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500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개베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답사후 결정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9338-011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 지하철 입구
- 2층 약 30평(완벽한 시설)
- 위치, 환경좋음 (포교,상담,법회)
- 몸만 오시면 됨, 불사관계 양도
- 특히 비구니스님 최적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상권최고지)
- 시설 1500만원(답사후 조건 따라 절충)

010-9690-8275

광 양 토 굴

- 위치: 전라남도 광양읍
- 평수 대지 100평
- 법당(삼존불, 탱화, 산신)방 4개
- 시설비 2000만원(집기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96-7737

포교원 및 토굴 안내

- 치악산 맑은 물자락 산자락
- 명상 기도 공부할 수 있는 별장식 도량
- 위치: 강원도 원주
- 대지 120평, 건평 90평
- 3층건물
- 가액 3억 5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논산시 연무IC 부근
- 대지 125평
- 건물: 법당, 공양간, 산신각, 요사채 (합 4동)
- 가액: 1억 2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7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원안내

- 위치: 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 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3662-5527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운창동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 지하1층 60평, 큰법당 방2칸, 공양간 시설완벽
- 보증금 100만원 월 28만원
- 시설비 7백만원
- 상업지역, 아파트3천세대 최고요지
- 현 포교원 운영중,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387-367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2동 (하이마트 건너편)
- 독채: 임법당(18평)방4개, 창고1
- 아미타불(동불석자), 후불탱화, 신중탱화
- 칠성탱화, 영가단탱화, 마당에 산신각, 용왕당
- 법당집기
- 지하철, 시내버스1분거리(현재법회중)
- 포교의 최적지
- 시설비 1천5백만원
- 보증금 1천 5백만원에 월 35만원

010-3783-360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카루나 케이턴 (심리치료사 · 미국)

〈2〉 불편한 정서 쫓아내기

괴로움 극복하려면 '자기 정당화' 포기하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불교의 핵심 원리는 '모든 생명체가 순수하고 맑고 밝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는 많은 부분 또는 기능이 있다. 회사에 여러 직원과 부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음의 한 부분은 마음의 다른 부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생각, 감정, 느낌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투명하고 밝은 마음은 이러한 생각, 감정, 느낌을 이끌어 찰나적이고 변화무쌍하며 유동적인 정신 활동을 만들어낸다. 지각 작용이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 감각한 대상에 바위, 산들바람, 나무 등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며, 이것 역시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가 '바위'를 경험할 때,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사실 정신 활동의 짜깁기다. 우리 마음이 색깔을 보는 것이고, 마음이 형태를 그려내며, 단단하다는 촉각도 마음에 등록된 내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는 아니다. 세상은 우리 머릿속 인식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 내부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경험 자체는 중립적이랄 수 있겠지만, 정신 활동의 범위에는 불안, 화, 갈망, 오만, 혼란, 질투, 경쟁심, 슬픔 등 온갖 가치 판단과 정서가 포함돼 있다. 호불호가 생기고, 그게 곧 성품이 되며, 얼마 안 가 그것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대로라고 믿게 되고, 개개인의 자아도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믿는 것을 '현실'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감각이 수집한 날것 상태의 데이터에 '생각'이 끼어들며 윤색이 시작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현실의 진짜 본성은 왜곡되고 만다.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늘은 그 자체로 맑지만, 그 안에 먹구름, 스모그, 안개, 새털구름, 눈, 비, 진눈깨비가 나타날 수 있다. 파란색이었다가 잿빛이 되었다가, 밤이 되면 검은색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색은 하늘 본연의 색이 아니다. 하늘, 혹은 빈 공간의 진짜 본성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다만 경험이나 사건이 생기고, 그 경험과 사건이 시시각각 바뀔 따름이다. 마음의 하늘에는 경험의 대상이 떠다니지만, 하늘 자체의 본성은 맑고 순수하다.

마음을 찾아서

우리는 몸을 가리키며 우리 안에 완전한 우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의식은 물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모든 느낌, 생각, 태도, 정서, 꿈, 공상, 갈망, 두려움, 걱정, 실망 등을 지닌 '나'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어디, 우리 존재의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어쩌면 '뇌 속'이라고 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뇌라는 신체 기관을 들여다봐도 생각을 발견할 수는 없다. 더구나 뇌는 반드시 오감에 의지해 정보를 받아들이므로 경험은 뇌를 넘어 손가락, 귀, 눈, 피부 그리고 혀로 확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마음은 형태 없이 몸의 모든 부분으로 퍼져 나가지만, 뇌는 그렇게 퍼져 나가지 못한다. 세상에 대해 '아는' 그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앎 그 자체 그리고 인식의 창조자이면서 모든 경험의 지속적인 동반자인 우리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아마도 지금은 가장 단순한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불교 심리학의 접근법이다. 즉, 생명체는 '형체 또는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비원자적, 비물질적이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냄새를 맡거나 만지거나 맛을 볼 수도 없다.

마음의 또 다른 특징은 철저히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마음에는 형체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생각과 의견을, 그것도 순식간에 바꾸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고정돼 있지 않은 건 마음뿐이 아니다. 물질로 이뤄진 세계도 마찬가지다. 물질세계의 모든 것도 끊임없이 유동해 태어나고 늙고 죽고 소멸한다. 우리 몸 역시 매일 늙어가고 조금씩 변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뇌가 고정돼 있지 않고 유연하며,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가 새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말은 마음훈련을 신경회로의 변경 및 재배치라는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특정한 생각의 방식이 뇌 속에 물리적인 신경회로를 형성했다 해도 그 회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마음은 뇌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잠이 진짜 필요할까?

불안을 감지했을 때 잠시 멈춰, 호흡에 집중해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그 감정, 그 이야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다. 내 문제는 진짜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정서적 경험 역시 분명히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생각이 내려놓을 수 있으며 변형할 수 있는 마음속 대상일 뿐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마음훈련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스승인 라마 조파 린포체는 몇 년 전 까지 한 번에 한 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전혀 없었다. 이분을 알고 지낸 35년 동안 죽 그랬다. 과학자들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라마 조파는 명상을 훈련해 젊었을 때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상태였다. 라마 조파가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잠에 대한 필요를 다스릴 줄 아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마 조파는 이런 식의 비범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공력을 여럿 달성했다. 젊었을 때 스승은 음식을 완전히 끊은 적이 있었는데, 배고픔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린포체는 먹고 자는 것을 포함해서 세속적인 욕망이 전혀 없는 분 같다. 절대 불평하는 법도 없고, 늘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라마 조파는 달라이 라마처럼 하루의 매 순간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한 만족감을 누린다.

미칠 듯이 화가 나, 더는 참지 않겠어

우리가 마음훈련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은 집착, 반감, 마음의 진짜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순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어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 무슨 일이 벌어지든 평화와 평온을 경험하는 것이 이상적 상태이다.

어떤 경험이든 반응을 일으킨다. 마음훈련을 하면 경험의 순간에 어떤 반응을 할지 결정하는 요령이 생긴다. "이게 도움이 되는 반응일까?"를 묻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반응이다 싶으면 그냥 흘려보내거나, 나아가 행동하기 전에 다른 감정으로 변형시킨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참으로 까다로워서 부정적 반응을 분별해내려면 훈련과 기술이 필요하다. 반응은 미묘할 수도 거칠 수도, 단순할 수도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반응이든, 마음을 시달리게 하는 괴로움이 포함돼 있다면 가라앉혀야 할 '어지러운 마음'으로 여길 수 있다. 분노, 욕망과 갈구, 무지와 혼란 등이다.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마음 상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마치 불청객이 난입해 뒤죽박죽이 된 집을 다시 정리정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편한 정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그 정서를 받아들일 때는 그게 옳은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정서는 조화로운 내면의 가정을 가꾸거나 하는 멋진 일을 해주지 않는다. 그때까지도 집을 꽉 채우지 않는 한, 참을 만하다고 느낀다. 그럭저럭 피해가며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한 정서를 마음 한복판으로 초대해 받아들인다. 결국 불편한 정서가 점점 커져 참을 수 없어질 때까지 어물어물하다가 집을 아예 빼앗겨버리고 만다.

현명해져야 한다. 달갑지 않은 손님이 집 문턱을 넘기 전에 알아채야 한다. 불편한 정서를 막아내는 전략을 배워, 마음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내쫓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일은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판단할 줄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비난 VS 책임

비난에 숨겨진 속임수는 비난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해 버린다. 어떤 식이든 비난은 성공과 행복을 파괴하는 덫이다.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희생자, 피해자로 여기게 된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 '피치 못하게' 불행하다는 것이다. 괴로움을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에 매달린다. 괴로움을 극복하려면 자기 정당화를 포기해야 한다.

자신이 비난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가장 먼저 어디서 비난이 시작됐는지 밝혀야 한다. 세상은 끝없이 고난을 던져준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외적인 조건일 뿐이다. 우리가 '문제'라고 이름 붙일 때만 문제가 된다. 우리가 지닌 유일한 진짜 '문제'는 불편한 정서이다. 이런 정서가 마음의 진짜 본성을 가리고, 혼란과 무지에 찬 행동을 부추겨 괴로움을 더한다.

우리는 비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지도, 더 현명히 처신하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다. 불편한 정서와 '접속'하면 거의 눈먼 상태가 된다.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하기 일쑤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과 정서가 하나가 돼버린다. 분노 자체가 곧 '나'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손가락의 가려움을 긁을 수는 없다. 정신적 구속복을 입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짜증이나 좌절이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감정이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거나, 아니면 절대 원치 않았던 것과 맞닥뜨릴 때, 좌절할수록 더욱 무기력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세상이 진짜 문제, 심각한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모두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가 그런 문제의 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는 없다. 생각의 변환을 이루어내는 일이 선결과제다. 화에 화로 반응하면 평화나 치유는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훈련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영속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유일한 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비난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데 스스로 책임을 지면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북돋움'에서 펴낸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음훈련1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 세기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책상다리로 또는 편안한 의자에 등을 곧게 피고 앉는다. 눈을 감고 머리를 약간 아래로 숙이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날숨과 들숨 한 차례에 속으로 '하나'를 센다. 다음번 날숨과 들숨에 '둘'을 센다. 이렇게 열을 셀 때까지 호흡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표다. 이 훈련을 세 차례 반복한다. 도중에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맨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부터 다시 시작한다.

마음훈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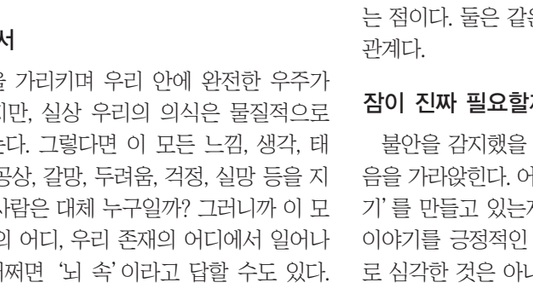
내 마음 구경하기: 아이가 초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듯이

이 훈련은 마음의 움직임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숫자세기 훈련으로 시작을 한 다음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힌다. 자신의 마음이 텅 비고 아주 맑은 하늘이라고 상상한다. 그런 다음 떠오르는 생각, 정서, 느낌, 관념, 목소리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듯이 바라본다. 만약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면, 가능한 한 오래 깨끗한 하늘에 집중한다. 이것이 마음 그 자체다. 이 과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저 어린아이가 초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듯 올려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능력 정직하게 판단하고
성공과 행복을 파괴하는 덫
비난을 내려놓는 마음 훈련은
'불편한 정서' 막아내는 전략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부처님이 아버지 정반왕의 다비를 모시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0)

정반왕이 돌아가다

정반왕이 연로하여 병이 들었다. 뼈 마디마디는 끊어지려 하고 숨도 가빠졌다.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두 아우와 이웃의 여러 왕과 신하들이 정반왕을 찾아 위로했다.

"대왕께서는 평소에 악을 짓지 않았고 공덕 쌓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정반왕이 말했다.

"싯달타와 난타, 아난타, 라후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떠났으면 좋겠구나."

왕은 눈물을 흘렸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계셨다. 왕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곁에 없는 부처님과 왕자들의 생각이 간절했다.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다.

비록 멀리 있는 부처님이시지만 부처님께서는 부왕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즉시 난타와 라후라 등에게 명하셨다. 신통으로 가비라국에 나타나 큰 광명을 놓게 하였다. 가비라 백성들이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소리 높여 말했다. "만일 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부처님께서 이 가비라국을 보살피지 않으신다면, 필시 석가족도 끊어질 것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부처님을 향하여 슬퍼하며 통곡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상하고 이별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고 죽는 것이 고통이요, 오직 도(道)만이 바로 진실이다."

부처님 광명이 밝게 비쳐서 안팎을 꿰뚫으며 정반왕의 몸을 비추자 왕이 말했다.

"이것이 무슨 빛이냐? 빛이 나의 몸에 닿자마자 근심과 괴로움이 모두 사라졌다. 혹시 이 빛은…"

밖에서 광명을 보고 돌아온 이가 말했다.

"부처님과 아난, 라후라 등이 하늘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왕은 마음이 뛰어오를 듯 기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앉으면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여래께서 나의 몸을 한 번 만져 주는 것뿐이다. 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드디어 세존을 만나자 정반왕의 그 고통이 이내 사라졌다.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왕의 본래 모습을 보자면 단정하고 장대하기로 명성이 멀리까지 자자했다. 지금은 병이 깊고 쇠약해져서 뵙고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 좋은 모습이며 힘이며, 명성 따위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왕은 일심으로 합장하며 말했다.

"근심하지 마소서. 덕은 순수하여 결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수 왕의 이마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청정하게 계행을 지킨 분이라 마음의 때는 이미 멀리 여의셨습니다. 그저 기뻐해야 할 뿐 근심하거나 괴로워 할 일이 아닙니다. 깊이 유념하셔서 여러 경전에 담긴 법의 뜻을 생각하시고 굳건하지 않은데서 굳건한 뜻을 얻으십시오. 선근을 심으셨으므로 왕께서는 마땅히 기뻐하셔야 합니다."

대왕은 서원하며 말했다.

"부처님과 난타, 아난타, 라후라 네 아들의 이름으로 죽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왕이 비로소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뻐했다. 부처님께서 부왕을 위하여 〈양마바라본생경〉을 말씀하시니, 왕은 아나함의 도를 얻었다. 왕이 부처님의 손을 잡아 가슴 위에 놓자 부처님께서 다시



삽화 · 강병호

법을 설하셨다. 왕은 아라한의 과위를 얻고서 숨을 거두었다. 모든 석씨들은 슬퍼하면서 왕의 몸을 깨끗이 하여 입관했다. 관을 들어 사자좌 위에 놓아두고 꽃을 뿌리며 향을 피웠다. 부처님께서는 난타와 함께 머리 쪽에 자리하셨고, 아난과 라후라는 발아래 자리했다. 난타 등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길러주심을 우러러 기억하며 저희들이 관을 메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불효한 중생들이 부모가 길러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몸소 당신이 메려 하셨다. 대천이 진동하여 산들이 마치물결 위에 배처럼 흔들렸다. 욕계의 6천(天)의 수없는 권속들이 다 함께 정반왕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모든 왕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는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어서 수다원(須陀洹)을 이루었으므로 저희들이 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메도록 허락하시자 사천왕은 모두 즉시 몸을 사람의 몸으로 바꾸어 관을 어깨에 메었다. 부처님의 위엄 있는 광채가 마치 만 개의 해와 같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손에 향로를 들고 앞장서서 걸었다. 법구가 연화대에 닿자, 영취산의 천 아라한도 허공을 날아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

"원컨대 저희에게도 할 일을 명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숲에 가서 향나무를 가져오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아라한이 온갖 향나무 장작을 가져와 연화대를 쌓고 불을 놓아 다비하였다. 대중들은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슬퍼하며 통곡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고 공하며, 무상하여 마치 허깨비 같으니, 물에 비친 달이며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은 것이다."

시신이 모두 타자 뼈를 거두어 금강함에 넣어서는 즉시 함께 탑을 세웠다. 대중들이 물었다.

"정반왕은 어느 곳에 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거천(淨居天)에 나셨다." (〈정반왕니원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간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⑩



상생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로부터 행복했고 누구로부터 슬퍼하고 속상했던가? 반대로 나는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지난 날 어리석고 모자라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조차 잘못된 역사를 이루고 말았던 것 같다.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로 품어주고 안아주었어야 할 일에도 소홀히 흘려보내고 바보처럼 늙었다. 지금은 늦었지만 생의 남아있는 시간 동안 후회 없는 보람으로 채워 살고 싶다. 미움과 사랑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데도 미움을 안고 있노라면 돌을 안고 있는 무게만큼 가슴이 무겁고, 사랑할 때의 마음은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 훨훨 날아갈 것만 같다. 미움은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주변에 고통을 주게 되지만 내가 행복해 하면 주변의 모든 삶들도 따라 기뻐하고 행복해 하니 세상이 맑고 향기로워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가슴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손길로 대하여 정다운 삶이 되길 기원해 본다. 며칠 전 걸려

부족한 '나' 보면 '삶' 겸손해져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인정해야

온 전화 한 통으로 나는 갑자기 우울하고 불편해졌다.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었다. 암담한 나의 표정은 너무도 보기가 흉하고 미워져서 거울 밖으로 얼른 나와 버렸다. 내 모습이 저렇다니 믿기지 않을 만큼 싫었다. 법정 스님 49재에 다녀오던 날 써두었던 글을 꺼내 읽었다.

-법정 스님을 추모하며-

스님이 가시고 49일 되던 날. 송광사에서 재를 지내니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과 추모의 인파는 헤아릴 수 없는데, 스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불일암 가는 길. 스님이 생전에 수없이 거닐던 이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오늘은 내가 이 길을 걸으며 스님을 생각한다. 숲속의 꽃과 나무들을 만날 때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지네." 노래하시더니 이젠 모두 두고 먼 길 떠나셨네. 그래도 봄은 봄이라 스님이 보아주지 않아도 기어이 싱그러운 봄기운이 들어차 이내 꽃들을 피울 기세다.

오솔길 끝에 불일암. 너무도 소박한 불일암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예전에 손수 심으신 파초가 봄빛을 받아 다시 뜰 앞을 채우려 하는데 스님만 보이질 않는다. 어디로 가셔서 이리도 안 오실까. 짙은 대숲의 정낭에도, 작은 옹달샘의 물바가지에도, 그 곁 땅에 묻힌 작은 김장 항아리에도, 스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정겨운 물건들인데 오늘은 이 모두가 다 쓸쓸한 추억이 되어버렸으니….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을 보면서 지난날 이곳에서 우리가 공양을 이정 함께 하던 시간들이 그리워진다. 자연은 오라고도 가라고도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니 나도 언젠가 이 그리움 안고 떠나갈 텐데. 나는 어떤 향기로 살다 어떤 모습을 남기고 어떤 보람 안고 갈까.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똑 같다. 그러면서 또 다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생김생김이 각자 다르고 생각도 다 제 각각이다. 함께 살아도 함께 있어도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모습도 모두 다른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인간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마다 다른 모습과 생각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이다. 왜 나와 다른 생각이냐고 왜 다른 마음이냐고 따진다면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없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같은 부모님을 의지해 태어난 형제지만 자라면서 자기주장이 생기고 주장은 때로 의견차이로 이어져 다투게 되는데, 하물며 타인끼리야 오죽할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 하려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습에 시비를 따지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었을 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 소림 연화 회관 식구들도 이 좁은 공간에서 모두 용케 참아주고 믿어주는 미덕으로 이만큼이라도 정다운 관계를 이루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 있어 좁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니 법회 때 마다 고마움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곳곳에 좋은 도량을 이룬 절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만큼이나 정다울까 싶다. 노보살님들의 넉넉한 눈빛과 젊은 봉사단의 헌신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언젠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포근한 우리들의 기도처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우리는 이제라도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왜면하지 말아야 한다. 큰 숲속에 크고 작은, 그리고 각기 다른 성품의 꽃을 피우는 나무들처럼 우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때이다. 혹시 잠시나마 섭섭함이 생길 때면 빨리 그 마음을 지울 줄 아는 지우개가 되어 스스로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물에 발을 담가 보지 않아도 물의 깊이를 알아보는 지혜로 사람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원망과 미움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또 언젠가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만나는 도반이 되길 서원하며 보살의 길로 정진하는 원력을 세워본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氣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 큰스님 약력
지정 문화재 佛畵匠 기능보유자 (제2호)
한양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종신상
14회 불교미술 대전 공예 최고상수상
사 대한민국 문화종합 예술대상
사 한양미협 초대대작 심사위원
국제미협 禪書畵展 대상
부산 미협 분과위원
국제미협 전서회 부회장 추천작가
국제미협 문화종합 예술대상
2005년 MBC 생방송쿠 방영
2012년 불교TV 달마도 방영
(현)해운 달마정사 주지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크기 : 직경 10mm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새 정부 '문화는 곧 국력' 올바른 진단



송재운
동국대 명예 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식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자신의 새 시대를 여는 국정지표로 발표하였다. 박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를 위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극복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의 새 시대를 열자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에서는 언제나 민주주의 발전과 구악의 청산이 강조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취임사에서는 경제, 행복, 문화 이 세가지만 간명하게 천명 되었다. 매우 신선한 맛이 있었다. 이에 우리는 경제와 행복이 두 가지를 간략히 요약해 보고 우리 불교인들의 관심 사항인 '문화융성'에 대해서 논급해 본다.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경제부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핵심 개념이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는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케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국민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 설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행복은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축복이되며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다음 박 대통령은 문화에 대해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의 시대입니다"라고 막바로 강조한다. 그렇다. 박대통령의 말대로 문화는 국력이다. 아주 올바른 진단이다.

역사를 회고 하건대, 과거 2천년 가까이 중국이 동아시아를 지배 할 수 있었던 것은 창과 칼의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었다. 순서로 보면 유(儒) 도(道)에 이어 불(佛)이 가세하면서 이 삼교(三敎)의 중국 문화가 한국, 일본, 월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지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문명을 어머니(母) 문명, 한국 일본 등 여타의 나라들의 문명을 자식(子) 문명이라고 규정지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화는 한 나라 국력의 총화이다. 특히 전통문화는 현대문명의 모체가 된다. 오늘 날 세계의 환영을 받는 한류도 우리의 5천년 유구한 전통문화가 모체가 되어 일어난 현상이다. 김덕수의 사물놀이나 대장금, 템플스테이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은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에 있어서 우리는 불교와 유교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불교는 현재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의 70%를 능가 할만큼 우리 문화발전에 절대적인 공헌을 남겼다.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은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은 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새 박 대통령은 한국불교에 대한 선대 아버지의 공적을 알 필요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후 군사정부 시절 비구-대처의 싸움을 종식시키고 62년 4월 통합종단을 출범시켜 피나는 불교 분쟁을 종식 시켰다.

이어서 64년에는 팔만대장경 번역사업인 한글 대장경 간행에 국고보조를 지원토록 하여 2천년에 그 대작불사를 회향케했고, 군승제도를 만들어 불교의 군포교를 실현시켰으며(68년), 불국사 해인사 석굴암 등 전통 사찰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그 후 더렵혀진 것을 경

불교는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
한류는 전통문화 모체서 나온 것
연등회 등 무형문화에 신경써야

내지 정화를 통하여 성역화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여기에는 비구 종단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부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산, 도봉산 등 유명한 산에 난립해 있던 수많은 유사사찰(무당절)들을 일거에 철거시켜 자연을 정화하고 정통 불교를 옹호 했다. 또 75년에는 불교계의 숙원을 받아들여 타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국정공휴일로 정하였다. 그 부인 육영수 여사 역시 스님들을 공양하고 불사를 열심히 했다.

이들의 이러한 불사는 개인적 신앙심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민족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현대문화를 창조하자는데 보다 원대한 뜻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정신문화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창립한 것도 그런 정신의 일환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이란 말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용어이고, '문화융성'의 개념도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부친의 정신적 유산이 아닐 수 없다.

한국불교는 한국전통 정신문화의 근간이다. 불교문화를 떼어 놓고 오늘날 '문화융성'을 기한다는 것은 맹자의 말대로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한국불교는 이제 사찰, 불상, 조각품, 회화 등 여러가지 유형(有形)의 문화유산을 상당한 수준까지 보존 계승 발전시는데 성공 했다.

그래서 이제는 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한 문화적 탐구 내지, 그 중흥을 꾀할 때이다. 영산재, 연등회, 팔관회, 수륙재 같은 것들이 그 일환의 하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정신적 무형의 분야에선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다. 승속을 막론하고 오늘날 한국불교의 지성(知性)들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통적인 것의 계발 및 전승은 물론, 새로운 것의 창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들도 이제는 불교문화 창달에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며, 또한 정부 역시 앞으로 한국전통 불교문화의 창달에 아낌없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해 마지 않는다.

社說

동북아 불교의 공조가 필요하다

3·1절이 올해로 93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마음이 무겁다. 2월 22일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한일 양국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현지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앞서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소녀상에 말뚝을 박는 등 양국 우호관계를 해지는 행위를 일삼기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신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출범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도무지 풀릴 여지가 없어보인다. 본지는 올해 초 신년호 기획으로 '동북아 평화위한 한중일 불교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시 동북아시아 갈등을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풀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의 국제적 불교 교류 행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본지의 3?1절 기념 특별기고에서 "불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해야 하는 것을 재확인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스님은 "불교는 민족이나 영토를 넘은 제3의 지점이 되지 아니면 안 된다. 그 지점을 놓친 것이 식민지 조선시대이며 전쟁에 가담한 일본 불교의 과거 흔적"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불교는 항상 정치권력과 분리하고 독립돼 있어야만 한다. 이는 한중일 불교가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다.

한중일 불교는 연기적 불교문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성숙된 정견을 표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례적이고 관례화된 행사는 지양하고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도래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제는 교류의 양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행복바라미 모금사업에 거는 기대

불교에서 보시는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베푸는 보시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기간동안 대대적인 거리모금 캠페인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에는 전국 16개 시도 시청과 백화점, 역사, 터미널 등지에서 카드 단말기가 내장된 138개소 모금함이 설치된다. 특히 연등축제가 진행되는 5월 11일에는 집중적인 캠페인이 펼쳐지며 제등행렬에 맞춰 모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되며 손연재, 이상화 등 스포츠 스타들이 홍보대사로 나선다.

단일 단체 규모로는 최대를 자랑하는 이번 캠페인의 예상 모금액을 날마다 좋은날은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잡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전액 종단 지정 기관들에게 기탁된다고 한다.

사회공동선구현사업의 일환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에 맞춰 대규모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불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으로는 나눔의 문화를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다. 종단과 불교계 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모금 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해도 불자들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 중앙신도회도 불자들이 '행복바라미 모금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무주상보시'라는 아름다운 불교의 가르침을 불자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각해봅시다

졸업·시상식 꽃다발 대신 기부금

2월은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마다 졸업식이 진행된다. 졸업하는 사람과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몰리는 졸업식장에 빠지지 않는 것은 꽃다발이다.

연말연시의 각종 시상식에서도 꽃다발은 넘쳐난다. 연예인들의 시상식의 경우 사회자가 나중에 줄 것을 강권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들은 불교계의 연말 시상식과 불교대학 졸업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례들이 있다.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꽃다발 대신 기부를 선택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다. 실제 2월 14일 열린 서울 노원구 공릉초등학교 졸업식에는 꽃다발이 없었다. 70여명의 졸업생이 꽃다발 대신 하얀봉투를 들었다. 하얀봉투에는 2~3만 원의 꽃다발 비용이 있었고, 아이들은 이를 희귀난치질환 아이들에게 기부했다. 이렇게 모인 돈이 56만 1500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용이지만 공릉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이 돈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도 꽃다발 없는 졸업식이 열렸다. 꽃다발을 사는 비용으로 졸업생에게 쌀을 선물하게 한 것이다. 이날 졸업식에서 판매된 230여 포대의 쌀은 졸업생의 이름으로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기부됐다.

이렇게 넘쳐나는 꽃다발은 어찌 보면 낭비이며 1회용 쓰레기에 가깝다. 구입한 꽃다발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꽃 한 송이마다 비닐을 씌운다든지, 혹은 겉포장을 세 겹이나 네 겹, 심지어 대여섯 겹까지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이는 지나친 낭비이고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켜 환경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런 꽃다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집에 가져와 보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꽃을 주고 싶다면 한 두송이로 축하해줄 수도 있는 일이다.

행사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형 화환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행사 초대장에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라고 내는 '화환대신 쌀을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을 왕왕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화환 소비가 이뤄진다. 통계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화환이 연간 700만 개로 약 7,000억 원대의 경제적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화환과 꽃다발이 반갑겠는가. 함께 있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과 가족들이 반가운 일이다. 가수 안치환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는가.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라고.

굳이 꽃이 아니어도 반갑게 맞잡은 두 손과 눈길 사이에서는 꽃이 피어나기 마련이다. 그 '인연꽃'의 내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 능 효 과 ⊙
▶ 잇몸질환 예방
▶ 치주질환 예방
▶ 충치예방
▶ 치태제거
▶ 구취 제거
▶ 시린 이 개선
▶ 미백효과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많이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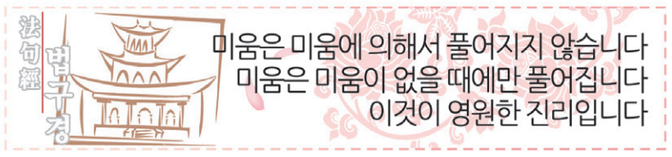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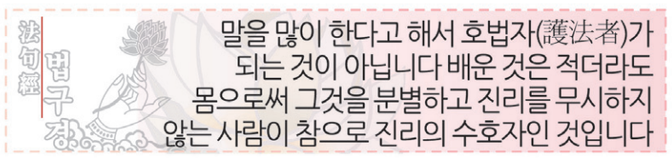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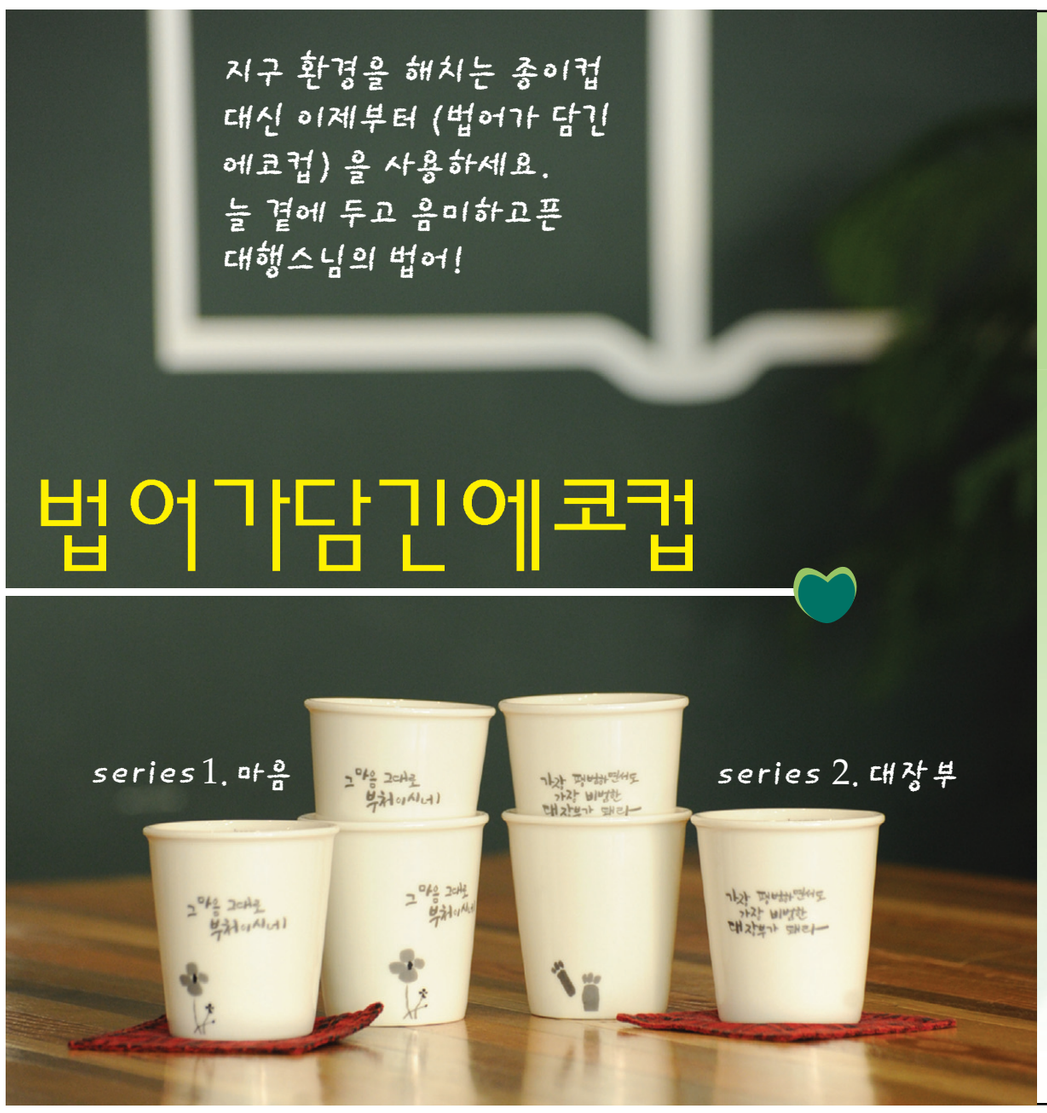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size check

← 80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